

**한국적 도시공간 구현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 기존 담론과 연구의 현황조사를 중심으로**

Preliminary Study on Directions to Realization of Korean Urban Space

권영상 Kwon, Young Sang  
염철호 Youm, Chirl Ho  
고은정 Ko, Eun Jeong

( a u r i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

itute

## **한국적 도시공간 구현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담론과 연구의 현황조사를 중심으로**

**Preliminary Study on Directions to Realization of Korean Urban Space**

지은이: 권영상, 엄철호, 고은정

펴낸이: 온영태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2008-00005호, 인쇄: 2008년 9월 16일, 발행: 2008년 3월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12,000원, ISBN: 978-89-93216-03-5

발간물 번호: AURI-기본-2007-4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적 도시공간 구현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 기존 담론과 연구의 현황조사를 중심으로**

Preliminary Study on Directions to Realization of Korean Urban Space

( a u r i



## 연 구 진

---

연구책임	권영상 • 부연구위원
연구진	염철호 • 부연구위원 고은정 • 연구원
외부연구진	전봉희 • 서울대학교 교수
외국자료조사	강성원 • 서울대학교 박사 주일영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연구심의위원	이규목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강인호 • 한남대학교 교수





## 연구요약

한국적인 도시공간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이 시대, 이 공간에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미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 모습이며, 지금까지 이 땅에 있어왔던 삶의 그것과 어떠한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본 연구는 이러한 우리의 공간환경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물음은 최근 도시공간에 대한 국제공모과정에서 제기된 몇몇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담론에서 시작되었다. 그 바탕에는 이 땅에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개념으로서의 ‘도시적 한국성(urban Koreaness)’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찾아내지 못한 문제의식도 한몫을 했다.

최근들어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사회·경제적 기반과 문화적 인프라를 갖춘 선진국에서는 자국만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를 더욱 특화시켜서 타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시공간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국의 공간환경이 가지는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차별되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오랜 도시조성 역사가 있고 해방 이후 술하게 많은 도시를 건설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도시구조나 도시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도시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축적이나 연구 흐름에 대한 이해와 고찰도 부족한 현실이다.

앞으로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우리의 공간환경에서의 문화적 가치인식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연구기관, 관련학회, 전문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의 전반적인 고찰과 이해가 먼저 필요하며 본 연구도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진행되었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적 도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후속연구들이 진행될 것이다.

##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향후 추진할 한국적 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일련의 연속된 연구의 사전적 기초조사연구로서 기존에 진행된 한국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논의와 한국에서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진행된 도시 관련 연구들과 일반 전문저널을 통해 진행된 한국성에 대한 논의들을 조사하고 향후 이 분야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된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폭넓게 조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논의검토, 기존에 진행된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들의 현황조사, 분야별 연구동향 및 향후 전망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2. 기존 이론검토

이 장에서는 공간의 한국성 혹은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담론적 논의들을 조사하고 그 흐름을 파악한다.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논의는 도시·건축과 같이 공간을 직접 다루는 학문영역 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경제, 예술 등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다 보니 다분히 담론적인 성격을 띠면서 논의되어 왔다.

도시·건축 분야에서의 한국적 공간에 대한 기존 논의는 먼저 건축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60~1970년대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국가주도형 설계공모 프로

젝트들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몇몇 언론을 통해 논의가 이어져갔다. 이러한 건축 분야에서 진행된 한국성에 대한 논의는 초기에는 전통에 대한 해석과 같은 통시적인 논의로 진행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점차 동시대성이나 근대성과 같은 공시적인 논의로 이동해 갔으며, 결과적으로 전통성이라는 논의에서 한국성이라는 논의로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이러한 논의는 조경과 도시 분야에서도 진행되었다. 특히 조경 분야의 경우 최근 들어 한국의 조경이 서구적인 사고와 이론의 수입에 치중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자기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도시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기존 도시구조에 대해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에서 도입되는 이론들을 한국적인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철학, 문화인류학, 조형예술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주요 논의들을 살펴보면 도시나 건축에서 진행된 논의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한국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은 그것이 공간이 되었건 형태가 되었건 간에 ‘전통성’과 같은 통시적 아이덴티티의 해석 및 고찰뿐만 아니라 문화적 타자(他者)와의 차별성을 가지는 개방적 주체성에 대한 확보 내지는 동시대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 대한 조망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3. 한국의 도시공간 관련 연구현황조사

#### 1) 주제별 연구현황

이 장에서는 한국의 도시공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시기별 경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본과 중국의 도시공간 관련 연구현황을 조사하여 부록에 수록하였다.

기존 연구의 현황조사는 향후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들의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현황조사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제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분류기준은 국내외 학회에서 진행된 학술발표대회 세션 주제와 기존에 진행된 연구사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기준을 검토하여 도시 '공간구조' 분야, 도시공간 '구성원리' 분야, 도시공간의 '변화 및 제도' 분야로 나누어서 조사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도시공간과 관련하여 발표된 연구 600여 편을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으며(약 65.0%), 그 다음이 '변화 및 제도'에 대한 연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약 20.0%). '구성원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약 15.0%) 인문문화이론, 사회경제구조 등 한국의 도시공간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시기별로 이들 연구의 현황을 파악해 보면 한국의 도시공간에서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대부분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구성원리'에 대한 연구는 전체 연구대비 비율에서 그 비중이 크지 않았으나, 2000년대 이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조사되었다. 반면 도시의 변화와 성장, 도시재생, 도시정책 및 제도 등 '변화 및 제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되었다.

이들 연구의 조사기준은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폭넓게 선정함으로써 향후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특성과 경향을 추출하고자 했으며 기초자료 성격의 연구목록 조사에서 도시공간의 한국성 내지는 한국적 도시공간의 정체성을 해석하는 것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었다.

## 2) 분야별 연구현황

이 장에서는 연구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의 도시공간을 바라보는 시선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진이나 연구기관별 연구경향을 파악하였다.

전체 연구비중을 보면 관련학회의 연구가 양적으로는 가장 많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1990년대 말 이후 도시설계학회와 도시지리학회의 창립, 각 학회 학회지의 발간횟수 증가, 회원수 증가 등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주제별 특징을 조사한 결과 중앙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는 한국적 상황에서 도시공간제도 및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과 지속 가능성, 친환경, 정보화, 뉴어머니즘, 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등 외국의 이론을 한국의 도시공간 및 공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도시형태조직과 도시정비 및 재생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학회의 경우 학회 성격별로 뚜렷하게 연구의 경향성을 조사하였는데, 대한건축학회의 경우 도시공간구조-도시구성요소-이미지경관 순으로 연구성과가 많이 조사되었으며, 국토도시계획학회의 경우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의 비중이 크고, 도시설계학회의 경우 도시정비·도시쇠퇴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건축역사학회와 도시

지리학회의 경우 본격적인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으나 그중에서는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조경학회의 경우는 이미지경관과 인문문화이론에 대한 연구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학회와 차별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대학의 경우 한국의 도시서 도시공간구조나 사회경제적 구조와 연계하여 살펴보는 방식의 연구들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1987년 이전까지 전체 연구의 절반에 해당했던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가 점점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도시구성요소, 이미지·경관, 도시정비·쇠퇴 등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는 현재 한국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주요이슈가 대학연구진의 연구경향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한편, 한국과 인접해 있으면서 도시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과 중국의 도시연구동향을 조사한 결과 일본의 경우 전체 도시공간구조나 구성원리에 대한 연구보다 점차 도시재생이나 마찌쓰꾸리 관련 연구, 세부적인 도시조직,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의 경우 도시공간구조나 구성원리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각국의 도시적 상황에 맞는 연구가 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도시재생이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연구, 경관, 도시의 세부적인 조직에 관련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에서 일본의 연구경향과 유사한 모습을 일부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국의 경우처럼 도시공간구조나 구성원리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분야별 연구동향 및 전망

이 장에서는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가 학문분야별로 주요 관심영역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동향 및 향후 전망을 검

토하였다. 크게 연구대상을 건축학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마을에 대한 연구분야와 도시학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도시관련 연구 분야로 정하여 연구동향 및 연구경향 검토를 통해 향후 전망을 기술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 설문조사 등 통계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동향과 최근의 연구경향 검토를 토대로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전망을 진행하고, 통계적인 방법에 따른 전망 등은 향후 연구과제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남겨두었다.

## 1) 건축학 분야 (마을연구 부분)

한국의 전통적인 소규모 도시공간구조의 원형을 담고 있는 마을연구의 경우 지리학, 민속학, 인류학,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건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건축학 분야에서는 마을에 대해 주거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확대된 기본단위이자 도시, 혹은 집합적 건축의 최소단위를 이루는 공간단위로 바라보았으며, 상업적 도시의 선례를 충분히 가지지 못한 한국 전근대사회의 도시적 집적을 살펴볼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이러한 공간구현방식은 건축학 분야의 주된 관심이 되며, 확장할 때 도시사연구의 주요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마을에 대한 연구는 일제시대부터 다양한 현황조사보고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특히 오다미치토시(小田内通敏)의 「조선부락조사예찰보고(朝鮮部落調査豫察報告)」(조선총독부, 1923)와 같은 조사연구를 통해 한국의 소규모 도시인 마을의 공간구조에 대해 일차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 연구진들에 의해 진행된 연구성과들은 마을의 현황에 대한 조사보고형식의 연구와 논문형식의 연구로 구분해서 조사하였는데 조사 보고형식의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한 조사보고서와 일반 대학 및 대학연구기관이 진행한 마을 조사보고서, 기타 연구자에 의해 진행된 개별적인 마을 조사보고서로 구분되었다. 특히 경북지역과 전남지역의 마을에 대한 조사보고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몇몇 소수의 연구집단이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 발견되었다.

논문형식의 경우, 1970년대 초 이정근과 김홍식의 연구 이후에 1980년대에 많은 박사논문이 배출되면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연구성과가 소강상태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마을연구의 대상이 외국의 한인거주지역으로 확대되고, 연구의 방향도 전통건조물보존지구에 대한 소극적 보존과 함께 민속마을정비라고 하는 적극적 활용방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동향 검토 결과 향후 건축학 분야에서의 연구과제는 두 가지로 제기되었다. 첫째, 지금까지 축적된 마을에 대한 실측조사연구에 대한 채집과 정리, 그리고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대한 필요성. 둘째, 마을연구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모색이다. 아울러 역사학, 인류학, 민속학, 지리학 등 학제 간의 연계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2) 도시학 분야

도시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동향을 보면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일본인이나 한국인들이 진행한 실측조사연구의 바탕 아래 도시공간구조 및 사회구조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손정목 교수가 진행한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도시계획과 도시공간구조, 도시변화과정에 대한 연속적인 연구성과들이 있었다.

이후 1980년대 초에는 이러한 도시공간구조 및 사회구조에 대한 연구의 저변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주종원 교수, 김의원 교수, 원영환 교수, 이규목 교수, 황희연 교수를



비롯하여 이상구 교수, 구자훈 교수, 김철수 교수 등이 한국의 도시공간의 특성에 대해 검토 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1980년대의 연구성과가 점차 지방의 중소규모 도시로까지 연구범위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부산, 대구, 밀양, 경주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의 특징이라면 경관과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대표적인 연구진으로 최기수 교수나 이규목 교수 등이 있었다. 또한 한국의 도시공간 구성원리에서 사회적 구조 등의 요인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형태에서도 보다 미시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도시조직, 필지체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도시공간정책에 대한 연구와 신도시개발에 따른 신도시 계획 기법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안건혁 교수, 최병선 교수 등이 대표적인 연구진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의 공간 구조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지방연구진과 지방대학 교수진에 의해 그 지역 도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특징이 나타났다. 한편 한국 도시의 연구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외국도시에 대한 연구 및 한국도시에 대한 비교연구를 국내 연구진이 진행한 점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이나 환경친화와 같은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한국적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도 제시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기존 도시의 물리적 환경 쇠퇴에 따라 기성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연구진으로는 양윤재 교수와 최막중 교수 등이 있었다. 또한 공간구문론이나 GIS 등 새로운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방법론을 한국의 도시에 적용하여 그 특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한편, 한국적 도시공간의 특성과 한국적 도시공간 구형방안에 대한 연구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대도시, 지방중소도시에서 전통마을, 중국의

조선족 마을까지 확대되는 양상이 발견되었으며, 도시재생과 도심활성화에 대한 연구, 가로공간의 경관과 도시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또한 한국의 도시적 특성과 생태, 친환경, 지속 가능성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동향 검토 결과 인구저성장, 도심부 재개발, 상향식 계획 패러다임, 도시재생, U-Eco 도시와 같은 미래형 도시공간의 모형개발, 친환경, 기후환경협약 등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이들의 한국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도시연구경향을 검토한 결과 한국의 경우도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도시재생이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관련한 연구가 늘어나고 도시의 세부적인 요소나 경관에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적으로 신도시 관련 정책이 지속될 경우 도시공간구조나 개발방식에 대한 연구도 일정 부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이론에 대한 해석과 이에 대한 한국적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까지의 경향대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자생적 이론을 도출하고 이론화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었으며, 도시·건축·조경을 비롯하여 인문·사회·경제학 등 여타 학문과의 학제 간 통합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결 론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논의는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시대, 이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생활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동시대적 가치에 따라 구현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과거의 전통 해석과 같이 지난 시대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의 다양한 가치와 전략으로 끊임없이 재편하고 창조적으로 해석해야 할 내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진행할 연구들을 위한 기초적인 사전조사연구의 성격으로 진행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한국적이라는 논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한국의 도시적 상황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모든 연구성과를 빠짐없이 정리했다고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첫째, 연구의 시간적 한계로 주요 학회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위주로 정리했으며, 둘째, 조사된 연구현황들에 대해 심층적이고 엄정한 평가 등 진행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가지는 기초조사연구의 성격상 향후 연구성과가 축적된 시점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를 또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연구과제를 통해 본 연구에서 부족했던 면을 보충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기존의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논의와 한국의 도시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적 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적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설계기법 및 계획방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도시 관련 제도와 정책방향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주제어:** 한국적, 한국성, 도시, 도시공간, 도시설계, 연구사

# 차례

<b>I. 서론</b>	<b>2</b>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5
4. 연구의 방법	6
<b>II. 기존이론검토</b>	<b>14</b>
1.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분야별 논의흐름	14
1) 도시·건축 분야에서의 논의흐름	14
2) 타분야에서의 논의흐름	16
2.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시기별 논의흐름	18
1) 1960~1970년대 담론 경향	18
2) 1980~1990년대 담론 경향	18
3) 2000년대 이후 담론 경향	23
<b>III. 한국의 도시공간 관련 연구현황 조사</b>	<b>26</b>
1. 주제별 연구현황	26
1) 주제별 연구현황의 개요	26
2) 주제별 연구현황	29

2. 분야별 연구현황 .....	39
1) 분야별 연구현황의 개요 .....	39
2) 분야별 연구현황 .....	40
<b>IV. 분야별 연구동향 및 전망 .....</b>	<b>44</b>
1. 건축학 분야(마을연구 부분) .....	44
1) 마을연구동향 .....	44
2) 과제와 전망 .....	63
2. 도시학 분야 .....	66
1) 도시공간 연구동향 .....	66
2) 과제와 전망 .....	77
<b>V. 결론 및 향후과제 .....</b>	<b>82</b>
1. 결론 .....	82
1) 주요 결론 .....	82
2) 기대효과 및 연구의 한계 .....	83
2. 향후 연구과제 .....	85
• 참고문헌 .....	88

• 부록 일본·중국 도시공간 관련 연구현황 .....	96
-------------------------------	----

## 표 차례

〈표 1〉 주요 조사대상 저널에 수록된 한국성 특집기사 .....	6
〈표 2〉 각 조사대상별, 연도별 연구수 (한국) .....	8
〈표 3〉 연구대상범위 .....	8
〈표 4〉 국내외 학술대회 및 국내연구의 카테고리 구분 .....	10
〈표 5〉 1980년대 한국적 도시·건축공간에 대한 주요 담론 .....	20
〈표 6〉 1990년대 한국적 도시·건축공간에 대한 주요 담론 .....	22
〈표 7〉 2000년대 한국적 도시·건축공간에 대한 주요 담론 .....	24
〈표 8〉 주제별 연구 분포 .....	28
〈표 9〉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을조사보고서 .....	54
〈표 10〉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마을조사보고서 .....	54
〈표 11〉 기타 연구서에서 마을조사연구 .....	55
〈표 12〉 마을에 대한 박사학위논문 .....	58
〈표 13〉 각 조사대상별, 연도별 연구수 (일본) .....	98
〈표 14〉 각 조사대상별, 연도별 연구수 (중국) .....	100
〈표 15〉 중·일 연구대상범위 .....	101
〈표 16〉 주제별 연구 분포 (일본) .....	104
〈표 17〉 주제별 연구 분포 (중국) .....	115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흐름도 .....	11
〈그림 2〉 대분류별 연구 비율 .....	27
〈그림 3〉 대분류별 연구수의 추이-1 .....	27
〈그림 4〉 대분류별 연구수의 추이-2 .....	27
〈그림 5〉 주제별 연구수 .....	28
〈그림 6〉 공간구조 관련주제 연구 비중 .....	29
〈그림 7〉 공간구조 관련 연구 현황 .....	29
〈그림 8〉 도시경관 및 이미지 관련 주제 연구현황 .....	31
〈그림 9〉 도시형태 및 조직 관련 주제 연구현황 .....	32
〈그림 10〉 구성원리 관련 주제 연구비중 .....	34
〈그림 11〉 도시구성원리 관련 주제 연구현황 .....	34
〈그림 12〉 도시변화 및 제도 관련 주제 연구비중 .....	36
〈그림 13〉 도시변화 및 제도 관련 주제 연구현황(종합) .....	36
〈그림 14〉 도시정비 및 재생 관련 주제 연구현황 .....	38
〈그림 15〉 도시정책 및 기타 주제 연구현황 .....	38
〈그림 16〉 분야별 연구 현황 .....	39
〈그림 17〉 분야별 연구수의 추이 .....	40
〈그림 18〉 분야별 연구주제 현황 .....	40
〈그림 19〉 연구기관의 연구현황 .....	40
〈그림 20〉 학회별 연구수 .....	41



〈그림 21〉 학회별 연구현황 .....	41
〈그림 22〉 대학의 연구현황 .....	42
〈그림 23〉 대학 연구의 주제 변화 추이 .....	42
〈그림 24〉 향후 연구과제 .....	86
〈그림 25〉 대분류별 연구 비율 (일본) .....	102
〈그림 26〉 대분류별 연구수의 추이-1 (일본) .....	103
〈그림 27〉 대분류별 연구수의 추이-2 (일본) .....	103
〈그림 28〉 주제별 연구수 (일본) .....	104
〈그림 29〉 [공간구조] 관련 연구현황 (일본) .....	105
〈그림 30〉 [공간구조] 관련 연구의 추이 (일본) .....	105
〈그림 31〉 [구성원리] 관련 연구현황 (일본) .....	108
〈그림 32〉 [구성원리] 관련 연구현황 (일본) .....	110
〈그림 33〉 도시계획학회와 건축학회의 연구현황 비교 (일본) .....	111
〈그림 34〉 건축학회의 연구현황 (일본) .....	112
〈그림 35〉 도시계획학회의 연구현황 (일본) .....	112
〈그림 36〉 대분류별 연구비율 (중국) .....	113
〈그림 37〉 대분류별 연구수의 추이-1 (중국) .....	113
〈그림 38〉 대분류별 연구수의 추이-2 (중국) .....	114
〈그림 39〉 주제별 연구수 (중국) .....	115
〈그림 40〉 공간구조 관련 연구현황 (중국) .....	116

〈그림 41〉 공간구조 관련 연구현황 (중국) .....	116
〈그림 42〉 구성원리 관련 연구비율 (중국) .....	118
〈그림 43〉 변화 및 정책관련 연구현황 (중국) .....	120
〈그림 44〉 학회별 연구현황 (중국) .....	121
〈그림 45〉 건축학회의 연구현황 (중국) .....	122
〈그림 46〉 도시계획학회의 연구현황 (중국) .....	122

I.

##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4. 연구의 방법

( a u r i

## 서론

## 1

## 연구의 배경

최근 프랑스, 일본, 미국과 같이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건축도시공간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높이고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서울, 평양, 경주 등 수도로서 기능했던 대도시와 수원, 대구, 전주 등 지방 중소마을·도시들에서 전통적인 도시구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울산, 창원, 신행정수도(1974)를 비롯하여 서울의 강남과 여의도, 분당, 일산, 행정중심복합도시(2006), 혁신도시 등 30년이 넘는 현대 도시설계 과정에서 축적된 나름대로의 도시공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의 도시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공간구조를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은 기능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근대적 서구이론을 바탕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천편일률적이고 무미건조한 도시공간을 만들거나 외국의 도시이론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sup>1)</sup>

한편 우리나라도 최근 이러한 도시공간에 대한 정체성과 한국적 도시공간이

1) 일례로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는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실천전략 수립 연구」(2006)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도시경관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건축물과 주변공간의 부조화이며, 한국 고유의 정체성 부족이 두 번째 심각한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한국 고유의 건축디자인 계획요소에 대한 연구의 확대(38.8%), 한국적 느낌을 주제로 한 건축, 도시 설계경기 확대(30.2%)를 제시한 바 있다.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일례로 최근 추진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공모에서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논의가 공모지침 작성 등의 추진과정과 심사과정에서 진행된 적이 있으나<sup>2)</sup>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은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축적이거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거나 고찰하는 것이 부족한 현실이다.

앞으로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우리의 공간환경의 문화적 가치인식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책연구기관, 관련학회, 전문연구자 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이해를 우선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논의나 연구들에 대한 현황과 연구동향을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직면해 진행되었으며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후속연구에서는 한국적 도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 연구의 목적

# 2

본 연구는 앞으로 추진할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들의 사전적 기초조사연구로서 기존에 진행된 한국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논의와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현황을 조사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진행된 도시·마을 관련 연구들과 일반 저널 등을 통해 진행된 한국성에 대한 논의들을 조사한다. 이러한 한국성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담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논문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의 저널을

2) 공모지침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살아 있는 아시아의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21세기 초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에 새롭게 조성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새로운 ‘도시적 한국성(Urban Koreaness)’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상투적이고 통념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깊은 역사를 가진 동아시아 도시조영의 철학과 이념이 정보시대, 세계화 시대에 맞춰 새롭게 창의적으로 해석됨으로써 세계 도시문화사에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는 도시개념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고 기술하고 있다.

통해 진행된 논의들도 연구대상에 포함하고 도시·건축뿐만 아니라 인문학, 예술, 디자인 분야의 논의들 역시 조사한다.

둘째, 향후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실천적 연구를 담보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된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조사한다.<sup>3)</sup> 기본적으로 한국성 내지는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를 폭넓게 조사함으로써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의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두었다.

셋째, 건축·도시 분야에서의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최근의 경향을 파악하여 향후 한국적 도시공간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연구방향을 전망을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기존의 담론적 논의들과 연구성과들에 대한 전체적인 일괄 및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초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도시공간의 한국성을 모색하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설정 및 실천적 계획방향 제시 등의 연구는 본 연구에 이어서 진행될 후속연구과제들을 통해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다.

---

3) 이러한 조사연구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대한 이른바 연구사연구 또는 조사연구 성격의 메타연구성격을 가지나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 등을 제안하지는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메타연구의 성격보다는 조사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국내에서 이러한 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서는 대한민국의학술원에서 출간한 『한국의 학술연구』가 있으며, 이미 고고학, 인문지리학, 섬유공학, 항공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에서 기존의 연구성과에 대한 정리와 향후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외국의 경우는 전통적인 도시디자인에 대한 해석이나 관련 연구들에 대한 연구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흐름과 경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의제를 제안하는 등의 연구가 다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 Geoffrey Broadbent는 「Emerging Concepts in Urban Space Design」(1990)을 통해 유럽지역의 시대별 도시디자인의 흐름과악에 대한 이론과 연구들을 정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건축계획 전반에 대한 연구사 정리가 현재 추진중이며, 도시사연구회에서 매년 『도시사연구』 연보를 발행하고 있고, 주민참여, 주변환경과 경관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도시연구동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며 또한 주택분야에서도 전후부터 현재까지의 주택연구를 집대성한 『주택연구사』가 2008년 10월에 출판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JAPA》에 기고되었던 연구서들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1979년부터 1998년까지 20년간 주제별 발표편수 및 비율분석을 토대로 연구경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실시한 “A Review of the Twenty Years of JAPA” (Gary T. Johnson 외 2인, 1998) 등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 연구의 범위

# 3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기존의 담론적 논의와 연구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내용적으로는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이론을 대상으로 하되 도시와 관련된 주요학회의 학회지논문을 통해 발표된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경향 및 동향파악을 추진했다.<sup>4)</sup> 또한 한국성 및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담론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저널 및 언론자료들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동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동향 조사를 병행하여 도시 관련 연구사의 선후관계와 연관관계를 파악한다.<sup>5)</sup>

둘째, 조사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7년부터 20년 이전을 기준으로 하여 1988년을 조사 시작 시점으로 선정하고, 그 이전의 연구에 대해서는 주요한 연구를 선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4) 한국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 사성격의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특히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빈도 조사 등 연구 간의 비교검토 및 향후 연구방향 제시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도시지리학 분야에서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연구로서 2002년 대한민국의학술원에서 발간한 『한국의 학술연구 - 인문지리학편』(1991, 대한민국의학술원)에 서울대 김인교수가 발표한 「도시지리학」 분야 연구논문이며 대한지리학회지 정기학술지가 출간된 1963년 이후 약 650편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연구주제, 주요연구인력, 연구방법론의 변화, 출판간행물과 학회지별 연구동향 등 한국의 도시지리학의 연구동향에 대해 개괄하고 향후 과제와 전망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며 연구내용에 대한 연구 이외에 주요 연구 테마와 영역, 도시지리학의 연구인력에 대한 세대구분과 각 세대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연구인력의 분류,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단행본과 학회지별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남영우, 이인용이 「한국 도시지리학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2002, 한국도시지리학회)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정리와 함께, 향후 전망과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건축역사학 분야에서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로서 대표적인 사례는 2001년 한국건축역사학회 창립 10주년 학술발표대회인 「한국건축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에서 서울대 전봉희 교수가 발표한 「마을연구의 현황 및 과제(草)」로서 일제시대 이후 한국의 마을단위 도시공간에 대한 기존의 연구사들을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정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학 분야에서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한 연구로서 대표적인 사례는 1999년 경원대학교 김윤수 박사와 이우중 교수가 국토학회논문집에 발표한 「한국 국토도시계획분야의 연구경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 한국, 미국, 일본 도시계획학회지 기고논문(1989~1998)을 중심으로」로서 이 연구에서는 1989년부터 10년간 《국토계획》에 게재된 논문 660편을 중심으로 연구영역을 주제별로 8개의 대분류로 분류하고 연구의 유형과 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도시설계학 분야에서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한 연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타난 연구서가 없는 상황이다.

5) 이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셋째, 조사연구의 공간적 범위로써는 남한의 도시를 위주로 진행하며 전통적 도시공간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마을을 대상으로 하되, 한국의 도시공간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간도, 일본, 중국 등의 일부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조사에 포함하였다.

## 4 연구의 방법

### 1)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담론자료 조사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담론적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논문으로서 체계적인 논의체계를 갖기보다는 다분히 선언적인 체계를 갖기 때문에 학술논문보다는 저널을 통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담론적 논의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논문뿐만 아니라 1960년대 이후 한국적 도시공간 내지는 한국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건축·도시·조경 분야 전문 저널들을 조사하여 내용을 파악했다.

또한 이와 함께 별도로 미학, 인문학, 디자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성에 대한 논의와 담론들을 조사하였다. 중요한 조사대상 저널은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조사대상 저널에 수록된 한국성 특집기사

저널명	연재제목 및 기사제목	시기
공간	한국현대건축 : 한국성의 재발견 1 -한국성의 본질과 원형	1987. 6.
	한국현대건축 : 한국성의 재발견 2 -한국성 탐사의 현재의사	1987. 9.
	한국현대건축 : 한국성의 재발견 3 -한국성 표현의 실제	1987. 11.
	한국건축의 한국성에 대한 하나의 가정 : 상보적 이원 구조	1987. 12.
	좌담, 한국성의 개념과 방법론	1988. 7.
플러스	한국 건축, 재구성을 위한 서설 (1)	1997. 1.
	한국 건축, 재구성을 위한 서설 (3) -이 시대 우리건축, 왜 다시 '한국성'인가	1997. 5.
	한국 건축계의 도전과 2000년대의 비전 (7)	1999. 9.
아크포럼	한국성: 굴레인가, 축복인가?	1988
환경과 조경	한국형 도시공원의 개발 모색 (1)~(5)	1993. 3~7.
	전통조경의 계승과 현대화계획	1997. 6.
	한국조경, 과연 철학이 깃들여 있는가	1997. 7.
	작정기 : 21C 한국적 도시공원의 추구	1998. 4.



## 2) 한국의 도시 관련 연구자료 조사

기존의 연구동향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요 학술지에 게재 발표된 논문과 학위논문, 국책연구기관 등의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의 경우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에 수록되어 있는 원본파일을 검색해서 조사했으며, 한국조경학회, 대한도시지리학회 논문의 경우 해당 학회의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원본 파일을 검색해서 조사하였다. 학위논문의 경우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검색해서 연구내용들을 조사했으며,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표 2)

이들 조사범위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국내 도시공간 관련 연구동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된 7개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여 1988년부터 2007년까지 20년간의 연구내용을 전체 검색하되, 학회의 생성연도가 그 이후인 경우는 학회 설립연도부터 2007년까지를 연구대상 시기로 선정하였다.

학회논문집으로는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6개 학회논문집을 검색하였으며, 이외에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를 검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한건축학회』(1945년 설립)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1959년 설립), 『한국조경학회』(1972년 설립)는 1988년부터 2007년까지 20년간의 연구내용을 검색하였으며, 『한국도시지리학회』(1997년 설립), 『한국건축역사학회』(1991년 설립), 『한국도시설계학회』(2000년 설립)의 경우는 학회 설립연도부터 2007년까지의 연구내용을 검색하였다. (표 3)

1988년 이전 시기에는 타 논문에서의 인용 정도, 기존의 연구사 정리연구의 내용 등을 토대로 주요연구들을 선정하고, 이 연구들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표 2〉 각 조사대상별, 연도별 연구수 (한국)

구분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조경학회	대학	기타	합계
1987 이전	2	3	-	-	-	1	20	19	45
1988	7	4	-	-	-	0	2	2	15
1989	6	5	-	-	-	1	3	2	17
1990	6	6	-	-	-	1	7	3	23
1991	10	6	-	-	-	1	4	2	23
1992	5	4	3	-	-	1	4	0	17
1993	9	5	1	-	-	1	5	2	23
1994	2	6	3	-	-	2	10	5	28
1995	2	13	2	-	-	2	10	1	30
1996	2	12	0	-	-	1	2	2	19
1997	8	15	0	-	-	3	6	1	33
1998	12	10	1	-	0	1	12	0	36
1999	10	11	0	-	6	6	4	0	37
2000	9	7	2	1	5	2	8	0	34
2001	8	2	0	4	2	0	8	5	29
2002	7	7	2	2	1	1	7	8	35
2003	10	1	1	0	3	0	11	3	29
2004	15	5	0	10	1	0	3	1	35
2005	15	4	0	8	1	4	11	2	45
2006	17	6	0	8	5	0	17	7	60
2007	17	6	0	4	2	2	11	8	50
합계	179	138	15	37	26	30	165	73	663

〈표 3〉 연구대상범위

구분		연구대상학회지	성격			조사 대상 연도	조사 편수
			발행주기	발행지역	설립연도		
한국	학회지	대한건축학회	매월	한국	1945	'88~'07	17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격월	한국	1959	'88~'07	138
		한국도시설계학회	분기	한국	2000	'00~'07	37
		한국조경학회	격월	한국	1972	'88~'07	30
		한국도시지리학회	분기	한국	1997	'98~'07	26
		한국건축역사학회	분기	한국	1991	'92~'07	15
		국토연구	분기	한국	-	-	13
	논문	석사학위	-	한국	-	-	23
		박사학위	-	한국	-	-	114
	보고서	대학부설연구소	-	한국	-	-	10
		정부출연연구소	매년	한국	-	-	19
	기타		-	한국	-	-	59

### 3) 연구동향 분석 및 주요 연구내용 검토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동향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제별 연구 분류기준을 검토하고, 향후 한국적 도시공간과 관련된 연구방향을 고려하여 연관되는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주제별 카테고리 선정은 6개 학회에서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의 발표 주제별 카테고리 구분을 참고하고, 도시지리학, 도시공학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사 연구의 연구분류체계를 참고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일본건축학회와 일본도시설계학회 학술발표대회의 주제별 카테고리를 분석하여 기준을 선정했다. (표 4)

이러한 기준을 검토한 결과 각 학회·연구진별로 연구들을 구분하는 기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적으로 도시사·계획이론에 대한 연구, 도시구조·도시계획·도시설계·도시경관 등 실제 공간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그리고 도시정책·부동산·도시경제·도시관련 연구방법론 등 도시와 관련된 지원 분야에 대한 연구 등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서 1988~2007년 사이에 연구된 연구들을 크게 3개의 대분류기준과 11개의 중분류 기준으로 구분해서 연구내용들을 검토하고, 이들의 분석을 통해 연구경향과 동향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도별 연구동향추이, 학회별 연구동향추이, 연구카테고리별 연구동향 추이 등을 파악했다.<sup>6)</sup>

이어서 각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에 대한 검토는 시기별, 주제별, 분야별로 구분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연구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주요연구에 대해서는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에 대해 정성적인 내용기술을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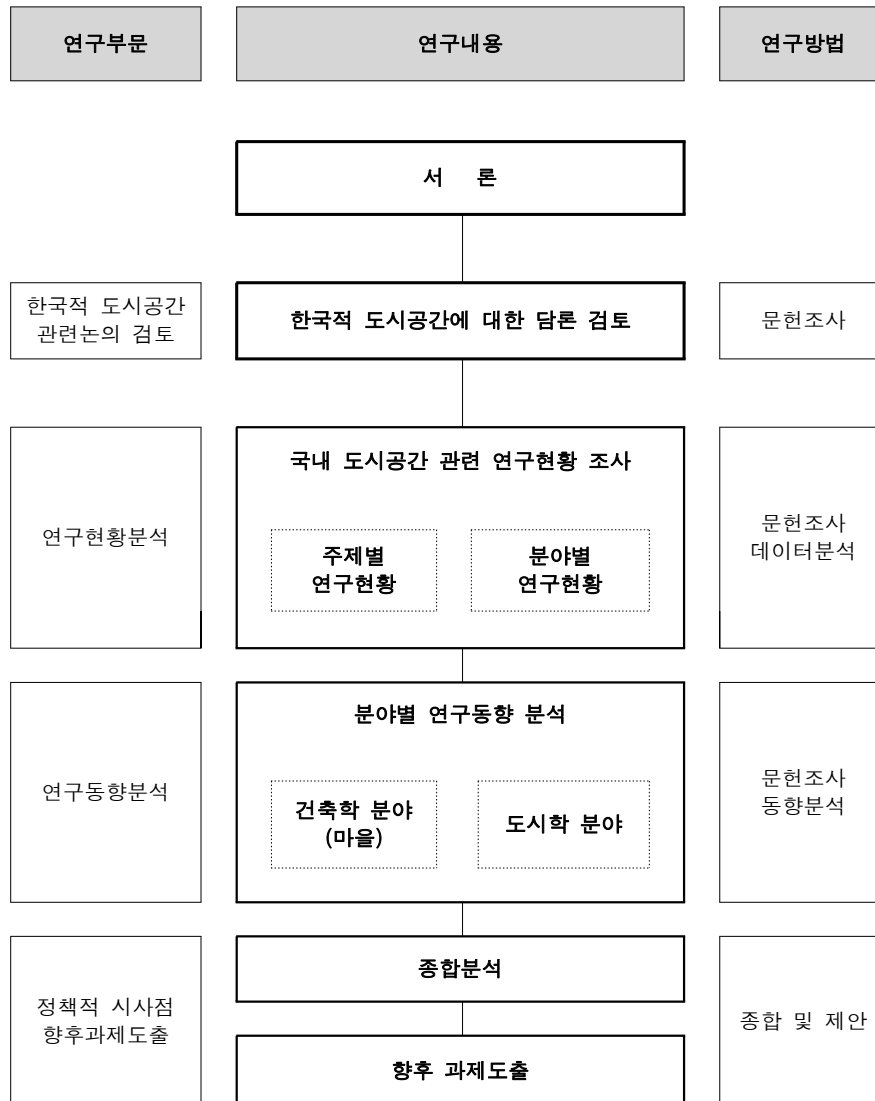
또한 이들 주요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한국도시공간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최근의 경향과 조류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을 전망하였다.

6) 각 연도별로 검색된 전체 연구의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각 연도별로 나누어서 주제별로 진행된 연구들의 비율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1996년에 검색된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연구는 전체 20개 연구 중 12개이고, 1997년도에 검색된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연구는 24개로서 두 배의 연구가 검색되었으나, 전체 연구가 1996년에는 20개, 1997년에는 33개로 검색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연구에서 60.0%와 72.7%로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표 4〉 국내외 학술대회 및 국내연구의 카테고리 구분

국외		카테고리 구분
국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대회	도시계획일반, 도시관리, 도시구조, 토지이용, 도시설계, 재개발 및 재건축, 도시재생, 인구구조 및 이주이동, 교통계획, 토지 및 주택,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 도시경제 및 부동산, 환경, 계획제도, GIS 등
	한국도시설계학회 학술대회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 도시경관/도시환경, 도시재생/도시역사보존, 공동주택/단지계획, 신도시/도시공간구조
	남영우 · 이인용 (2002)	도시일반, 도시사, 도시인구, 도시기능, 도시화, 도시권, 도시정책, 신도시, 도시재개발, 도시경제, 도시사회, 도시교통, 도시구조, 도시체계, CBD, 도시입지, 도시형태
	김윤수 · 이우중 (1999)	계획일반(계획이론 및 비평, 도시화, 도시사, GIS 및 컴퓨터응용, 정보화), 도시일반(계획, 도시구조 및 시설분포, 계획기법, 도시재난, 도시시설, 도시체계 및 도시기능), 토지(토지제도 및 정책, 토지이용, 토지관리, 지가 및 부동산, 주택), 교통(교통일반 및 정책, 교통수요, 교통수단 및 노선선택, 교통시설, 대중교통), 환경/관광(도시환경 및 생태, 환경오염, 여가시설, 공원녹지), 단지계획(도시개발 및 신도시, 도시설계, 도시경관, 역사보존, 주거환경), 지역경제(지역경제일반, 지역개발, 산업 관련, SOC, 인구이동), 행정/정책(도시정부, 법규 및 제도, 주민참여, 재정, 집행, 평가)
국외	일본도시계획학회 보고집	도시론/도시계획론/도시계획사, 국토계획/지역계획/농촌계획, 도시기본계획/도시종합계획, 시가지정비/거주환경, 방재/환경문제, 교통계획, 녹지계획/관광레크리에이션, 경관/도시디자인, 주택문제/토지문제, 행정/제도/참가/교육, 도시해석/지역해석/조사분석론, 기타
	일본건축학회 학술강연발표회	도시론, 도시계획사, 도시조사, 도시해석, 중심가로의 공간구성, 밀집시가지, 비성장 시대의 토지 이용상과 실현수법, 중심시가지 활성화, 뉴타운, 상업지의 입지변용 및 공간이용, 시가지의 입체이용, 토지이용분석, 교외 지구환경정비, 마찌나미와 경관형성, 경관계획, 경관평가, 가로경관, 옥외광고물, 색채, 공공공간의 디자인, 공원과 녹지, 주민참가와 경관, 마찌나미 형성,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 및 활용, 도시재생, 광역 마찌즈꾸리, 지속가능성, 지역의 방재력, 피난, 복구, 고령화사회의 마찌즈꾸리, 지구환경정비의 제도와 사례, 관광, 이벤트, 공공사업과 주민참가, 워크숍과 프로세스, 대학과 협동
본 연구		공간구조분야 : 도시구조, 도시형태조직, 도시구성요소,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도시이미지 및 경관 구성원리분야 : 인문문화이론, 사회경제구조, 지리적 · 지형적 배경 변화 및 제도분야 : 도시변화 및 성장, 도시정비 및 재생, 도시정책 제도 등

## 4) 연구의 흐름



〈그림 1〉 연구흐름도



# II.

## 기존이론검토

1.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분야별 논의흐름
2.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시기별 논의흐름

( a u r i

# 기존이론검토

## 1

###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분야별 논의흐름

#### 1) 도시·건축 분야에서의 논의흐름

한국적 도시공간 혹은 보다 넓은 의미로서 한국성은 도시·건축 등 공간환경에 관련된 연구영역뿐만 아니라 미학, 인문학, 디자인,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주제이며 일정 부분은 담론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sup>7)</sup>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다양한 논의들이 학술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저널이나 언론을 통해 많은 부분이 진행되어 왔다.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논의는 부분적으로 건축 분야에서 먼저 진행되었는데, 1960~1970년대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프로젝트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1980년대 이후에는 몇몇 건축잡지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는 특집 기사를 기획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건축 분야에서 진행된 한국성에 대한 논의는 초기에는 전통에 대한 해석과 같은 통시적 논의로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점차 동시대성이나 근대성과 같은 공시적인 논의로 옮겨갔으며, 결과적으로 전통성이라는 논의보다도 한국성이라는 논의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명쾌한 진단은 1997년 5월 건축저널 《Plus》에서 진행된 ‘이 시대 우리건축, 왜 다시 한국성인가’에서 박길룡 교수가 쓴

7) 한국성(Koreaness, Koreanness, Koreanity, Identity of Korean, character of Korea)이라는 용어의 용법이 논자마다 다르고, 개념은 논자 수만큼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개인의 의견이나 태도, 논자들은 그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담론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이정우, 2004), 최정민, 최기수, 「한국 현대 조경의 한국성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조경학회지》제35권 4호(2007년 10월)



1987년 공간지에서 진행된 특집에 대한 비판글에서 나타난다.

‘그때 내용 역시 우리의 관심은 구체, 형, 형식과 같은 물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던 것으로 기억하며, 그후 그것이 논의의 절대적 한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이해와 사고를 제한하는 틀이 된 뿐인 실패였다.’<sup>8)</sup>

이처럼 한국성에 대한 논의가 동시대성과 같은 논의로 확장되면서 과거의 전통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체로 하는 타자(他者)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적 정체성과 같은 논의구조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조경학 분야에서도 최근 들어 한국의 조경이 서구적인 생각과 이론의 수입과 소비에 치중해 있으며, 자기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조경 전문저널인 《환경과 조경》에서 1993년 ‘한국형 도시공원의 개발 모색’이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한국적인 도시공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1997년에도 ‘전통조경의 계승과 현대화계획’, ‘한국조경, 과연 철학이 깃들여 있는가’ 등 한국적인 조경공간에 대한 담론을 이어가고 있다.<sup>9)</sup>

도시 분야에서는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전통도시 및 마을구조에 대한 분석과 보존, 외국의 이론들을 한국에 적용시키는 유현의 연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콤팩트시티의 한국적 모형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발을 위한 한국형 압축도시모형 정립에 관한 연구」(김찬호, 이창수, 우윤석, 국토계획, 2007.4.)의 경우 지속 가능한 개발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압축형 도시’의 이론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에 적용 가능한 압축형 도시의 이념형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다비도프(Davidoff, 1965)의 옹호 계획(Advocacy Planning)이론이나 하버마스(Haberman, 1981)가 제시한 협력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에 기반한 전략계획으로의 계획프로세스 변화로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한국적 적용모델에 대한 연구들이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문정호 외, 국토연구원, 2006)나 「한국적 도시계획 패러다임 모색」(임서환 외, 주택도시연구원, 2006)을 통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 볼 때,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은 ‘전통성’과 같은 통시적 아이덴티티의 해석 및 고찰뿐만 아니라 문화적 타자와의 차별

8) 박길룡, “한국건축의 미적차원 - 현상과 관계”, 「이 시대 우리건축, 왜 다시 한국성인가」, Plus, 1997, 5.

9) 여전히 한국 조경은 서구적 생각과 이론을 수입하고 소비하는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된다.(이규목, 1992; 박재철, 1993; 김동찬, 1993; 신상섭, 1997; 최정민, 1994; 김한배, 1997; 1999, 고주석, 1998), 최정민, 최기수, 「한국 현대 조경의 한국성 논의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35권 4호(2007년 10월)

성을 가지게 되는 개방적 주체성에 대한 확보 내지는 동시대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 대한 조망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도시·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미학, 인문학, 디자인 등 타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sup>10)</sup>

## 2) 타분야에서의 논의흐름

인문, 사회, 경제, 예술 등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한국성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었으나, 건축저널을 통해 소개된 주요 논의들을 살펴보면 도시나 건축 분야에서 논의되는 것보다 폭넓은 범위로 한국성이 이해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학자인 소흥렬 교수에 의하면 한국성에 대해 논하면서 전통적 성격 이상의 문화적 정체성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성을 ‘전통적 한국성’, ‘예술적 한국성’, ‘이념적 한국성’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sup>11)</sup> “한국성에 대해 전통성을 내포한 개념으로 한국성을 이해하면서도 전통과의 거리두기라는 입장을 견지”<sup>12)</sup>하고 있다. 그는 전통적 한국성에 대해서는 한국성의 모색이 전통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으나, 새롭게 창조되는 것으로서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예술적 한국성에 있어서는 문화적 주체성을 확보하고, 식민성을 극복하여야 하며, 이념적 한국성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표현해야 함을 지적한다.

또한 문화인류학자인 김광익 교수는 “한국문화는 있는 것인가?”라는 글을 통해 한국성이라는 것에 대해 “문화의 전통성을 중시함은 반드시 과거집착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관류하는 역사의식, 인간관, 자연관, 세계관, 이념의 체계를 어떤 양식으로 표현하고 그 실천의 환경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 논하는 것”<sup>13)</sup>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인문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한국성에 대한 담론들은 단순히 전통성에 대한 논의 이상으로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현실성, 동시대성에 대한 논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된다.

10) 최정민, 최기수, 「위의책」, 한국조경학회지, 제35권 4호 (2007년 10월)

11) 소흥렬, 「한국성 모색을 위한 철학적 고려」, 공간, 1987. 6, 당시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12) 최정민 외, 「한국 현대 조경의 한국성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35권 4호 (2007년 10월)

13) 김광익, 「한국문화는 있는 것인가? (Rethinking the Koreaness in Contemporary Culture)」, 1997. 1, 서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한편 다른 조형예술 분야에서도 비슷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는데, 김정희 교수의 경우 “한국의 과거인 전통에만 시계를 좁힘으로써 세계화시대에 밖으로 향한 눈과 상상력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우리나라의 작가들이 우리의 지역적 특수성, 민족적 특수성만을 고려한 채 ‘지금의 시간’이라는 시간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원인”<sup>14)</sup>으로 지적하면서 한국성에 대한 논의를 전통성에서 동시대성과 같은 통시적 개념으로 확장시켰다.

또한 장석원의 경우 “한국성이란 과거의 전통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대와 현대의 재조명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할 성격이며, 삶의 유형은 과거를 답습하지 않는 것”<sup>15)</sup>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성의 개념을 전통성과 구분짓고 있다.

한편 디자인 분야에서도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는데, 최상현 교수의 경우 “전통성이란 한국성에 비해 역사성이 두드러진 개념으로 한국성이란 개념에서 필연적으로 전통성일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한국성이란 현대적인 의미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이나 색채가 담겨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sup>16)</sup>하는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구성희 교수의 경우 “최선의 한국성이 표현된 건축이란, 지금(현재)에서의 모든 문화적 기술적 상황을 요식없이 받아들여 현실에 붙여넣는 것이다. 전통건축의 어떤 조형적 양식이 재현, 혹은 활용되는 것은 참다운 한국성의 표현이 아니다.”<sup>17)</sup>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한국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전통에 대한 해석과 형태적 공간적 활용에 대한 담론도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노골적으로 한국성에 대해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으며 그 나름대로의 담론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sup>18)</sup>

14) 김정희, 「토속성을 통해서 표현된 ‘한국성’」, 윤범모 외 편저, 현대미술학회 논문집 제2호, 서울;문예마당

15) 장석원, 「현대의 한국성과 예술혼에 관하여」, 아트월드 70호

16) 최상현, 「전통성, 한국성 그리고 한국 현대 실내디자인」, 건축, 0102

17) 공간특집, 「한국현대건축:한국성의 재발견2, 한국성 모색의 현재의사」, 공간, 1987.9

18) 한국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는 한국인의 정체성은 패거리의 정체성으로 창의성을 제한한다.(진중권, 2002, 『폭력과 상스러움』, 푸른숲), 한국성은 현대에 인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것(송민구, 1987, 공간), 한국적인 건축이 절실하게 요구되지도 않으며, 이를 애국과 동일시 하는 사고 자체가 불손함(1987, 최창규, 공간) 등의 논의가 있다.

## 2

##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시기별 논의흐름

### 1) 1960~1970년대 담론 경향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진행된 ‘한국적 공간’에 대한 논의는 ‘전통성’이라는 논의로 대표되며, 당시 일제시대 이후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건축·도시 등 공간을 다루는 학문 분야에서도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물리적인 사례와 저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한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현상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촉발되었고, 이후 김수근, 김중업 등 유명 건축가의 작품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전통건축도시공간에 대한 첫 번째 논쟁은 1966년 1월 8일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진행된 국립중앙박물관 현상설계공고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sup>19)</sup> 당시 현상공모지침에서는 ‘새로운 우리나라 고유 양식의 창의를 발휘하여 이를 후세에까지 전할 수 있는 문화의 전당을 건립’할 것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전통의 화두를 제기한다.

공간·조형 분야에서 본격적인 담론은 1967년 8월 19일 《동아일보》를 통해 김수근 건축가의 부여박물관에 대한 왜색논쟁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후 김중업의 프랑스대사관, 이희태의 절두산성당과 민족문화센터(현 국립극장), 국회의사당, 김수근의 공간사옥 등을 정점으로 해서 진행되었다. 당시의 논쟁은 주로 전문 분야 저널과 언론 등을 통해 진행되었고 주로 건축적 외관과 양식에 집중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서 형태적 특성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졌다.

### 2) 1980~1990년대 담론 경향

#### ① 1980년대 담론 경향 : 형태와 공간구성원리

1980년대에 들어서 건축도시 분야 잡지들의 발간과 성장으로 본격적인 한국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건축잡지의 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논의는 1980년대 후반에 《공간》에서 기획한 “한국현대건축 : 한국성의

19) 안창모, 「1960년대 한국건축의 반공·전통이데올로기와 모더니티」,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3. 11

재발견” 시리즈의 기획물과 1990년대 후반에 《Plus》지에서 기획한 “한국건축 재구성을 위한 서설(1)프롤로그”와 “이 시대 우리건축, 왜 다시 ‘한국성’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87년 6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논의는 「Ⅰ. 원론/한국성의 본질과 원형」, 「Ⅱ. 설문/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Ⅲ. 각론/한국적 본질과 방법화를 위한 분석」, 「Ⅳ. 종합」으로 추진되었으며, 보다 건축에 집중해서 한국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Ⅱ. 설문/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에서는 국내 건축, 문화, 예술 분야의 전문가 41인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성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제도권 내에 있지 않는 자유로운 한국성에 대한 담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각 건축저널에서 부분별로 진행된 논의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강봉진의 “한국전통건축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기본계획안에 대하여(건축과 환경, 1989.9.)”, 김봉렬의 “한국성을 다시 생각한다(1993.12.)” 등이 있다.

전문저널을 통해 진행된 담론들의 주체는 전문적인 학자뿐만 아니라 건축가, 계획가, 미술가, 인문학자 등 폭넓은 계층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폭넓은 계층의 참여로 인해, 한국성의 논의가 전통성에 대한 논의에서 동시대성, 근대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건축 분야에서 진행된 한국성에 대한 논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통적인 형태요소에서 설계언어와 공간계획원리를 추출하여 이를 통해 한국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형태 및 의장적 표현에 주목한 논의는 한국성이라고 볼 수 있는 고유한 성격이 있으므로, 여기서 양식적 요소를 추출하여 형태화하는 방식이나(임창복), 비례, 휴먼스케일 등 공간적 특성에 대해 집중하는 방식(민현식), 문양, 색채, 의장요소 등을 양식화하여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공간계획원리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형태나 양식과 같은 외형적 측면이 아니라 공간의 구성원리에서 한국적인 성격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1980년대 말부터는 한국성에 대한 논의가 동시대성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형태적 표현이나 재현은 무의미하고 과거의 내면적 정신성을 발굴하고자 하는 태도, 특히 이에 의한 과거의 한국건축이 가졌던 내면적인 것을 참다운 의미의 해석을 통하여 오늘의 낱말로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국성의 표시라고 보겠다.(김희춘, 서울대)”<sup>20)</sup>거나 “어느 나라도 일본성, 불란서성, 이집트성을 찾아야 현대건축이 발전한다고 보기 어렵다.……

20) 「한국현대건축 : 한국성의 재발견 2/설문,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Current State of Controversy over the Cultural Meaning of ‘Koreaness’)」

한국성 발견의 측면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간곡히 요청되는 건축물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성을 주는 것이 더 급하다고 하겠다.” (정기용, 기용건축)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표 5〉 1980년대 한국적 도시·건축공간에 대한 주요 담론

시기	출처	제목	논자	주요내용
1987. 06	공간	동양건축에서의 집과 사람-하나의 동양적 관점으로서의 한국성	김성우	우리는 전통적 사유방식을 그대로 모방할 수도 없으며, 과거의 가치관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 이어져야 할 미래의 창조에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서양적인 면과의 조화를 모색해야 함
1987. 09	공간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이광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식과 색채 등에 대한 인식, 성격적인 특성이 자연적으로 표출되는 시대적인 표현
			오기수	형태보다는 공간과 공간의 연결(구성)에서 오는 고유함(연출)을 추구
			조성룡	외부공간의 성격(전통적인 배치개념), 공간의 연계성, 공간의 융통성, 중간영역의 설정, 고유 풍토에 조화되는 소재와 색채의 선택
			민현식	인공환경을 자연환경과 동일시하여 합일하려는 사상 옥외공간과 옥내공간의 연속성(sequence) 스케일, 크기, 분할비례 등에 나타난 심미관 또는 심미감
			임창복	전통적 행위양식과 형태요소를 추출해서 현대적으로 표현
			김희춘	형태적 표현은 무의미하며 과거의 내면적인 것을 참다운 의미의 해석을 통하여 오늘의 낱말로 표현할 때 비로서 한국성이 표현
			김봉렬	작가의 의지와 노력, 한국적 작가란 과거 건축에 대한 이해와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한 통찰력으로 한국적 감각이 잠재의식 속에 축적되었을 때, 한국적인 표현이 가능
			김광현	국가 전체의 한국성보다는 지방성의 표현으로 그 문제의 스케일을 조정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
1987. 11	공간	한국성 표현의 실제2	민현식	한국성의 표현은 시간성, 지역성, 역사성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함
1987. 11	공간	한국성 표현의 실제3	조성룡	서양건축의 구성개념이 나타난다고 해서 한국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전통적 모티브가 없다고 해서 한국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국성이라는 표현은 단지 전통의 도입이 아니라 한국적 특성과 본질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전개될 문화의 현재 내지는 미래
1987. 12	공간	한국건축의 한국성에 대한 하나의 가정:상보적 이원구조	이규목	전통의 단순한 도입은 배경, 한국성을 상보적 이원구조에서 찾는 것은 본질적인 내면적 구조에서 찾고자 하는 것. 한국성의 적용방식은 작가의 창작과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음

시기	출처	제목	논자	주요내용
1988. 06	건축과 환경	한국성의 재규명	안영배	전통이라는 말 대신 한국성이라는 말의 사용은 시대성을 초월한 전통, 과거에 있었던 것이 현대에도 이해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
			이상해	전통에서 한국성으로 바뀐 성과는 우리 시대 우리 문화에 바탕을 둔 세계 속에 한국건축을 주체적으로 얘기해야 하며, 외래문화와의 접촉 융합과정 속에서 수용된 내용을 오늘의 어휘로 표현해야 함

※ 본 표는 최정민(2008)의 연구검토내용을 토대로 해당 저널의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

최정민, 「현대 조경에서의 한국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2008)

## ② 1990년대 담론 경향 : 동시대성

1980년대 말 이후 한국성에 대한 논의는 소주제로 다뤄지다가 1990년대 말 건축잡지인 《플러스》의 특집기사 「“이 시대 왜 다시 한국성인가(1997)”」와 온라인 건축잡지인 《아크포럼》의 특집기사 「“한국성: 굴레인가, 축복인가?”」라는 주제의 좌담을 통해 1990년대 건축도시 분야의 한국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된 동시대성에 대한 논의는 한국성에 대한 논의를 기존의 전통성 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성에 대한 논의로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 한국성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는 동시대성, 현재, 한국의 상황 등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관련된 논의로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사유방식을 그대로 모방할 수도 없고, 한국성은 과거의 가치관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 이어져야 할 미래의 창조에 목적이 있는 것<sup>21)</sup>”(김성우)이나 “한국성은 문화의 현재 내지는 미래<sup>22)</sup>”(조성룡) 등이 있다. 이러한 한국성의 본질로서 동시대성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전통만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며,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한국성의 논의를 근대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시켰다.<sup>23)</sup>

한편 한국성 자체를 부정하는 담론도 등장하는데, 한국성을 동아시아의 성격 중 하나에 포함되는 보편성을 가지는 성격으로 규정하거나 현 시대의 관점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담론들이 있다. 한국성을 동아시아의 보편적 성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예로, 김성우 교수의 “한국건축의 고유성도 대부분

21) 김성우, 「90년대의 전통논의를 생각하며」, 공간, 1989.12

22) 공간, 「한국성 모색의 현재의사, 한국현대건축:한국성의 재발견2」/설문, 1987.9

23) “한국성은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행위”(이정근, 1997; 이강현, 1997)이며 “문화적 정체성을 따지는 일”(강혁, 1997; 이강현, 1997; 임창복, 1997)로 규정한다. 문화적 정체성으로서의 한국성은 근대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자아, 주체,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적 사유이기 때문이다.”(강혁, 1997), 최정민, 최기수, 「한국 현대 조경의 한국성 논의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35권 4호(2007년 10월)

의 동아시아 건축의 보편적 성격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한국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와 같은 견해를 들 수 있다.<sup>24)</sup> 한국성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건축가 최창규 선생은 《공간》을 통해 “한국적인 건축의 역사양식이나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한국적인 건축이 현실 사회에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고 있으며, 관료주의적인 성격으로 국제사회생활 의식이나 양식에서는 한국적이라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sup>25)</sup>

〈표 6〉 1990년대 한국적 도시·건축공간에 대한 주요 담론

시기	출처	제목	논자	주요내용
1997. 06	플러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한국성 담론의 비판적 분석	강혁	한국성은 문화적 정체성을 따지는 일이며, 따라서 한국성은 우리의 현재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과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한국성이란 옛것의 특수성과 고유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근대사라는 보편적인 과정 속에서 자기를 회복하려는 노력에서 찾아야 함
1997. 05	플러스	한국건축의 미적차원-현상과 관계	박길룡	한국성에 대한 관념적 접근, 조형적 이해(형태, 공간)로 구분하고, 현상적 접근을 제시
			이강현	한국성은 곧 정체성을 찾는 문제
			우경국	한국성 하면 전통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문제
			임창복	한국성은 전통보다는 근대사의 역사적 집적물들 속에서 발견되며,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임
			강혁	본질을 단일화하는 것은 위험하며, 부분부분에서 연구하고 총체적으로 모으는 방법 필요
1998.	아크 포럼	한국성: 굴레인가, 축복인가	김봉렬	한국성은 현실, 주어진 여건, 국제적 상황 같은 리얼리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시대의 리얼리티에 의해 변하고 만들어지는 것 고정된 한국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과거에서 찾는 것도 아니라는 것, 현실의 문제, 현대건축의 문제들에서 한국성을 찾아야 함
			김준성	한국건축은 한국사람이 하는 모든 것, 일반적인 문화를 알아야 함
			김영준	한국성의 바탕이 되는 생각들은 현재의 시점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성이라는 것은 현대화된 한국사회에 맞는 건축을 하는 것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대량화시대라는 또 하나의 한국성에 대한 화두임
			김진애	한국성에 대한 논의는 콤플렉스와 관련 타자와의 비교를 통한 자기확인인식이 본질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문제로부터 단서가 있음
			전봉희	역사나 전통을 바라볼 때 현실에 대한 인정을 강조되어야 함

24) 김성우, 「90년대의 전통논의를 생각하며」, 공간, 1989. 12.

25) 최창규, 「한국현대건축:한국성의 재발견2/설문, 한국성 탐색의 현재의사」, 공간, 1987.9



시기	출처	제목	논자	주요내용
1999.10	건축 문화	중소도시의 한국성	조명래	정체성으로서 한국성은 그런 점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천하여 구현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성의 재현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살아갈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의 중심이라 할 수 있음

※ 본 표는 최정민(2008)의 연구검토내용을 토대로 해당 저널의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  
최정민, 「현대 조경에서의 한국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2008)

### 3) 2000년대 이후 담론 경향

2000년대 이후 도시관련 분야에서 외국이론을 한국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김찬호, 이창수, 우윤석, 2007) 등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신도시의 공간구조를 계획할 때 한국적 도시공간구조를 제안하면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확대해 왔다.

예를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설계공모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의 비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살아 있는 아시아의 문화도시’를 지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국제공모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의 한국성 논의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 도시가 ‘도시적 한국성(Urban Koreaness)’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되, 상투적이고 통념적인 방법-불변의 형태적인 전통성을 지칭-을 통해서가 아니라 깊은 역사를 가진 동아시아 도시조영의 철학과 이념이 정보시대, 세계화 시대에 맞춰 새롭게 창의적으로 해석됨으로써 세계 도시 문화사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는 도시개념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조경 분야에서도 ‘용산기지 공원화’ 계획의 주요 철학 가운데 하나는 ‘한국적 공원’으로 설정하여 진행할 것을 계획하는 등 이전에 건축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한국적·한국성에 대한 논의들이 전통논의에서 동시대성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는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과 아울러 도시와 조경분야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하는 양적인 변화를 이루었다.<sup>26)</sup>

26)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2005) 용산기지 공원화 구상 연구

〈표 7〉 2000년대 한국적 도시·건축공간에 대한 주요 담론

시기	출처	제목	논자	주요내용
2001.	과학 사상	현대건축에서 의 건축과 삶, 그리고 한국건축의 정체성	이상현	한국성 또는 한국적 정체성은 한국적 형태어휘나 공간계획원리에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건축의 생산적 토대를 갖추는 것
2005. 09	C3 Korea	확실히않은 언어들 IX, 한국성 (Koreaness)	이종호	한국성 논의의 핵심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치열한 고민. '전통' 논의로부터 '한국성' 논의로 전환된 것은 보다 진전된 것으로서 '지금 여기'의 의미를 강조하며, 한국성 논의의 과제는 아시아의 도시와 건축을 보편성으로 만드는 일임
2006. 03	국토 해양부	행정중심 복합도시 국제공모관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	정부 (행정중 심복합도 시 건설 추진위원 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살아 있는 아시아의 문화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적 한국성은 상투적이고 통념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깊은 역사를 가진 동아시아 도시조영의 철학과 이념이 정보시대, 세계화 시대에 맞춰 새롭게 창의적으로 해석됨으로써 세계 도시문화사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는 도시개념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함

\* 본 표는 최정민(2008)의 연구검토내용을 토대로 해당 저널의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

최정민, 「현대 조경에서의 한국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2008)



## 한국의 도시공간 관련 연구현황 조사

1. 주제별 연구현황
2. 분야별 연구현황

( a u r

# 한국의 도시공간 관련 연구현황 조사<sup>27)</sup>

## 1 주제별 연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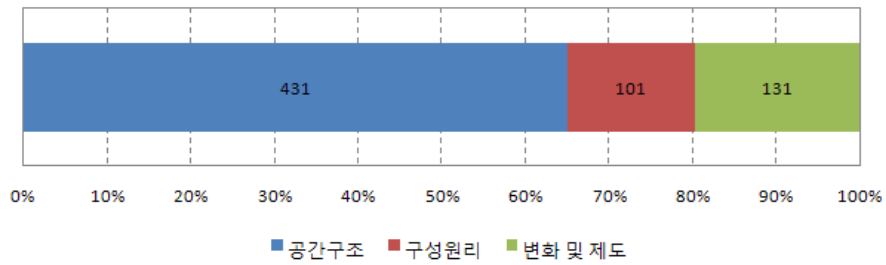
### 1) 주제별 연구현황의 개요

지난 20년간 발표된 한국의 도시공간 관련 연구 663편을 ‘공간구조’, ‘구성원리’, ‘변화 및 제도’로 크게 나누어 그 분포를 살펴본 결과,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약 65.0%), ‘변화 및 제도’에 관한 연구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약 20.0%).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비중(약 15.0%)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원리에 관련된 연구로서 중요한 연구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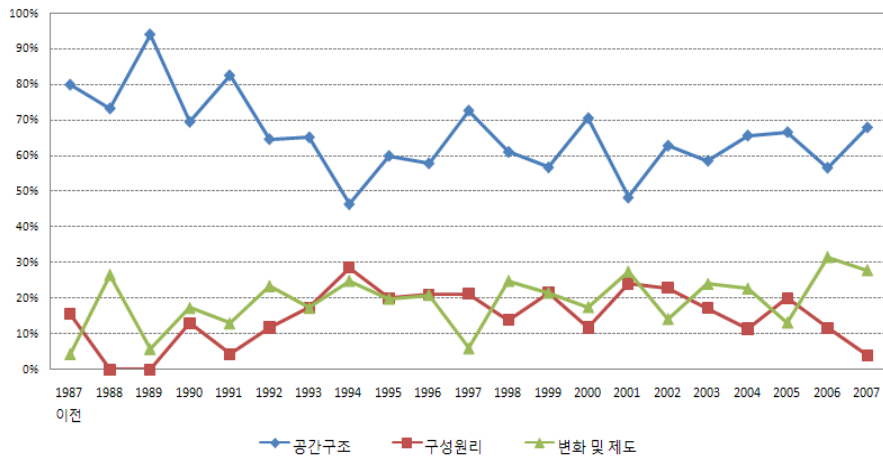
이들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구성원리’에 대한 연구는 전체 연구대비 비율에서도 그 비중이 작았으나 2000년대 이후 점점 더 감소하는 추세로 조사되었으며, 도시의 변화 성장 및 재생, 도시정책 및 제도 등에 관련된 연구인 ‘변화 및 제도’ 등과 관련된 연구들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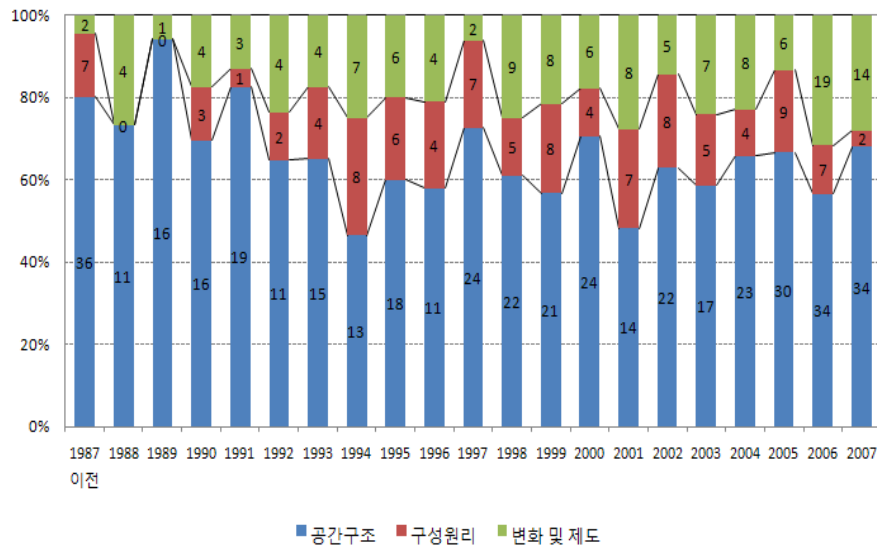
27) 일본과 중국의 도시공간 관련 연구 현황조사는 ‘부록’ 참고



〈그림 2〉 대분류별 연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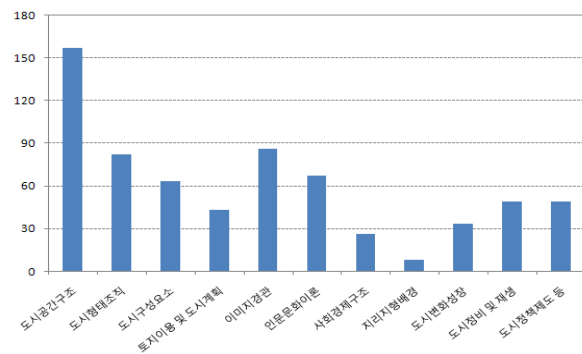
〈그림 3〉 대분류별 연구수의 추이-1



〈그림 4〉 대분류별 연구수의 추이-2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사한 연구 중에서 ‘공간구조’에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 시기에 걸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국의 도시공간 ‘구성원리’와 관련된 연구 중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연구와 지리지형 배경에 대한 연구, ‘변화 및 제도’의 도시변화와 성장에 대한 연구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5〉 주제별 연구수

〈표 8〉 주제별 연구 분포

구분	'87 이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합계
도시공간구조	15	5	4	7	7	5	4	3	7	3	8	7	2	13	6	10	7	11	9	14	10	157
도시형태조직	19	1	4	4	6	3	1	2	4	1	3	2	1	4	2	2	6	3	6	3	5	82
도시구성요소	0	2	2	3	3	2	4	1	3	1	1	7	6	3	2	2	1	1	4	7	8	63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1	1	1	1	1	0	1	1	2	3	8	2	4	2	2	4	1	1	2	2	3	43
이미지경관	1	2	5	1	2	1	5	6	2	3	4	4	8	2	2	4	2	7	9	8	8	86
인문문화이론	5	0	0	2	1	1	2	5	4	3	4	3	6	3	4	6	3	3	6	4	2	67
사회경제구조	2	0	0	0	0	0	1	1	0	1	3	2	2	1	3	2	2	1	3	2	0	26
지리지형배경	0	0	0	1	0	1	1	2	2	0	0	0	0	0	0	0	0	0	0	1	0	8
도시변화성장	1	0	1	2	0	2	0	4	2	2	1	3	0	2	3	1	3	0	2	1	3	33
도시정비 및 재생	0	3	0	1	0	0	1	2	3	2	0	3	3	1	4	2	3	2	3	10	6	49
도시정책제도 등	1	1	0	1	3	2	3	1	1	0	1	3	5	3	1	2	1	6	1	8	5	49
합계	45	15	17	23	23	17	23	28	30	19	33	36	37	34	29	35	29	35	45	60	50	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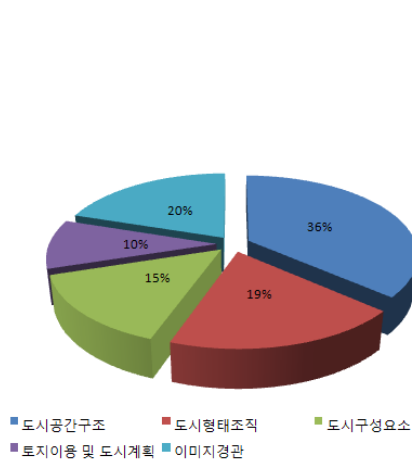
## 2) 주제별 연구현황

### (1) ‘공간구조’ 관련 연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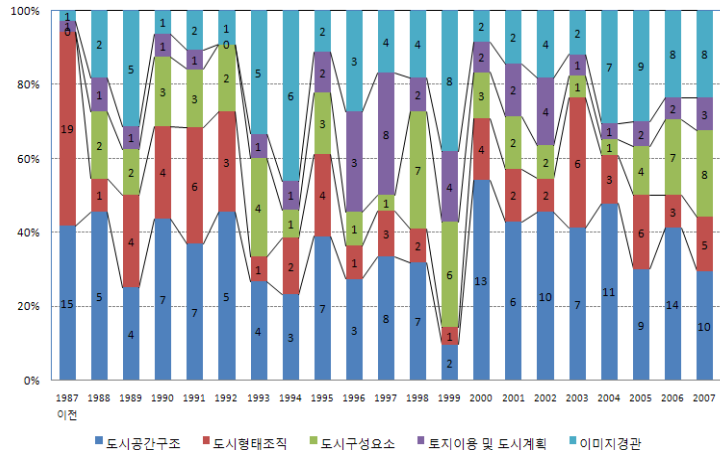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사한 연구 중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6.4%) 다음으로는 이미지 및 경관에 관련된 연구(20.0%), 도시형태와 조직 (19.0%)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구성요소(14.6%),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10.0%)에 관련된 연구들은 상대적인 수는 적으나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도별로 관심 분야에서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미지·경관과 관련된 연구는 타 분야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6〉 공간구조 관련주제 연구 비중



〈그림 7〉 공간구조 관련 연구 현황

#### ① 도시공간구조 관련 연구현황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사한 연구 중 도시공간구조 관련 주제 연구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 점차 감소하여 이전에 비해 비중이 낮아졌으나, 전체 연구 중 도시공간구조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여전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연구의 경우 연도별로 주요관심사와 방향이 약간씩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가 점차 발전하고 있는 양상으로 이해된다.

1970년대에는 도시공간구조 자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이후 점차 도시공간구조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점차 지방도시의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도시 간의 비교연구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공간적 자기상관분석, 공간구문론 등의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중국과 북한의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도시구성요소, 도시구성원리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와 결합되어 진행되는 연구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각 지방 도시의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들은 그 지방의 대학 및 연구진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면서 점차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대구, 전주, 울산, 광주, 수원, 군산, 청주 등 몇몇 도시들의 경우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구조에 대한 주요한 연구로는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해 저술한 손정목 교수의 일련된 연구저서<sup>28)</sup>가 대표적이며, 또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교수·연구진의 경우 한국의 도시공간구조로 학위논문을 기술한 것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원영환 교수의 『조선시대 한성부 연구』, 이상구 교수의 『조선중기 읍성에 관한 연구』, 구자훈 교수의 『경성부 공간구조의 형성 변천에 관한 연구』, 주종원 교수의 『읍성으로부터 발달한 지방 중소도시의 공간구조적 특성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전봉희 교수의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창석·남진 교수의 『서울시 도심부 공간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권영상 박사의 『조선후기 한성부 도시공간의 구조』 등을 통해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들은 각각의 도시에 대한 공간구조와 특성을 기술하는 연구로서 향후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귀납적 서술을 하는 데 토대를 이룰 것으로 생각된다.

## ② 도시경관 및 이미지 관련 연구현황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사한 연구들 중 도시경관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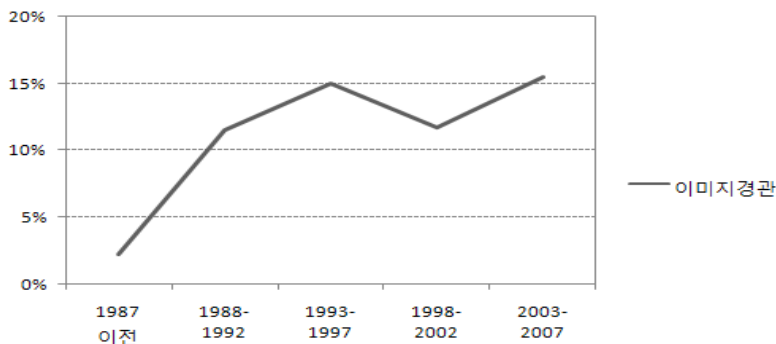
28) 손정목 교수에 의해 진행된 주요 연구들은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일지사, 1977),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일지사, 1990),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일지사, 1996),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 연구』(일지사, 1982), 『한국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 연구』(일지사, 1982) 등이 있음



히 건축학과와 조경학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0년대 도시경관 및 이미지에 대한 연구의 선구적 역할을 한 연구진은 이규목 교수, 김한배 교수 등이며 이후 구자훈 교수, 이인성 교수, 이정형 교수 등 조경학과와 도시설계 관련 전공 연구자 및 교수들이 연구하였다.

한편 경관 분야에서도 각 도시별로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각 도시별 경관체계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로는 구자훈 등이 진행한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3, 1994), 『경주시 도시경관과 그 이미지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외에 한국의 도시경관의 특성에 대한 연구서로 이규목 교수의 『한국의 도시경관』(열화당, 2002)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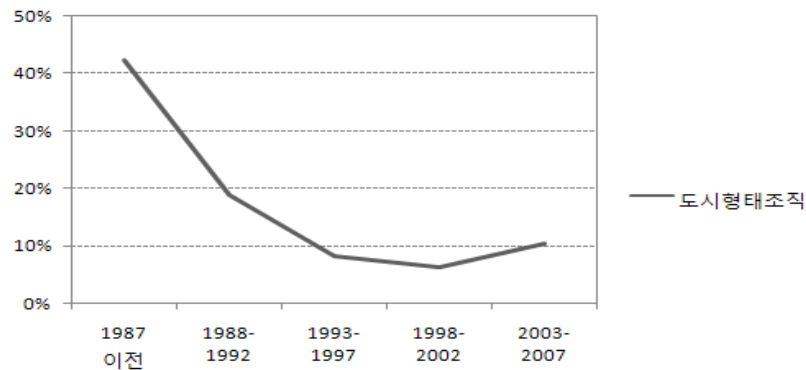
〈그림 8〉 도시경관 및 이미지 관련 주제 연구현황

### ③ 도시형태 및 조직 관련 연구현황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사한 연구들 중 도시형태와 조직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까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0년대 이후 점차 도시 내부의 세부적 공간구조나 도시조직(urban tissu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형태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일제시대 이후 진행된 도시의 현황 파악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조사연구를 통해 한국의 도시공간의 현황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진행되었고, 대표적인 연구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된 『하회마을 조사보고서』(경상북도, 1979)와 『서울시 도시형태 형성에 관한 연구』(주중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81)류의 분석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부터는 세부적인 도시의 필지형태나 획지규모 등 도시조직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필지체계를 통해서 본 도시공간구조의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이경찬, 서울대, 1992), 「한국 지방도시와 관련한 1950-1960년대의 형태사적 의미-전주시와 군산을 중심으로」(이경찬; 한국건축역사학회, 2003), 「조선후기 서울도심부 필지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1912년 완성된 경성부 지적원도를 중심으로」(양승우, 주종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5) 등의 연구가 있다.



〈그림 9〉 도시형태 및 조직 관련 주제 연구현황

#### ④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관련 연구현황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사한 연구들 중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련한 연구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타 분야 연구대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요한 연구로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설정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자족적인 신도시의 적정 규모를 연구한 「자족적 신도시의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안건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지속 가능한 도시토지이용지표 설정 및 평가」(주용준·황희연, 한국도시지리학회, 1999), 신도시 도시설계지침을 연구한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의 도시설계지침에 관한 연구」(김도년, 서울대, 1994)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 들어 공동체적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생활권 등의 계획방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거단지와 생활권계획을 연구한 「우리나라 주거지계획에서 생활권개념의 변화와 그 의미」(이규인 외; 대한건축학회, 1997), 신도시의 근린생활권 계획을 연구한 「신도시의 근린생활권 계획에 관한 연구」(김남각·남형우·함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0), 「

서울시 역세권 도시조직 분포유형별 역중심 생활권 형성을 위한 연구』(임희지, 서울대, 2002) 등이 있다.

#### ⑤ 도시구성요소 관련 연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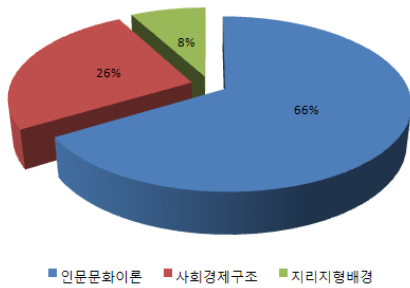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사한 연구들 중 도시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는 건축, 도시계획시설, 공공공간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연구로서 일정한 경향성 없이 각기 주요하게 고려한 시기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에는 주로 길과 공원 등의 도시공공공간에 대한 연구와 주거 및 도심시설과의 연계성,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도시 오픈스페이스 체계의 패턴에 관한 연구』(박찬규, 대한건축학회, 1988), 『길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시집합주택의 배치유형 연구』(이재훈, 대한건축학회, 1998), 『도로 공간의 복합적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 도시내 도로를 중심으로』(이춘용, 국토연구원, 2007), 『미래지향적인 커뮤니티 시설유형 설정에 관한 연구』(이원훈·이창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등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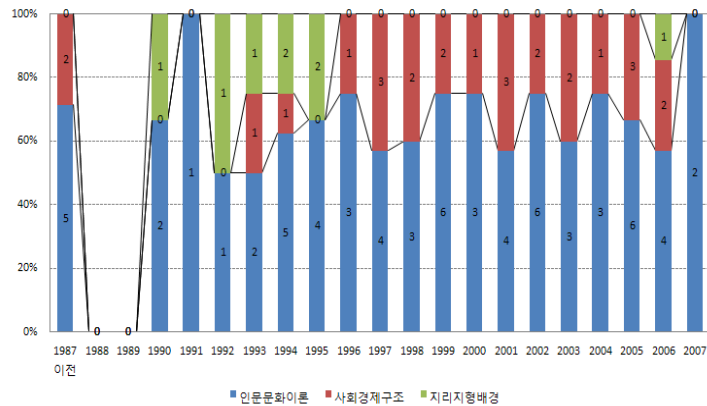
#### (2) '구성원리' 관련주제 연구현황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사한 연구들 중 '구성원리'에 대한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풍수지리나 주례고공기 등 원형적인 구성원리, 씨족공동체의 질서 등 인문문화적 근거 등을 가장 많이 연구하였으며(66.3%) 그 다음으로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5.7%)

한편 지리지형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중요성에 비해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는데(8.0%), 이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긴 하나 구성원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기보다는 공간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형태에 대한 연구 등 다른 연구에 포함하여 진행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구성원리 관련 주제 연구비중



〈그림 11〉 도시구성원리 관련 주제 연구현황

### ① 인문문화이론 관련 연구현황

기존에 진행된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들 중 인문문화이론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연구의 수는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다루는 주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1970, 1980년대에는 풍수지리설, 도시상징성, 중국의 계획원리 등에 바탕을 둔 연구를 많이 진행했으나 점차 인구구조, 도시의 지속 가능성, 환경친화형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풍수지리설 등에 기초한 대표적인 연구는 손정목 교수의 『풍수지리설이 도읍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1973,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신상화, 예명혜 교수의 『경주의 도시공간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 - 풍수에 의한 입지해석과 도시개조를 중심으로』(2000, 국토계획), 김상휘 박사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풍수적용에 관한 연구 - 계룡 신도시를 중심으로』(2003, 전주대 박사논문) 등이 있다.

지속 가능성, 환경친화 등 최근의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통해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하려고 시도한 연구로는 양병이 교수의 『지속가능성 지표에 의한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환경친화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국토계획, 1997), 이재준 교수의 『한국형 생태도시 계획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국토계획, 2005) 등이 있다.

이와 별도로 외국의 설계이론을 한국적 도시공간에 적용시키고자 시도한 연구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홍순 교수의 『뉴어바니즘의 국내 적용 가능성 분석 : 수도권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국토연구원, 2007) 등이 있다.

## ② 사회경제구조 관련 연구현황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사한 연구들 중 사회경제구조와 관련한 주제 연구는 타 주제에 비해 절대적인 연구 실적이 많지 않은 편이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되었다. 사회경제구조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그 내용을 도시공간과 연계해서 분석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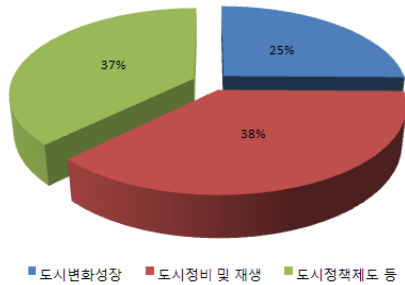
대표적인 연구로는 사회적 구조와 도시공간구조의 관계를 연구한 이정근 교수의 『*Space and Society A Study in Socio-Spatial Dialectic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Korean Villages*』(1984, Edinburgh 박사논문)나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공간계획의 변화를 연구한 권원용 교수의 『저성장시대의 서울시 도시개발 방향과 과제』(국토계획, 1998), 이영아·진영환 박사의 『노인을 위한 도시환경조성에 관한 연구』(국토연구, 2001) 등이 있다.

## (3) [도시변화 및 제도] 관련주제 연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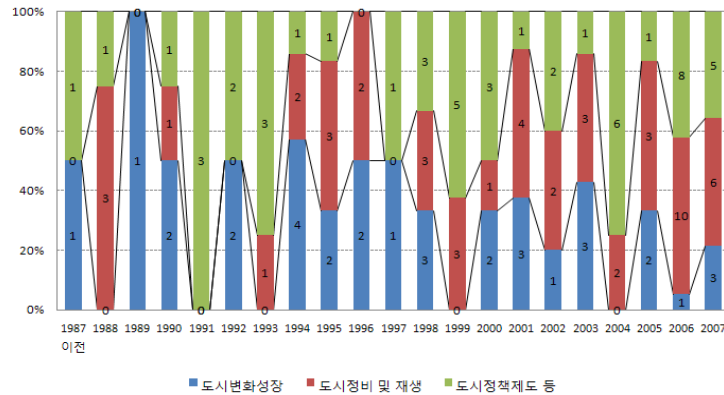
‘도시변화 및 제도’에 관한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 살고 싶은 도시 등의 주제를 다룬 연구(37.4%)와 도시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37.4%)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인구감소 및 도심부 기능변화에 따라 도시재생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향식 계획패러다임으로의 변화에 따라 생활자 중심의 계획,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향 등의 내용을 한국적 도시상황에 맞추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대규모 개발방식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같은 점진적인 변화,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만들기 등은 기존의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진행되는 성격을 띠어 한국적 도시상황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국책연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들 연구의 경우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보다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도시공간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다.

한편 기존 도시의 변화과정에 대해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지방도시의 연구원과 대학연구진 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25.2%)



〈그림 12〉 도시변화 및 제도 관련 주제 연구비중



〈그림 13〉 도시변화 및 제도 관련 주제 연구현황(종합)

### ① 도시변화 및 성장 관련 주제 연구현황

한국의 도시공간을 조사한 연구들 중 도시변화 및 성장과 관련한 주제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지방 연구진들이 지방도시들에 대한 변화, 성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1970,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 전체 도시의 일반해적인 이론을 추구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특정 도시들에 대한 특수해적인 연구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시의 일반적인 변화과정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손정목 교수가 진행한 일련의 연구들이 있는데,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 연구』(1982, 일지사), 『한국현대도시의 발자취』(1990, 일지사) 등이 있으며, 특정도시에 집중한 연구로는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의 『18-19세기 서울의 근대적 도시발달양상』(1995, 서울학연구소), 박해양 박사의 『부산의 도시성장과정에 관한 연구』(2001, 경남대 박사논문)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도시의 성장에 따른 기존도시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당의 개발로 이원적 도시구조를 가지는 과정을 살펴 본 「신도시 개발로 인한 성남시의 차별적 생성과 변화」(이윤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00), 「광주시 신시가지의 성장과 공간구조의 변화」(이현옥, 한국도시지리학회, 2007)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신도시가 많이 건설되는 한국적 상황에서 도시의 특성과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② 도시정비 및 재생 관련 주제 연구현황

도시정비 및 재생과 관련한 주제 연구는 전 기간에 걸쳐 증가 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1990년대 초반에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에 대한 연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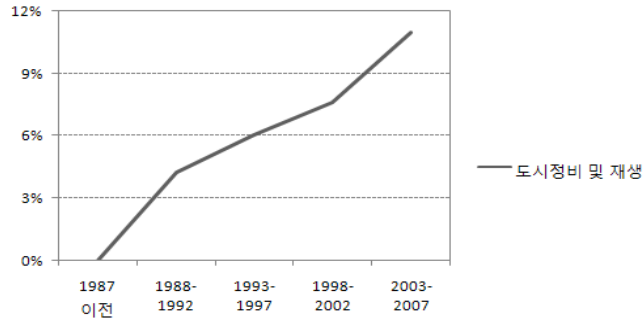
주를 이루었으며, 2000년대 이후 인구저성장 등의 사회적 여건변화와 대도시의 도심부 도시쇠퇴가 진행되고, 한편으로는 일본 등의 연구들이 소개되면서 도시재생이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도시정비나 재개발과 관련한 연구들은 많으나 한국적인 도시공간을 고려하여 진행한 연구로는 한국에서 도심부변 내부기성시가지의 쇠퇴지역화 양상과 시가지 문제를 분석한 「서울시 내부기성시가지의 시가지특성과 도시계획적 과제」(이상대·최상철, 국토계획, 1996), 인천 구도심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역사지리적 의미의 재해석을 통한 문화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장소의 역사지리적 의미의 재구성 - 인천 구도심지를 사례로」(이영민, 한국도시지리학회, 2001) 등의 연구가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종합적인 주거환경 정비를 목표로 진행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기성시가지 정비방안 연구-정비과제 설정 및 유형화를 중심으로」(민범식 외, 국토연구원, 2001),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신정철 외, 국토연구원, 2004) 등의 연구가 한국 도시공간에서 도시쇠퇴와 이에 따른 재생·정비·활성화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 지방연구원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도시의 특화된 활성화 전략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도시재생이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관련한 대표적 연구로는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 연구한 「한일 지역도시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 연구-전주시와 가나자와시를 중심으로」(윤정란, 한국도시설계학회, 2005), 도시재생과 도심활성화 연구를 진행한 『도시재생 차원의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박영달, 인하대 박사논문, 2006), 한국적 상황에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적용방안을 연구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연구』(박재길 외, 국토연구원, 2005)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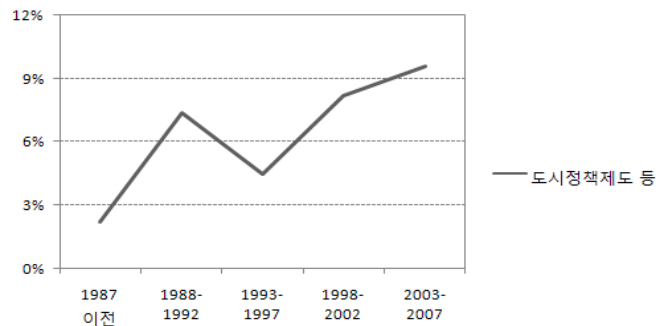
### ③ 도시정책 및 기타 주제 연구현황



〈그림 14〉 도시정비 및 재생 관련 주제 연구현황

도시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의 국책연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 도시공간의 특성에 특화된 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도시적 상황을 진단하고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국의 도시공간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는 제한적이었다.

한편, 기타 주제 연구는 한국의 도시역사에 대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유비쿼터스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대한 모색 등이 있었는데, 이는 외국 혹은 현대의 기술을 한국 도시공간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전망하는 본 연구와 유사한 성격의 연구사연구들도 일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 중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의원 교수의 『한국국토개발사연구』(1982, 대학도서), 허영환 교수의 『서울고지도고』(1988,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남영우·이인용의 『한국 도시지리학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2002, 한국도시지리학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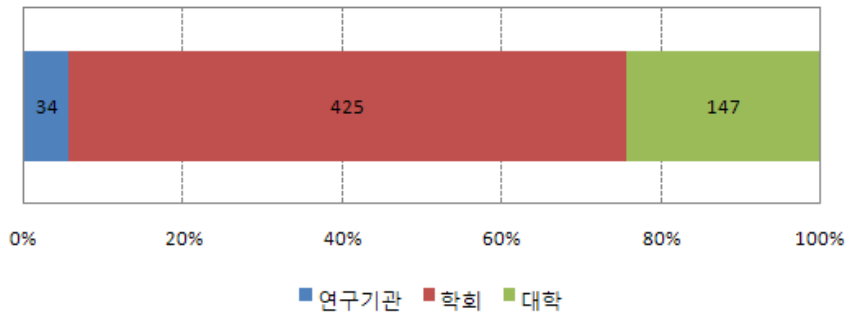
〈그림 15〉 도시정책 및 기타 주제 연구현황



## 분야별 연구현황 2

### 1) 분야별 연구현황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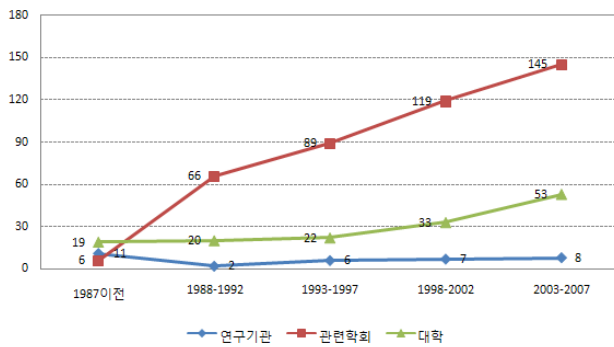
분야별 연구현황은 크게 연구기관의 연구현황, 관련학회의 연구현황, 대학의 연구현황으로 나누었다. 대학의 연구현황에는 석박사 학위논문과 대학연구소 등의 학술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관련학회의 연구가 70.1%로 가장 많고 대학의 연구가 24.3%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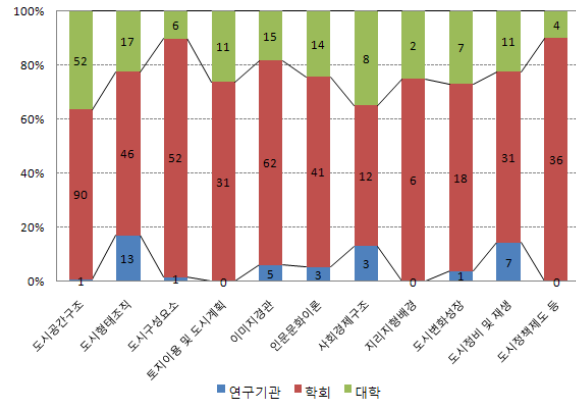
〈그림 16〉 분야별 연구현황

시기별로 보면 학회 연구의 경우 전 시기를 거쳐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말 이후 도시설계학회와 도시지리학회의 창립, 각 학회 학회지의 발간 횟수 증가 등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연구 실적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제별로 특징을 보면 대학의 연구가 비교적 많은 부분은 도시공간구조와 사회경제구조이며, 연구기관은 도시형태조직과 도시정비 및 재생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된 점이 확인되었다.



〈그림 17〉 분야별 연구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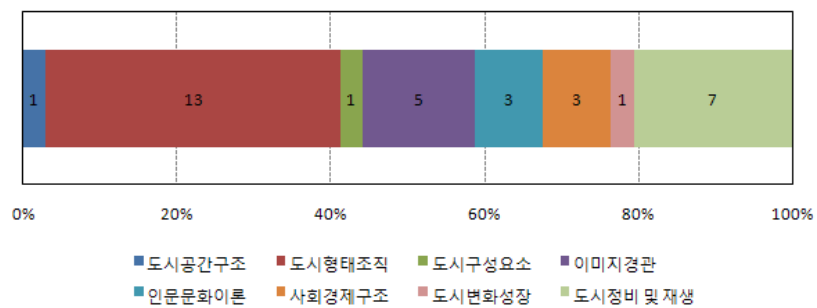


〈그림 18〉 분야별 연구주제 현황

## 2) 분야별 연구현황

### (1) 연구기관의 연구현황

일제시대부터 해방 후 1980년대까지는 주로 조선총독부, 지자체, 문화재관리국 등이 추진한 도시형태조직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낙안성 민속마을, 양동마을, 하회마을, 민속촌 지정보존대상 지역 등 전통적 주거지가 주된 대상이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대상지를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서울을 대상으로 한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변화·성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토연구원에 의해 지속 가능성, 친환경성, 정보화, 뉴어버니즘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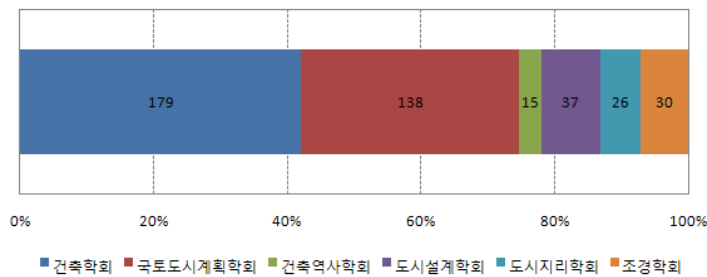


〈그림 19〉 연구기관의 연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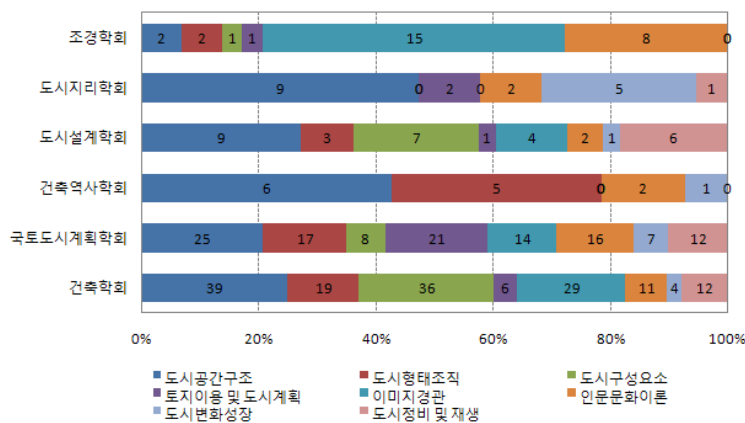
## (2) 관련학회의 연구현황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편수를 기준으로 학회별로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대한건축학회가 42.1%로 가장 많으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32.5%, 도시설계학회가 8.7%로 되어 있다.<sup>29)</sup>

주제별로 연구기관별 특징을 보면 우선 건축학회는 도시공간구조-도시구성요소-이미지경관의 순서이며, 국토도시계획학회와 도시설계학회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국토도시계획학회는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의 비중이 크고 도시설계학회는 도시정비·쇠퇴의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축역사학회와 도시지리학회는 아직 논문수가 많지 않으나, 두 학회 모두 도시공간구조가 주된 주제였다. 이에 비해서 조경학회는 이미지경관과 인문문화이론의 비중이 커 다른 학회와 차별성이 보인다.



〈그림 20〉 학회별 연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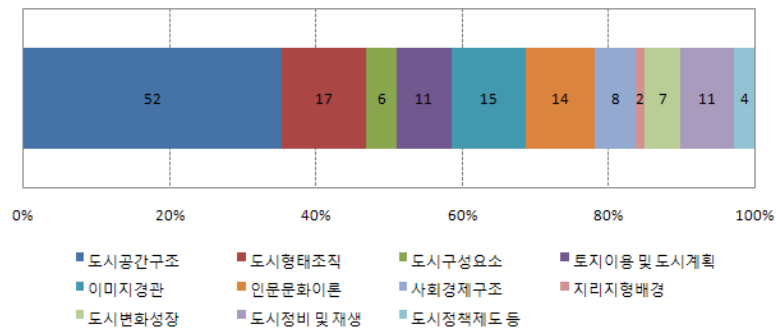


〈그림 21〉 학회별 연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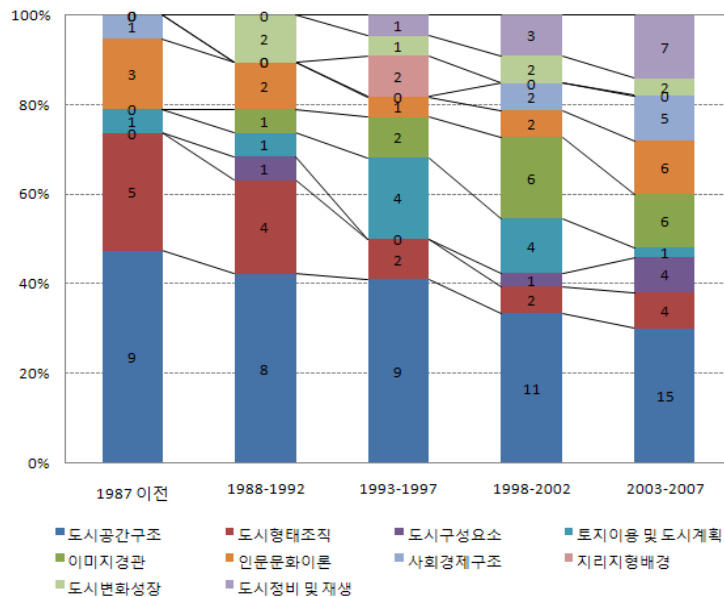
29) 이는 학회지 발행 횟수나 연구편수에 따라 양적인 차이를 보이므로 질적인 연구성과와는 차이가 있다.

### (3) 대학의 연구현황

주제별로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도시공간구조가 3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시형태조직, 이미지경관, 인문문화이론의 순서로 되어 있다. 시기별로 보면 1987년 이전에는 절반 가까이에 달했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는 점점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연구가 매우 다양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공간구조를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주제는 도시형태조직, 토지이용·도시계획 등이며, 증가하고 있는 주제는 도시구성요소, 이미지·경관, 도시정비·쇠퇴 등이었다.



〈그림 22〉 대학의 연구현황



〈그림 23〉 대학 연구의 주제 변화 추이

# IV.

## 분야별 연구동향 및 전망

1. 건축학 분야(마을연구 부분)

2. 도시학 분야

( a u r

# 분야별 연구동향 및 전망

## 1

### 건축학 분야(마을연구 부분)<sup>30)</sup>

#### 1) 마을연구동향

##### (1) 마을연구 분야의 개요

마을은 물리적으로는 주거건축물들의 집합이면서 동시에 자연 그리고 많은 경우 혈연 집단이다. 또 전근대사회의 경우 농업이나 어업의 생산 공동체이기도 한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존재양식이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 민속학, 인류학,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그리고 건축학 등 실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었다. 용어 사용도, 접근하는 시각 및 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취락(聚落), 부락(部落), 촌락(村落), 농어촌(農漁村), 마을, 동네 등 차이를 보인다.

건축학 분야로 한정하여 생각해 보면 마을은 양식사 및 기술사적 가치가 높은 권위건축이라기보다는 일반 주거건축이 중심을 이루는 일상건축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양식사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 분야에서는 마을연구의 역사가 오래지 않으며 그나마도 초기에는 민가학의 한 방법론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점차 마을 연구의 관점은 개별 건축물에 대한 것과 함께 집합체의 구성원리로 이동하여 갔으며, 이 과정에서 마을구성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사

30) 이 글은 전봉희 교수(서울대학교)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진행한 것이며 전봉희 교수가 앞서 발표한 「마을」(한국건축역사 학회 편, 『한국건축사연구1-분야와 시대』, pp.255~281, 도서출판 발언, 2003)의 내용을 저본으로 삼아, 이후의 연구성과 등을 보완하여 작성한 원고를 정리한 것임

회적 질서를 다루는 인접 학문 분과와 깊은 관련을 가졌다. 때문에 이 장에서는 마을연구사를 다루면서 건축사 분야를 중심으로 하지만, 인접학문분과의 주요성과를 함께 언급하기로 한다.

우선 주로 연구자의 학문적 출신을 기준으로 건축학적 연구의 범위를 구분해 보면, 이들의 연구가 대개 마을을 구성하는 각 주거에 대한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거나 마을 자체의 공간적 이용과 공간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로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학이나 민속학(인류학)의 연구성과는 거의 그대로 건축학적 연구의 선행적 모델이 되기도 하였고, 역사학이나 사회학의 연구성과로 제시되는 씨족조직의 구조 역시 마을의 공간구조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어서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선결적이다. 일반적으로 지리학이나 역사학의 연구는 건축학의 그것에 비해 보다 거시적인 접근을 택하고, 민속학(인류학)이나 사회학의 연구는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건축학에서의 접근과 함께 마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각 분야의 마을에 대한 접근의 시각과 태도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지리학에서는 주로 마을을 인간의 일 정주형태로 보고, 그것이 지리적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가 주를 이룬다. 지리학에서는 인간의 정주형태를 마을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산촌(山村), 해촌(海村), 야촌(野村)으로 구분하고, 생산양식에 따라 농촌과 어촌, 임업촌 등으로 구분하며, 평면형태에 따라서 괴촌(塊村), 열촌(列村), 환촌(環村), 기반목상촌(基盤目狀村)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 주거밀도에 따라 산촌(散村)과 집촌(集村)으로 구분하거나 성장과정에 따라 자연발달촌과 계획설정촌으로 나누기도 한다<sup>31)</sup>. 이와 같은 구분은 마을에 대한 지리학적 관심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단서로서, 지리학의 연구는 인간의 정주지가 지리적 환경 속에 어떻게 성장 발달하였으며,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주된 관심이 있다. 또한 용어 사용도 취락은 Settlement의 번역어로 정의하여, 지리학에서의 취락은 촌락(Rural Settlement)과 도시(Urban Settlement)의 통합적 의미를 갖는다<sup>32)</sup>.

역사학에서는 지방(향촌)의 최소 지배 혹은 자치의 단위로 마을(촌, 촌락)을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시기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관의 임명 여부, 촌민의 신분적 구성, 토지의 소유관계와 조세의 수취제도 등은 중앙에 의한 향촌지배체제

31) 오흥석, 『취락지리학』, 교학연구사, 1989, pp.17-20

32) 오흥석, 위의 책, 1989, p.15

와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치사와 제도사, 외교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통 역사학이 중앙(및 중앙에서 산출한 자료)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 반해 향촌에 대한 연구는 사회사적 접근이나 경제사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때문에 사회학이나 경제학, 법제학, 문헌학 등 인접 학문분과와의 교류가 활발한 것도 특징이다. 신라시대의 촌락문서에 대한 연구, 고려시대의 장원의 형성과 향, 소, 부곡 등 특수마을의 운영체계 그리고 조선시대의 재지사족에 의한 향촌사회의 지배 및 조선후기 향촌지배질서의 와해과정 등을 주요한 연구 주제로 잡고 있다<sup>33)</sup>.

민속학에서는 마을을 최소한의 민속공동체로 삼고 있다. 민속학은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에 대한 기록에 주된 관심이 있으며, 그것은 의·식·주와 같은 물질문화에서부터 통과례나 신앙생활과 같은 비물질문화까지를 포함하는 생활문화를 대상으로 한다. 민속적 행위의 공간적 범위로는 작게는 개인과 가족에서부터 크게는 전 민족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나, 마을이 주된 민속공동체로 가정되는 까닭은 마을이 공동생활의 범위와 일치하기 때문이다<sup>34)</sup>. 즉, 마을은 공동의 생산활동과 확대된 주생활을 영위하는 단위로서<sup>35)</sup>, 개인과 가족의 민속행위는 온전한 세계로서 마을을 단위로 확대한다.

인류학은 일종의 연구방법론 내지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여기서 마을은 농촌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이자 동시에 현장조사의 공간적 범위로 작용한다. 이제까지 인류학자의 농촌사회 조사는 친족 및 사회조직, 사회언어, 신체발달상황, 역사체험, 농민경제, 신앙과 의례, 지방정치, 놀이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sup>36)</sup>. 마을에 대한 인류학의 연구성과는 참여관찰을 통한 생생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마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구체적으로 가족과 마을 내부의 계층적, 신분적, 성별 및 성속(聖俗) 간의 관계 및 그에 따른 공간적 구분 이용<sup>37)</sup>, 생산조직의 운영과 갈등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통적 역사학의 연구방법이 주로 문헌사료에 의존하는 데 반하여, 민속학이나 사회학, 인류학은 모두 현지조사를 위주로 하며, 특히 인류학의 경우 참여관찰의 방법을 이용하여 물적 증거가 없는 대상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특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향촌사회 연구에서 보듯 인류학적 연구방법은 이제 인류학의 전유물은 아닌 듯하며, 역사학을 포함한 모든 분야

33)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입문②」 중세편, 풀빛, 1995. pp.170-207, pp.506-521

34) 주강현, 「북한민속학사」, 이론과 실천, 1991. pp.147-173

35) 김광언, 「주생활의 연구」,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1994

36) 한상복, 「호남지역 농어촌 연구의 평가와 전망」, 「한국문화인류학 제25집」, 1994. pp.1-28

37) 김진명, 「공간, 육체 그리고 성」, 「한국문화인류학 제29집2호」, 1996. pp. 123-165



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한편, 건축학에서는 일차적으로 주거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확대된 기본 단위로서 마을을 주목한다. 인간의 주생활은 집을 최소단위로 하지만, 생산활동 및 사회적 활동은 물론, 식수와 빨래 등과 같은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집 울타리 밖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주거생활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집의 울타리를 벗어나 공간적인 범주를 마을로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마을은 도시 혹은, 집합적 건축의 최소단위를 이루고 있다. 마을은 생활과 생산활동과 정신적 활동을 위한 모든 요소를 구비한 완전한 주생활의 기본 단위로서 공동체 건축의 좋은 모범으로 가치가 높다. 때문에 마을은 상업적 도시의 선례를 충분히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 전근대사회의 도시적 집적을 살펴볼 수 있는 대상으로서, 개별의 주택들이 모여 있는 물리적 방식은 건축학 분야의 주된 관심이 되며, 확장하여 도시사의 연구대상이 되기도 한다.

## (2) 마을에 대한 연구의 전개

### ① 일제시기의 연구

일제시기에 이루어진 마을에 대한 주요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초의 연구로는 오다 미치토시(小田内通敏)의 「조선부락조사예찰보고(朝鮮部落調査豫察報告)」(조선총독부, 1923)를 들 수 있다. 그는 조선총독부의 령에 의해 1920년 8월 약 한 달간의 예비조사 그리고 19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에 걸친 본 조사를 통해 모두 16개의 마을을 현지 조사하였다. 1921년 3월부터 한 달간은 마을조사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경성에 머물렀으며 이때 경제적·종교적·역사적, 질서유지 차원의 구분에 따라 조사대상마을을 정하고 이외에 일본인 및 중국인 거주마을을 포함하였다. 또 1922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마을의 경제적 수급기관인 시장(場市)을 조사하였다<sup>38)</sup>. 대상 지역은 함경북도를 제외한 각도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경기도 여릉리는 4일간, 나머지는 각 1-2일간씩 조사하였기 때문에 부족한 감이 있어 예찰보고라 이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그의 신분은 중추원 촉탁으로 중추원의 조사과는 후일 조선사편수회로 그 기능이 이관된다. 그는 또한 이듬해인 1924년 화전민과 중국인 마을을 대상으로 한 『조선부락조사보고 제1책 - 화전민, 내주지나인(來住支那人)』을 출간한다. 예찰보고라 한 점이나 제1책이라고 한 점 등은 모두 후속의 본격적인 저술을 염두에 둔 것인 듯한데 없는 점이 이상하고, 각 책의 저술 역시 마을의 지리, 경제, 인구, 사회, 풍습 그리고 주요한 건축물 등을 다루고 있으나 내용이 소략하여 지표조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하회마을이

38) 오다미치토시(小田内通敏), 「조선부락조사예찰보고」 조선총독부, 1923. pp.1-3, p.31

이미 당시 경북도청의 추천에 따라 대상마을로 포함한 점이 인상적이고, 부록 도판으로 주변 지형도(1/50,000 축척), 마을배치도(1/1,800-1/3,200 축척), 주요 주거건축물 평면도 및 입면도(약 1/200-1/300 축척), 마을 및 주거건축의 사진 등이 실려 있어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또 「조선부락조사보고 제1책」은 화전민과 내주 중국인에 대한 것으로, 각각의 생활형태와 전국적인 분포상황 그리고 화전농작의 방식과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기록을 담고 있다.

오다 미치토시의 조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고현학(考現學)으로 널리 알려진 콘 와지로(今和次郎)의 『조선부락조사특별보고 제1책(朝鮮部落調査特別報告 第1冊)』(조선총독부, 1924)을 발간한다. 그는 총독부의 요청으로 19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1개월간 경성, 평양 부근, 개성, 함흥 및 그 주변, 전주, 김천, 대구 및 경주 등의 지역을 다니면서 주로 민가에 대한 조사에 주력하였다. 이때 그는 조선총독부의 이와이(岩井) 건축과장, 촉탁인 오다 미치토시 그리고 오다의 앞의 작업을 협력하였던 요시다 마사히토(吉田正廣) 등의 도움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으며<sup>39)</sup>, 민가형의 구분에 관해서는 「조선의 건축(朝鮮と建築)」 1924년 2월호에 실린 이와츠키 요시유키(岩槻善之)의 논문<sup>40)</sup>을 인용하고 있다<sup>41)</sup>. 그의 조사결과는 이 보고 이외에도 그의 저작을 정리한 「콘와지로 저작집(今和次郎著作集)」<sup>42)</sup>에 ‘조선반도의 민가조사(朝鮮半島の民家調査)’라 하여 자신의 스케치노트를 정리한 것이 실려 있는데, 두 곳의 내용을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있다. 우선 글의 순서 등 구성상에 작은 차이가 있고, 「보고(報告)」에 포함되어 있는 몇몇 사진과 일본인의 영향을 받은 주택 및 일본인 이주농가의 주택에 대한 내용이 전집(全集)에는 빠져 있다. 이 책에는 주거건축의 재료, 구법, 가구, 디테일 등을 알 수 있는 다양하고 정밀한 스케치가 많이 담겨 있고, 특히 개성 시가지의 필지분할도 및 의사, 식당, 의생(醫生-한 의사) 등 직업인의 주거평면은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귀중한 자료이며, 단위 주거건축을 넘어 개울가나 골목길과 같은 집합건축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 역시 제1책으로 편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계속 연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거나 이에 그친다.

젠조 에이스케(善生永助)의 『조선의 취락(후편)(朝鮮の聚落(後篇))』(조선총독부, 1935)는 마을에 대한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저작임에 틀림이 없다.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그가 자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족부락(同族部落)-씨족마을’의 용어를 만들고 그 가치를 연구자들에게 인식시킨 것<sup>43)</sup>으로,

39) 콘와지로(今和次郎), 『조선부락조사특별보고』, 조선총독부, 1924. 序言

40) 이와츠키 요시유키(岩槻善之), 「朝鮮民家の家構に就いて」, 《朝鮮と建築》1924년 2월

41) 이때 이 논문이 박길룡의 조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42) 콘와지로(今和次郎), 『民家論：今和次郎著作集2』, ドメス出版, 1971

43) 젠조에이스케(善生永助), 『조선의 취락(후편)』, 조선총독부, 1935. p.1

방대하고 선구적인 조사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그는 조선총독부의 촉탁으로 1929년 이후 상사의 명을 좇아 마을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시작하여, 1932년 이후 전·중·후편의 3부작을 잇달아 내놓았으며, 이 가운데 씨족마을을 다룬 후편에 연구력을 집중하였다<sup>44)</sup>. 그의 이러한 작업은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한 전국적이고 다방면에 걸친 ‘생활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1,685개에 이르는 저명 씨족마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sup>45)</sup> 그것들을 통계하여 성씨의 기원과 씨족 및 씨족마을의 발생, 분포상황, 형태론적 특징, 구성과 기능, 유림세력과의 관계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우선 총독부관방문서과장의 명의로 각 도지사에게 공문을 보내고, 그후 다시 각 도(道), 부군도(府郡島) 및 읍면(邑面)의 담당자에게 조사표를 발송하고 그것을 회수·정리한 것<sup>46)</sup>으로 행정조직을 통한 것이었던 만큼 전국적인 통계를 파악하기에는 유리한 것이었지만, 조사표 작성자의 인식의 차이에 따른 분류상 오류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술한 연구들과 같은 현장조사에 의한 상세한 자료가 부족하며, 부록으로 마을의 전경과 주요 가옥의 모습을 담은 사진 일부와 본문 중 삽도로는 18채의 주택평면약도와 입면 스케치 등이 있을 뿐이다<sup>47)</sup>.

일제시기에 조사된 마을에 관련된 주요 저작으로 이외에 스즈키 에이타로(鈴木榮太郎)의 『조선농촌사회답사기(朝鮮農村社會踏査記)』(오사카야 토라쇼텐(大阪屋號書店), 1944)를 들 수 있다. 그는 당시 경성제국대학 조교수로서, 이 책은 1943년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사회조사법’ 강의의 연습여행으로 학생 1-6명을 동반하여 3월 8일부터 22일까지 보름간 실시된 답사를 기록한 것이다<sup>48)</sup>. 조사지역은 원주, 제천, 영주, 순흥 등에 소재한 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목적은 조선 기본사회구조의 하부조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양반 유림의 활동과 조직, 마을민의 공동행사 등을 기록하고 있다. 덧붙여 여정의 상세한 기록이 있어 일제 말 당시의 농촌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 4명의 주요 연구자는 각기 지리학, 건축학 등 물질문화에 주로 관심을 가진 자와 사회학을 전공한 연구자로 구분된다. 오다 미치토시와 콘 와지로의 저작은 ‘마을’이라고 제목을 달았으나 주된 관심은 주택에 머물러 있고, 마을에

44) 그는 조도전(早稻田)대학 정치경제학과 출신으로 1923년 조선총독부 촉탁이 되기 이전에는 시사잡지의 주간을 맡는 등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 자세한 그의 약력은 우동선 「韓國の近代における建築觀の變遷に關する研究」(東京大 博士論文, 1998) pp.195-196 참조

45) 그는 국세조사의 기록 등을 이용하여 1930년 당시 조선에 씨족마을이 모두 약 15,000개소에 이른다고 추정하였다. 젠조 에이스케, 위의 책, 1935. p.217

46) 젠조 에이스케(善生永助), 위의 책, 1935. p. 723

47) 이외에 그의 관련 저작으로 젠조 에이스케(善生永助), 『조선의 성씨와 동족부락(朝鮮の姓氏と同族部落)』(조선총독부, 1943) 이 있다.

48) 스즈키 에이타로(鈴木榮太郎), 『조선농촌사회답사기』, 大阪屋號書店, 1944. 序 및 p.1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선생영조의 연구가 돋보인다. 이외에 1930년대에는 민속학 분야의 저술들을 정리하여 「조선의 풍수」로 널리 알려진 무라야마 치준(村山智順)의 『조선총독부조사자료 44 - 조선의 향토 신사 제1부 부락제 -』(조선총독부, 1937)를 출간하기도 하고, 식민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정리한 「간도집단부락(間島集團部落)」(조선총독부, 1936)이나 「조선간이보험모범부락(朝鮮簡易保險模範部落)」(조선총독부 체신국, 1937) 등의 관련 저작과 농촌의 풍속을 가벼운 필치로 정리한 인정식의 기록<sup>49)</sup>이 있다.<sup>50)</sup>

## ② 해방 이후의 연구

해방 이후의 마을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 씨족과 가족의 조직과 기능을 다룬 김두헌의 문헌적 연구<sup>51)</sup>가 일제시기에 시작된 연구의 결과물로서 해방공간에 등장하는 것이 처음이다. 이후 해방 이후 세대의 연구로는 경기도 광주군과 용인군에 소재하는 6개 마을에 대한 1958년도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농촌사회의 기본구조, 특히 리더십의 문제를 다룬 이만갑의 연구<sup>52)</sup>와 1964년 안동 하회마을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저술한 김택규의 연구<sup>53)</sup>가 선구적이다. 특히 김택규의 연구는 대상 지역을 한정하고 가족 및 씨족의 관계, 생활 풍습과 경제 및 신분 구조 등은 물론 경관 및 주택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연구로서 1970년대 이후의 민속종합조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 스즈키에이타로 등 일본농촌사회학자의 연구에 영향을 받은 양희수의 연구<sup>54)</sup>는 이후 사회사 연구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sup>55)</sup> 이와 같이 사회학 및 민속학적 분야가 주도한 마을에 대한 연구경향은 1970년대까지 이어져 문병집, 최재석, 고승제 등 사회학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sup>56)</sup>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변화는 1968년 이후 1981년(북한지역을 제외하면 1978년)까지 각 시도별로 문화재관리국 주도하에 진행된 「한국민속종합보고서」의 작업 결실이다. 주생활이 의식주의 기본민속의 한 절로 편제되어 주거와 마을

49) 印貞植, 「朝鮮農村雜記」, 東都書籍, 1943

50) 또, 「朝鮮と建築」제18집2호(1939)에는 ‘村の形態に就て’ (佐佐木善治郎)라는 글이 있으나, 이는 촌락의 형태에 관한 초본적인 일반론의 수준으로 조선의 마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51)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출판부, 1969(초판, 1949)

52) 이만갑, 「韓國農村的社會構造：京畿道六個村落の社會學的研究」, 韓國研究圖書館, 1960

53) 김택규, 「동족부락의 생활구조연구 - 반촌문화조사보고 -」, 청구대학교 출판부, 1964. (1979년 「씨족부락의 구조연구」(일조각)라는 제호로 새판을 펴낸다)

54) 양희수, 「한국농촌의 촌락구조」,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55) 이해준, 김인걸 외,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24

56) 이 시기 마을에 대한 주요한 연구 성과로는 문병집의 「한국의 촌락 - 농업의 생활방식과 발전」(진명출판사, 1973), 브란트 빈센트 S.R의 「한국의 촌락」(김관봉 역, 시사문제연구소, 1975), 최재석의 「한국농촌사회연구」(일지사, 1975), 고승제의 「한국촌락사회사연구」(일지사, 1977) 등을 들 수 있다.

에 대한 건축학적인 접근이 민속학의 다른 분야와 함께 작업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해당 시도에 산재하는 개별적인 주거에 대한 조사의 형식을 떠다가 김홍식 교수가 참여한 이후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전반에 대한 조사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러한 작업상의 혼란은 이후 「한국민속종합보고서(주생활편)」(1985년)의 작업에 이르러서는 마을과 개별 주거 두 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완 정리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개별적인 주거건축에 대한 기술사적·양식사적 접근 이외에 마을을 단위로 하는 공간이용, 주거유형 등을 다루는 접근 방식이 소개되었다.

이와 같은 마을을 단위로 하며 건축을 포함하는 종합적 조사의 시도는 1970년대 말 하회마을, 양동마을, 낙안읍성마을, 제주의 성읍마을 등에 대한 민속마을 지정을 위한 건축물 실태조사를 위한 보고서<sup>57)</sup>에서 본격화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륙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수몰지구에 대한 건축물 조사보고<sup>58)</sup>가 이어진다.

1980년대 이후는 건축학은 물론 제반 학문 분과에서 마을, 특히 씨족마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시기이다. 그 초반의 주요한 성과로 재지사족의 세거지 이동의 경로와 유형을 다룬 양보경<sup>59)</sup>과 김덕현의 논문<sup>60)</sup>이 특기할 만하다. 김덕현은 안동 일대의 유명한 씨족집단을 대상으로 고려 말 이후 조선조에 걸쳐 세거지 이동의 경로와 그 역사적 과정을 조사하여 사족의 세거지가 여말선초의 변동기에 일차적인 이동이 있었고, 이후 임란을 거치면서 17세기 이후에는 주변의 새로운 주거지를 쫓아 분파 확산된다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김택규의 하회마을 조사에 대비하여 양동마을에 대하여는 이수진, 여중철 등의 영남대 연구팀에 의한 연구<sup>61)</sup>가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양동마을의 洞案을 통하여 인구변화 및 경제상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주변에 산재한 여강 이씨 문중 및 월성 손씨 문중의 세거지와와의 관계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서, 중심 씨족마을에 대

57) 삼성건축, 경상북도, 「양동마을 조사보고서」, 1979, 삼성건축, 경상북도, 「하회마을 조사보고서」, 1979., 금성종합건축, 승주군, 「樂安城 民俗保存마을 調查研究報告書」, 1979, 및 제주도, 「민속촌지정보존대상지역조사보고서」, 1978

58)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충북대박물관, 1983 등과,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이용한 논문으로 임영배, 천득엽, 「주암댐 수몰지역마을의 정주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1)과 (2)」,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8.4 v.4, n.2 와 n.3, 박현장, 이무진, 이종우, 「안동문화원의 마을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임하댐 수몰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대한건축학회, 1990.12 v.6, n.6, 하종한, 김일진, 「성주댐 수몰지역 마을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5.8 v.11, n.8, 82 등이 있다.

59) 양보경, 「반월면 사리 동족부락에 대한 연구 - 기원과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 「지리학연구」, 1980

60) 김덕현, 「氏族村落의 形成過程과 立地 및 儒敎文化景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논문, 1983

61)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양좌동연구」, 영남대출판부, 1991

한 연구의 범위를 마을이라고 하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 씨족적 영향력이 미치는 주변지역으로 확대하였다.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 씨족마을과 대를 이루는 각성마을에 대하여는 김택규<sup>62)</sup>와 최협<sup>63)</sup>에 의한 비교연구가 있다. 하지만 김택규는 각성마을에 비해 동성마을이 근대화의 격변기에 신분의 하강이동현상이 급격하고 이후 새마을 사업의 성취 역시 지체적이라는 결론을 이끈 데 반해, 최협은 씨족마을의 경우가 비씨족마을에 비하여 근대화의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어 대비된다.

역사학, 특히 가족, 친족 및 공동체 조직과 같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와 조직을 기본 연구주제로 하는 사회사 분야에서는 일제시기를 포함한 1960년대 이전의 초기의 저작들이 비교적 전국적인 자료 혹은 중앙의 문헌자료에 의지한 전체적인 연구였다는 반성 위에 1970년대 후반 이후 향촌 사료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가 크게 융성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역사의 주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는 특히 조선 후기 신분제도 및 지배세력의 변동을 주요한 연구주제로 삼아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가 단지 양반과 상민이라는 이원적 분류에서 벗어나 토호층, 요호부민층, 소빈민층 등으로 세분하여 신분이 이완되는 대신 계층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이들 집단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향촌조직의 기능, 그리고 조선전기의 농업기술과 새로운 재지사족 계층의 융성 사이의 관계 등을 밝히는 성과를 거두었다<sup>64)</sup>.

이외에 1990년대 이후에는 각 군 단위로 「마을사」, 「마을유래지」 등의 명칭으로 자연마을의 역사를 기록한 향토지의 편찬이 활발하였고<sup>65)</sup>, 각 지역에 문화원을 설립하여 많은 향토사학자를 배출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향토사연구회전국협의회에서는 『촌락실태조사소편람(村落實態調査小便覽)』(1991)이라는 마을에 대한 종합적 연구의 핸드북을 발간하였고, 한편으로는 기존의 역사학, 인류학, 민속학 등의 연구자들이 모인 ‘한국역사민속학회’를 발족하기에 이른다.

62) 김택규, 「제2장. 촌락생활」, 「경상북도사(하)」, 편찬위원회 간, 1983

63) 최협, 「동족부락과 비동족부락의 사회구조적 특성 - 전남 강진군의 2개 부락의 비교연구 -」, 「호남문화연구」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2

64) 마을 연구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성과로, 이태진의 「한국사회사연구-농업기술발전과 사회변동-」(지식산업사, 1986) 및 「조선유교사회사론」(지식산업사, 1989), 이해준의 「조선시기 촌락사회사」(민족문화사, 1996), 고석규의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서울대 출판부, 1998), 정진영의 「조선시대 향촌사회사」(한길사, 1998) 등이 있다.

65) 강진, 고성, 고령, 곡성, 해남, 장성, 김제 등지의 군에서 발간되었다.

### (3) 건축학 분야의 연구성과

이 장에서는 건축학 분야에서의 연구성과를 조사보고와 연구논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건축사 분야의 모든 분과가 마찬가지로이겠지만, 특히 마을의 경우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에 많은 인원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의 성과를 기록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절실히 요구된다. 때문에 이 장에서는 조사된 각 마을의 이름 및 도면의 수준 등을 목록화하여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① 조사보고

마을배치도 및 주호를 비롯한 건축물의 평면도를 채집하는 일은 건축학 분야에서 마을을 연구하는 기본적인 자료임과 동시에 지금도 급격하게 변해 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기도 하다. 마을 연구의 최초 단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국적인 민속종합보고의 일환으로 시도된 마을조사에서부터 비롯하여 민속마을의 지정보존을 위한 조사보고, 그리고 수물지구를 대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시작하였다. 마을에 대한 조사는 대상지역이 넓기 때문에 많은 조사원과 오랜 시간과 큰 경비가 필요하게 마련이고, 때문에 대개의 경우 개인보다는 대학연구실 단위의 집단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기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전국적으로 50개소 이상의 마을에 대한 실측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재정적인 형편, 조사의 목적, 조사진의 구성 등에 따라 도면의 작성이나 관련된 조사내용 등에서 실로 다양한 차이가 있다. 마을 배치도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발주기관, 보고서의 발간 유무 등을 기준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마을 보전이나 수물지역에 대한 기록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발주에 의해 생산된 보고서 중 대표적인 연구서들은 다음과 같다.

〈표 9〉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을조사보고서

구 분	조사보고서
경상북도	①「양동마을조사보고서」(1979, 삼성건축), ②「하회마을조사보고서」(1979, 삼성건축)
승주군	③「낙안읍성보고서」(1979, 금성건축)
제주도	④「성읍마을보고서」(1980, 금성건축)
고흥군	⑤「고흥 장수마을 민속조사」(1984, 국립광주박물관)
문화재관리국	⑥「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주생활편)」(1985, 김홍식 교수) ⑦용인 문시량마을, ⑧인제 양지마을, ⑨영동 월전마을, ⑩진안 상염북마을, ⑪곡성 군지촌마을, ⑫울진 굴구지마을, ⑬의령 신촌마을(조마실), ⑭북제주 알동네마을, ⑮남제주 창고내마을(창천리)
문화재관리국	⑦「전통건조물보존지구조사보고서 -한개마을」(1988, 영남대) ⑧「전통건조물보존지구조사보고서 -무섬마을」(1988, 영남대), ⑨「전통건조물보존지구 -호지마을」(1988, 영남대) ⑩「왕곡리보고서」(1989, 금성건축)
장흥군	⑪「장흥 방촌」(1994, 목포대 박물관)
대구광역시	⑫「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보존방안 및 실측조사보고서」(1996, 영남대+태광건축)
진도군	⑬「진도 남도석성 발굴조사보고서」(1999,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또 대학의 학과 및 연구실 단위에서 순수한 연구를 위해 연구를 진행한 경우, 대표적인 연구서는 다음과 같다.

〈표 10〉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마을조사보고서

구 분	조사보고서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①「원무거마을」(1972) ②「의인·섬마을 -안동댐 수몰지구 취락형태 현지조사」(1976), ③「전통취락실측조사연구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1982), ④「전통취락 실측조사연구 -경상북도 달성군 하빈면 묘동」(1986), ⑤「영해·운곡」(1988), ⑥「장재촌」(1995) 등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무애건축 연구실	①「남부지방 농어촌주거 실측조사보고서」(보삼, 남사, 신항, 도래, 1986), ②「중부지방 농촌주거 실측조사보고서」(안성 오봉리, 대덕 이사리, 괴산 오간리, 1987, 홍익대 및 목원대와 협동), ③「파주·고성 농촌주거 실측조사보고서」(연다산2리, 삼포2리, 오봉리, 1987), ④「경북 금릉 농촌주거 실측조사보고서」(상원리 원터마을, 1988, 명지대와 협동), ⑤「전북 김제 농촌주거 실측조사보고서」(금구면 월정리 연동마을, 1989), ⑥「제주도 농촌주거 실측조사보고서」(애월읍 상가리, 1992) <sup>66)</sup>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역사·이론 연구실	①「성주한개마을」(1991)
충북대학교 박물관	②「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발굴조사종합보고서」(제원군 청풍면 교리, 도화리, 대유리, 후산리, 1983)



마지막으로, 학회논문집이나 학위논문 그리고 개인 저작물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 경우는 정식의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면의 양과 수준에 있어 고르지 못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실측조사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 자신은 원실측도면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기타 연구서에서 마을조사연구

구 분	조사보고서
호남지역	①하의도 대리마을(1989), ②청산도 당리마을(1991), ③악도 상득암마을(1994) <sup>67)</sup> , ④부안 계화면 돈지마을 <sup>68)</sup> , ⑤구례 상사마을과 ⑥양동마을 <sup>69)</sup> , ⑦진도 남도석성마을 <sup>70)</sup> , ⑧화순 월곡마을 <sup>71)</sup> , ⑨보성 강골마을 <sup>72)</sup> , ⑩진도 세등마을 <sup>73)</sup>
제주도	①봉성마을, ②하예마을, ③오조마을 <sup>74)</sup> ,
영남지역	①봉화 닭실마을 <sup>75)</sup> , ②상주 하우산마을 <sup>76)</sup> , ③대구 옷골마을, ④봉화 해저마을과 ⑤오록마을 <sup>77)</sup> , ⑥영일 덕동마을 <sup>78)</sup> , ⑦산청 단계마을 <sup>79)</sup> , ⑧하동 청학동마을 <sup>80)</sup> , ⑨성주 바깥새출마을과 ⑩서더래마을 <sup>81)</sup> , ⑪봉화 황전마을 <sup>82)</sup> , ⑫즈므마을 <sup>83)</sup> ,
충청도	①논산 개태골마을 <sup>84)</sup> , ②괴산 괴실마을 <sup>85)</sup>
경인지역	①안성 덕동마을 <sup>86)</sup> , ②인천 중구 구읍마을 <sup>87)</sup> 등

66) 이외에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회동 한옥보존지구 실측조사보고서」(1986, 흥익대와 협동), 「행촌동 연립주택·아파트 조사보고서」(1986), 「봉천·행당 도시주거 실측조사보고서」(1988), 「도시형 한옥 실측조사보고서」(1991, 한남대와 협동)가 있다.

67) 이상, 「도서문화」,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김지민)

68) 이재두, 유응교, 「한국간척지 취락의 정주패턴에 관한 연구 - 계화면 돈지 마을을 중심으로」, 춘추학술발표대회논문집, 대한건축학회, 1988.10

69) 문병룡, 「마을의 정주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석사, 1989

70) 김흥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71) 전봉희, 「조선시대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 1992

72) 전봉희, 「보성 강골마을의 정주형태에 대한 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4호, 1998, 4

73) 전봉희, 「진도 세등리의 정주형태에 대한 조사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역사문화학회, 2000.11

74) 양택훈,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따른 민가의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7권 4호, 1991

75) 강선중, 「한국농촌마을의 공간구성방법에 대한 연구」, 명지대석사, 1984

76) 김흥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77) 박명희, 「영남지방 동쪽마을의 분과형태와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흥익대박사, 1992

78) 전봉희, 「조선시대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 1992

79) 이규성, 「한국전통마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권1호, 1993.6

80) 정범석, 「청학동마을의 형성배경과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발표대회논문집」, 14권 2호, 1994.10

81) 하종한, 김일진, 「성주댐 수몰지역 마을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8호, 1995.8

82) 이현희, 김승제, 「봉화군 황전마을 풍수관의 마을공간구성에 대한 영향 - 한국의 취락과 주거공간의 질서체계에 관한 연구」, 춘추학술발표대회논문집, 대한건축학회, 1996.10 v.16, n.2,

조사지역은 경북과 전남지방이 각 10곳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을 뿐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지역이 빠진 것은 큰 약점이다. 이는 분단 이후의 남한 학계가 가지는 공통적인 약점이지만, 특히 마을에 대한 건축학 분야의 연구는 197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해방 이전의 연구에서도 마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 주거건축의 경우보다 사정이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 경북지역과 전남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은 경북지역의 경우 보존상태가 좋은 대표적인 반촌이 많이 존재하고, 이에 비해 전남지역은 서남해 도서지역을 끼고 있어 역시 특색있는 마을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경남지역과 함께 이들 두 지역에 주거건축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많은 것도 한 이유가 된다. 이는 주거건축에 대한 전체 연구동향과 일치한다.

한편, 자료의 작성자가 소수의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특징이며 이는 연구자의 배출과도 큰 관련이 있다. 도면의 작성과 현지조사의 기록에 있어, 울산대학의 보고는 평판측량에 의한 정확한 마을배치도의 작성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고, 김홍식 교수에 의한 조사표는 인문·경제적인 상황은 물론 도면으로 표기하기 곤란한 가옥의 구조 및 재료 부분을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가치가 있다. 서울대학의 조사도면은 각 주호 내부의 살림살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간이용실태를 생생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마을연구와 관련된 조사보고 중 경기문화재단의 경기도 전통민가 조사사업은 최초로 이루어진 광역적인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99년부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4천여 곳 마을에서 1945년 이전에 건립된 1,700여 동의 민가가 조사되고 그중 1,200여 동의 도면작업이 이루어졌다<sup>88)</sup>. 이전까지 보존상태가 양호한 개별마을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 비해 지역 내 전체마을을 아우르는 방대한 자료가 축적되었다. 다만 주거사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직 마을의 특징을 규명한 연구는 보고되지 못하고 있다.

32, pp.21-24

83) 정재국, '즈므마을 전통민가에 관한 조사연구', 「건축역사연구」 6권3호, 1997.12

84) 오진안, '한옥마을의 주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발표대회논문집」 9권2호, 1989. 10

85)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86) 박성준, '농촌건축의 공간구성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8권 1호, 1986.4

87) 손장원, '인천시 도서지역에 관한 연구(2)', 「대한건축학회 추계발표대회논문집」 16권2호, 1997. 10

88)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제1권-제5권, 2004

## ② 연구논문

마을의 공간구조를 다룬 것으로는 1972년에 나온 이정근의 연구<sup>89)</sup>가 선구적이고 곧이어 김홍식에 의한 연구<sup>90)</sup>가 뒤따른다. 이정근은 이후 울산대학교에 부임하여 초기 마을실측을 주도하였고, 그 성과를 이용하여 마을 내의 사회적 관계와 공간구조 사이의 관계를 다룬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끌었다. 김홍식은 자연적으로 성장한 마을(그 이후 읍성마을에 대한 것으로 논의를 확대하였다)을 대상으로 길의 구성과 주거지 및 주변 지형과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농촌마을의 전형적인 공간구성 도식을 제시하였다. 또 경남 사천의 신복마을의 구성형태를 다룬 조성기의 연구<sup>91)</sup>와 씨족적 관계를 갖는 두 개의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주거평면의 영향관계를 유형학적으로 분석한 장성준의 연구<sup>92)</sup> 역시 마을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홍순인 등의 연구<sup>93)</sup>를 포함한 이 시기의 연구는 1980년대 이후의 마을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1970년대에 나온 또 다른 주요한 성과는 울산대학교 연구팀이 마을의 전체 배치도를 작성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제까지의 건축사의 주요한 연구대상이 건축기술과 양식에 집중되었던 것을 극복하고 개별건축들의 집합에서 전통건축의 특성을 찾으려 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의인·섬마을 보고서 등은 통도사에 대한 실측조사와 함께 당시의 건축사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정부기관이 아닌 대학 연구팀이 순수 연구의 목적으로 이처럼 정밀한 조사보고를 출간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든 점도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마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붐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일어났다. 이 시기의 연구는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전술한 두 가지의 방법론, 즉 마을의 공간구성을 길의 형성과 주거지의 확산, 주변 지형과의 관계(특히 풍수) 등으로 보는 시각과 마을을 단위로 한 주거유형의 체계적 세부 분류를 주된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sup>94)</sup>. 또한 이전 시기의 마을연구가 한편으로 농촌계획학의 영향을 받아 건축계획적 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sup>95)</sup> 이 시기 이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역사적 성격을 강하게

89) 이정근, 「한국자연부락의 공간구조」, 서울대 석사논문, 1972

90) 김홍식, 「마을공간구성법에 의한 한국전통건축사상연구」, 「건축」 1975. 5-6월호

91) 조성기, 「농촌자연부락의 집락형태에 관한 연구」, 「건축」 23권 통권 88호, 1979

92) 장성준, 「안동 토계동의 주거유형에 관한 연구」, 「건축」 22권 통권81호, 1978

93) 홍순인, 「傳統 마을의 形成과 民家形成에 關한 研究 - 安東 장수골, 먹골 마을을 中心으로」, 홍익대 석사논문, 1980

94) 조사보고편에 소개된 논문 이외에 임봉진, 「동족부락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1982, 전남대 석사, 김용미, 「한국 농촌마을의 건축적 질서에 관한 연구 -6개마을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1985, 서울대 석사 등도 이 시기에 발표된 것이다.

95) 전경배, 최효승, 조유근 등의 연구가 그러하고, 여기에는 당시의 새마을운동 농촌취락구조개

찾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김흥수<sup>96)</sup>는 아직 연구 불모지였던 강원도 산간마을로 연구대상지역을 확대하여 마을을 단위로 한 민가평면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였고, 박성준의 논문<sup>97)</sup>은 하나의 마을을 대상지역으로 삼아 마을의 공간구조에서부터 단위주거의 평면구성에 이르기까지 기왕의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사학위 논문은 한 명의 전문 연구자를 배출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소속된 연구팀이 기왕의 연구흐름과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데, 연구사를 추적함에 있어 여러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이제까지 마을과 관련하여 출간된 박사학위 논문의 목록을 출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마을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

구 분	박사학위 논문
전경배	「한국농촌주택 및 농촌취락구성에 관한 건축설계적 연구」, 한양대, 1974
이정근	「Space and Society A Study in Socio-Spatial Dialectic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Korean Villages」, Ph.D Thesis in U. of Edinburgh, 1984
정시춘	「조선시대 반가중심마을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1990
한필원	「農村 同族마을 空間構造의 特性和 變化 연구」, 서울대, 1991
박명덕	「嶺南地方 同族마을의 分派形態와 建築特性에 관한 연구」, 홍익대, 1992
전봉희	「조선시대씨족마을의 내재적질서와 건축적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1992
이규성	「조선시대 영남지방 반촌의 형성과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 1995
강선중	「金鷄抱卵形 局面의 마을空間構成方法에 關한 研究」,明知大, 2000
양승정	「韓國 傳統마을의 空間的 特徵에 관한 研究 - 길의 構造에 따른 空間統辭論的 解析을 中心으로」, 한양대, 2006

<표 12>와 같이 전체적으로 많은 양은 아니며, 이들이 모두 1980년대 이후의 조사성과를 배출한 집단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상으로 삼은 자료의 성격과 방법론에 이진 시기의 연구성과와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필원의 연구는 마을의 공간에 내재하는 관계들의 구조적 개념화를 통하여 마을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환경변화에 자생적으로 순응하는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박명덕과 전봉희, 이규성의 논문은 모두 조선시대의 특징적

선사업의 영향이 있었다.

96) 김흥수, 「강원도 산간지역의 민가건축에 관한 연구-강원도 신리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 1982

97) 박성준, 「농촌주택의 공간구성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덕봉리마을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서울대 석사, 1986

인 마을형태인 씨족마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박명덕의 연구는 씨족마을의 성장 및 확대과정을 씨족조직의 분화과정과 관련지어 유기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지리학에서의 연구성과를 수용하여 주거지 확대과정에서의 분파마을의 형성을 유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리적인 격리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거의 평면 역시 혈연 혹은 학파에 따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전봉희의 연구는 씨족마을의 고유한 내재적 질서를 씨족마을의 형성 및 성장과정과 위계적 구성 등에서 추출하고, 그것들을 규모와 의장, 입지와 안대 등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현상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설명하려 하였고 마을을 단위로 한 주거유형의 분류법을 시도하였다. 이규성은 젠조 에이스케에 의한 1930년대의 조사에서 거론된 경남지역의 저명씨족마을 22개소를 대상으로 그의 조사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여 마을의 입지, 형성과정, 길과 주요건축물의 입지, 표본마을에 대한 주거평면형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마을의 성장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마을연구의 건축사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조선시대의 고유하고 보편적인 마을구성원리를 찾아내는데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2000년대 이후의 논문들은 건축계획학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마을의 공간구성유형을 정리하였다. 강선중은 풍수학에서 금계포란형으로 분류된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입지유형과 공간구성상의 유형을 도출하였고, 양승정은 공간통사론을 적용하여 마을 길구조의 유형과 특징을 분류하고 시설유형별 배치특성을 고찰하였다.

마을에 대한 연구는 이처럼 마을을 통하여 집합적 건축의 구성원리를 설명하려는 시도와 함께, 전통적인 주거건축에 대한 연구에서 유형분류가 갖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성과를 아울러 가진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기존의 주거유형에 대한 조사가 조사지의 임의적 표본 주거를 대상으로 한 것에 반하여, 마을을 단위로 한 광범위한 주거형의 조사는 동일 집단 내의 개별 주거형 사이의 미세한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집단 내의 대표성을 갖는 주거유형을 설정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한편, 연구대상으로 보면 저명한 반촌마을 이외에 주변의 소규모 마을 혹은 소농가 중심의 마을까지를 부분적으로 포섭하였으며, 마을을 구성하는 주요한 경관요소로서 자주 지적되어 온 유교적 경관을 대표하는 정려건축<sup>98)</sup>과 생산공동체의 표식인 모정건축<sup>99)</sup>에 대한 개별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마을에 대한 연구는 주춤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마을 연구를 위한 기본사료의 채집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고 농촌지역의 급속한 와해로 전통적인 경관을 유지한 마을이 점차

98) 김지민, '정려건축 연구 -전남 지방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10호, 1996. 10

99) 전봉희, '전남지역의 모정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5호, 1994.5

사라지고 있으며 주요한 마을에 대하여는 이미 조사를 완료하였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연구의 동기 자체가 줄어드는 느낌을 준다. 이는 육성개발 대상으로서의 농촌지역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지 않은 채 대상만 바꾸어 가며 과거의 분석틀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새로운 연구경향으로는, 마을연구의 대상을 확대하여, 외국의 한국인 이주단지와 한국 내의 외국인 이주단지, 그리고 외국의 주거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점을 특기할 수 있다. 1993년 울산대학교 한국건축연구소의 연변지역 조선족 주거 연구<sup>100)</sup>를 시점으로 주로 조선족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국외지역의 마을조사가 시작되어 길림 하동향마을<sup>101)</sup>, 용흥촌<sup>102)</sup>, 용산촌<sup>103)</sup>, 두만강 북안 지역<sup>104)</sup>으로 이어졌다. 한편 조선족 거주지역이 아닌 해외 현지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어 중국의 북경 구성 내 사합원 지구<sup>105)</sup>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국내에 남아 있는 외국인 이주민 마을인 근대기 일본인 이주어촌의 공간구조와 주거특성을 고찰한 일련의 연구도 나왔다<sup>106)</sup>. 동시에 일본 어촌마을의 공간구조를 연구한 논문<sup>107)</sup>, 일본에서의 한국인 마을을 연구

100) 이규성, '中國 延邊地區 朝鮮族마을의 構成 : 룡정시 지신향 장재촌을 대상으로', 「건축역사연구」, 1994. 6

김봉렬, '中國 延邊地區 朝鮮族의 마을과 주거', 「건축역사연구」, 1994. 6

101) 김승제, 김수인, 김종영, '중국 조선족 하동향 마을 배치구성에 관한 연구', 춘추학술발표대회논문집, 대한건축학회, 1997.10

102) 김승제, '중국 조선족 용흥촌의 마을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 8호, 2002. 8

103) 김성우, 김준봉, 김영준, '중국 연변 조선족 전통마을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3호, 2003. 3

104) 최효승, 림금화, 김태영, '두만강 북안 조선족 농촌마을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권 11호, 2007. 11

105) 전봉희, 우동선, 이경아, '북경 사합원의 현재적 변용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3호, 2001. 3

106) ① 박중신, 김태영, 이훈, '한국근대기 일본인이주어촌의 포구취락 구조와 주거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11호, 2004. 11

② 강경남, 박중신, 김성중, 김태영, '한국근대기 일본인 이주어촌내 가옥의 변용양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2호, 2005. 2

③ 박중신, '한국근대기 일본인이주어촌의 주거공간구성과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권 9호, 2006. 9

④ 김준, 尾道建二, 유재우, '경남 통영 강산촌(岡山村)의 형성과정과 주택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권 8호, 2007. 8

⑤ 김준, 김성률, 尾道建二, 유재우, '일본인 이주어촌의 변화과정과 시기별 주택변용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권 1호, 2008. 1

107) 김강섭, 이상정, '자연적 요소에 의한 일본 어촌마을의 공간구조와 특성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권 9호, 2006. 9

한 논문<sup>108)</sup>도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의 확대는 모두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거지가 갖는 공간적 특성을 비교사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한필원은 한국 남부의 씨족마을과 중국 소수민족의 마을의 수체계를 비교하는 성과를 내었다<sup>109)</sup>. 이들 연구는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조사연구 지원정책의 도움이 컸다.

다른 한편, 주요한 마을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이후 전통건조물보존지구의 지정과 같은 소극적 보존과 함께 민속마을정비라고 하는 적극적 활용의 두 가지 방향으로 이어졌다. 그 가운데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외암리마을, 성읍마을의 경우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개조를 통하여 관광지화되었고, 낙안읍성마을과 남도석성마을은 적극적인 이주 보존정책을 통하여 새롭게 관광단지를 개발하거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느 경우나 현 시점에서는 거주민 혹은 관광객 그리고 관심있는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불완전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불과 한 세대 전의 농촌모습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관광 혹은 전통적 주거환경의 체험을 위한 민속마을의 개발은 일정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학계에서도 역사적 원형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주민의 자발적 협동에 의한 전통주거환경의 재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박제된 것이거나 구형을 온전히 유지하는 야외박물관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0년대 이후 전국 건축학과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논문의 주제는 보존과 민속마을 관리<sup>110)</sup>에 관한 것이다. 이는 최근 보존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관광산업과의 관련성이 주목되는 경향과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1990년대의 연구방법론을 이은 것들로서, 마을의 공간구조를 다룬 것<sup>111)</sup>과 마을 내 주거를 대상으로 한 주거사

108) 박중신, 조성민, 김태영, 「在日 韓國·朝鮮人部落의 形成과 居住形態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권 12호, 2007. 12

109) 한필원, 「한국 남부 씨족마을과 중국 麗江지역 納西族마을의 수체계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1호, 2003. 1

110) 고동현, 「歷史的 文化景觀 保存計劃에 關한 研究 : 河回마을을 對象으로」, 성균관대석사, 2002

임정환, 「傳統民俗마을의 保存에 關한 研究 : 樂安邑城의 異質的 要素를 中心으로」, 조선대 석사, 2005

전순희, 「전통민속마을 공간구조특성 비교분석 : 중요민속자료 및 사적 지정 마을을 대상으로」, 충남대 석사, 2005

진주원, 「전통마을의 장기적 보존·활용을 위한 관리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6개 민속마을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 2007

이주옥, 「전통마을의 보전방법 연구 : 한국·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남대 석사, 2008

적 고찰<sup>112)</sup>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고, 풍수와 생태<sup>113)</sup>, 의례공간<sup>114)</sup>, 물의 활용<sup>115)</sup>, 마을길의 공간분석<sup>116)</sup> 등이 있다. 이들 학위논문이 학회지에 소개된 것을 제외하면 학회지를 통한 지속적인 마을연구는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sup>117)</sup>.

1991년 창립된 한국건축역사학회는 이와 같은 성과를 공론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2000년대 이후 마을연구와 관련한 토론회를 한국건축역사학회 월례회 행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역사문화경관의 보존과 활용, 2002.4.
- ② 마을, 건축실천의 새로운 현장, 2006.9
- ③ 마을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2007.9

2002년 4월 월례회는 민속마을을 역사문화경관의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전봉희의 기획으로 이루어졌다. 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에 참여한 이왕기, 영주 선비촌 조성사업의 이호열,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의 송인호가 발표하였고, 박경립, 최태홍, 김홍남이 토론하였다. 2006년 9월의 월례회에서는 한필원의 기획으로 건축실천의 장으로서의 마을을 논의하였다. 마을만들기 운동 각 분야의 실천가들인 임경수, 주대관, 송미령이 발표하였고, 건축가 안우성과 마을주민 주형로가 토론하였다. 2007년 9월 월례회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의 마을에 대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박명덕의 기획으로 지리학의 김덕현, 역사학의 이해준, 민속학의 임재해가 발표하였고, 김홍식과 전봉희가 토론하였다. 각각 기획의도와 주제가 다르지만 모두 마을에 대한 현재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보존과 신축의 조화를 모색하는 방향과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다시금 마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노

---

111) 김재홍, 「1920-1930년대 주문진읍 교항리 마을구조와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 2002  
 이지웅, 「씨족마을 공간구성의 특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전북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동촌마을을 중심으로」, 원광대 석사, 2003  
 문병선, 「곡(谷)계 지명 농촌마을의 입지특성과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 충청북도 괴산군을 대상으로」, 청주대석사, 2007

112) 최흥기, 「牙山 外岩마을의 住居變化에 관한 研究」, 목원대 석사, 2001

113) 김병주, 「풍수로 본 한국 전통마을의 생태적 환경 친화성」, 성균관대 석사, 2005

114) 구본환, 「전통마을 의례공간의 건축적 특성 연구 :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한남대 석사, 2006

115) 유훈조, 「물의 활용을 통해 본 한국 전통마을의 특성」, 성균관대 석사, 2007

116) 김정우, 「양동마을구성에 있어 매개공간으로서의 길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 2007

117) 본문에서 소개하지 못한 학회지의 건축학 전공자의 마을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전호상, 이상해, 「수몰된 종족마을의 건축-문화적 지속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4  
 최장순, 「왕곡마을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5



력이었다.

## 2) 과제와 전망

### (1) 자료의 채집과 정리

일차적으로는 지난 세기의 주거사 연구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자료의 총서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전술하였다시피, 마을에 대한 실측조사의 사례수가 60 개소를 넘어서고 그 가운데는 이미 개발이나 수몰 등으로 완전히 사라진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심한 현상변경으로 과거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이 많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보고서를 구하기 어렵고 보고서로 출간되지 않은 경우는 원자료로 개인 연구자의 손에 남아 있는 것들도 많아 사장될 위기에 있다. 자료들 사이의 편차가 심하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의 기록이므로 이들을 모두 모아 역사기록화하는 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학회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요청된다.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연구 시각을 넓히는 일이 필요하다. 아직 체계적인 접근이 시도된 바 없는 북한지역의 전통적 마을 혹은 분단 이후의 계획마을에 대한 조사가 선결적이며, 오랜 기간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형성과정에 깊은 관계를 가져온 이웃 나라에 대한 연구 역시 비교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 또 국내에서는 도시지역으로 확대를, 시기적으로는 근대 이후 시기로 연구대상을 확대하는 일이 필요하다. 어제의 사건이 오늘의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서울 북촌의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청주대학교 연구팀이 수행한 근대도시주택 조사<sup>118)</sup>와 서울시립대학 및 시정개발연구원이 수행한 북촌마을 조사<sup>119)</sup> 등은 마을연구가 근대시기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 (2)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

그간의 마을연구는 전근대사회, 특히 조선사회의 씨족마을에 연구력이 집중되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켄조 에이스케의 연구 이래의 오랜 영향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씨족마을이 조선시대의 대표적 정주형식이며 조선시대가 문헌 및 현상을 추적할 수 있는 가까운 과거라는 점에서 비롯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의 연구는 이를 근대 이후의 도시지역으로 확대할

118) 김태영, 「근대도시주택 실측조사보고서」, 1~7. 청주대학교 건축계획연구실

119) 시정개발연구원, 「북촌가꾸기 기본계획 - 한옥실측도면집」, 2002

필요성이 크며, 더욱 폭을 넓혀 우리 문화의 형성과 깊은 관련을 갖는 이웃 나라들로까지 확대하는 일이 향후의 과제이다<sup>120)</sup>. 해외지역의 조사는 일차적으로는 우리의 건축문화와 직접적인 접촉경험이 있는 지역에서 시작하겠지만 점차 범위를 넓혀 인류의 보편적 정주형태를 파악하는 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순수한’ 동기에 의한 연구가 지난 한 세기 일방적인 수혜자로 머물렀던 우리 학계의 위상을 높여 범학문세계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연구가 지니는 성격을 명확히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마을연구는 인간이 스스로 정주환경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일이다. 그 속에 내재된 자율적인 조정기제 그리고 사회와 환경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는 일이다. 우리의 건축사가 전근대사회로 한정되지 않듯이 마을연구 역시 조선시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우리의 건축사가 과거에도 앞으로도 한반도의 울타리 내에서 자족적인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관심도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부연하자면 역사학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현재에 있는 것이고, 현재를 설명하며 미래의 전망을 갖는 일이 역사학의 대명제이다.

이와 같이 마을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방법론을 세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건축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건축적 스케일에서의 공간조성원리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는 건축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분명해진다. 기왕의 마을연구를 통하여 인간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물리적 환경의 구축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커다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건축적 차원으로까지 내려오지 못하였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제 보다 세밀한 차원으로 논의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 살펴본 것을 기반으로 간단하게 기존의 마을에 대한 연구를 평가한다면, 마을에 대한 연구만이 그렇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마을연구는 1970년대 이후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점이 아닌 면으로서의 건축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② 집합의 과정 즉, 성장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③ 사회적 관계와 물리적 환경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④ 건축과 도시의 경계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⑤ 그리고 인간의 정주양식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건축사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120) “결론적으로 愼白 선생이 내게 가르친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한국의 문화와 생활양식은 한자문화권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한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 교류(접촉)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강신표 선생이 화갑기념강연에서 인용한 것이다. (강신표, ‘상백선생의 미완성 유고와 나의 학문의 길 그리고 올림픽운동’, 『한국문화인류학』, 29집 2호, 1996)

이러한 특성을 살려 대상을 시기적으로 공간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언급해 두고 싶은 점은 최근의 두드러진 경향은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된다는 점이다. 마을연구는 민속종합조사 이래의 오랜 학제 간 협력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마을에 대한 연구는 최소의 지역 공동체에 대한 종합적 접근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건축사의 다른 어느 분야보다 학제 간 연구가 필수적이다. 더욱이 이 시기의 새로운 역사학, 인류학, 민속학, 지리학은 경관, 장소 혹은 공간에 대해 더욱더 높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시기 마을연구의 경험은 이들을 통합하는 진정한 사이학문으로서의 경관학, 공간학으로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에 두드러지는 새로운 연구경향은, 마을을 더 이상 연구 대상만이 아닌 실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제 간 연구에 있어서도, 인문학과 건축학의 연합은 물론 작물학과 경제학 그리고 관광학 등 사업적 전망을 갖는 분야가 새롭게 참가하고 있다. 이는 대외 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외되는 농촌과 어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이 행해지면서, 여러 형태의 ‘농촌 마을 살리기’ 운동이 일어난 것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한시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농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의 농업 공동체를 위한 접근은 마을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난 30여 년간 축적된 연구 성과는 마을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는 데 좋은 밑바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 도시학 분야

### 1) 도시공간 연구동향

#### (1) 1990년대 이전까지의 연구동향

##### ① 한국 도시공간 현황에 대한 기초적 실측조사연구

초기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근대적인 연구는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인 학자들이 진행했으며, 초기 일본인 학자들이 진행한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는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현황과 기초적인 자료조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121)</sup>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 연구진들이 도시공간을 연구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대표적으로 손정목 교수가 도시공간구조 및 사회구조에 대한 연구서를 대상시기별로 시리즈 형태로 발간하였고, 김홍식 교수 등이 도시마을취락에 대한 실측조사를 진행하였다.

손정목 교수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발표한 「풍수지리설이 도읍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1973)를 통해 한국의 도시공간 구성원리를 고찰하였으며, 이후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일지사, 1977),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 연구』(일지사, 1982), 『한국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 연구』(일지사, 1986),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일지사, 1990),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일지사, 1996), 『한국현대도시의 발자취』(일지사, 1990) 등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도시계획과 도시공간구조, 도시변화과정에 대해 연속적인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1970년대에는 일제시대 이후 국내 연구진들이 한국의 도시구조에 대한 현황적 파악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울산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진행된 『원무거마을』(1972), 『의인섬마을 안동댐 수몰지구 취락형태 현지조사』(1976), 『전통취락 실측조사연구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1982) 등이 있으며 실측설계사무소 등에서 진행한 『낙안성 민속보존마을 조사연구보고서』(송주군, 1979), 『양동마을 조사보고서』(경상북도, 1979), 『하회마을 조사보고서』(경상북도, 1979) 등이 있다.

---

121) 일본인 학자들이 연구한 자세한 내용은 4장 1절의 내용 참고

## ② 도시공간구조, 형성원리, 변화과정 등에 대한 본격적 연구시작

1980년대 초에는 기존의 현황실측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공간구조, 형성원리, 변화과정 등 다양한 주제와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도시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 연구진들의 연구서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주종원 교수는 『국토계획』에 발표한 「서울시 도시형태 형성에 관한 연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81)를 통해 초기 서울(한성부)의 도시형태에 대한 형성과정을 분석, 검토하였다. 경원대학교 김의원 교수는 『한국 국토개발사연구』(대학도서, 1982)를 통해 국토공간에 대한 개발사를 일괄 정리 하였다.

이밖에도 중요한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원영환 교수의 『조선시대 한성부 연구』(성균관대 석사논문, 1979), 이상구 교수의 『조선중기 읍성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3), 구자훈 교수의 『경성부 공간구조의 형성 변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4), 김철수 교수의 『한국 성곽도시의 형성 발전과정과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 박사논문, 1984), 이정근 교수의 『Space and Society A Study in Socio-Spatial Dialectic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Korean Villages』(Edinburgh 박사논문, 1984), 김용미의 『한국 농촌마을의 건축적 질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5), 이규목 교수의 『도시상징성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86), 황희연 교수의 『도시중심부의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생태학적 해석』(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87) 등 현재 학회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요 연구진들이 한국의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980년대 초에도 일부 마을과 도시에 대한 실측조사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그 수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 (2) 199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동향

### ① 지방 중소 규모 도시로 연구범위 확장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는 지방의 중소 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주종원교수의 「읍성으로부터 발달한 지방 중소도시의 공간구조적 특성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국토계획, 1988), 윤진숙의 『일제하 부산시의 도시구조』(경희대학교 박사논문, 1990), 예명해의 「조선시대 대구읍성에 관한 기초연구」(국토계획, 1991)와 「조선시대 밀양읍성에 관한 기초연구」(국토계획, 1991), 이규목 교

수의 『경주시 도시경관과 그 이미지에 관한 연구』(한국조경학회, 1991),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 박사학위, 1992) 등이 있다.

주종원 교수는 『읍성으로부터 발달한 지방 중소도시의 공간구조적 특성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국토계획, 1988)를 통해 읍성에서부터 시작한 지방 중소도시 7개를 대상으로 조선말기, 일제시대, 현대의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읍성의 규모, 간선도로의 체계, 인구추이, 공간구조의 변화과정 등을 분석하였다. 예명해 교수는 『조선시대 대구읍성에 관한 기초연구』(국토계획, 1991)와 『조선시대 밀양읍성에 관한 기초연구』(국토계획, 1991)를 통해 대구와 밀양 등 지방도시의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본영 교수는 『위성도시 주거지역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 안양 및 부천시를 중심으로』(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89)를 통해 서울의 위성도시인 안양 및 부천시의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양시와 부천시가 버제스의 도시구조모형보다는 호이트의 선형도시구조모형과 같은 축성발달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② 경관, 이미지 등에 관한 연구 시작

또한 이 시기부터는 도시의 경관과 이미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도시경관에 대한 연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대한주택공사의 『전통조경요소를 도입한 단지경관 구성연구』(대한주택공사, 1988), 최기수의 『곡과 경에 나타난 한국전통경관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한양대 박사논문, 1990), 이규목의 『경주시 도시경관과 그 이미지에 관한 연구』(한국조경학회, 1991) 등이 있다.

## ③ 도시공간 구성원리의 사회적 요인 분석 시작

도시공간의 구성원리였어도 기존의 풍수지리와 같은 인문적 이론체계 이외에 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같은 사회적 요인을 검토하는 연구를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몽일의 『한국 풍수지리 사상의 변천과정』(경북대학교 박사논문, 1991), 한필원 교수의 『농촌 동족마을 공간구조의 특성과 변화연구』(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1), 전봉희 교수의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2), 박명덕의 『영남지방 동족마을의 분파형태와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 박사논문) 등이 있다.

전봉희 교수는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화순 월곡마을 등을 대상으로 씨족마을의 고유한 내재적 질서를 각

각 형성 및 성장과정과 위계적 구성 등에서 추출하고, 그것들을 규모와 의장, 인지와 안대 등 물리적 현상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박명덕 교수는 『영남지방 동족마을의 분과형태와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봉화 오록마을 등을 대상으로 씨족마을의 성장 및 확대과정을 씨족 조직의 분화과정과 관련지어 유기적으로 해석하고 지리학에서의 연구성과를 수용하여 도시공간구조가 혈연 혹은 학파 등의 인문적 관계와 연계되어 있음을 밝혔다.

#### ④ 도시형태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 시도

도시형태에서도 좀 더 미시적인 필지구성체계 등의 도시유형학적 접근을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리화선의 『고구려 평상성외성 안의 리방의 형태와 규모 그 전개에 대하여』(북한사화과학원 역사연구소, 『력사과학』, 1989), 주종원·양승우 교수의 『서울시 도심부 도시형태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1), (2)』(국토계획, 1991, 1992), 이경찬 교수의 『필지체계를 통해서 본 도시공간구조의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2) 등이 있다.

이경찬 교수는 『필지체계를 통해서 본 도시공간구조의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주시를 중심으로 필지를 기본단위로 하여 도시형태의 변화과정에 내재된 형태학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 (3) 1990년대 후반까지의 연구동향

#### ① 지방 중소 규모 도시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확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1990년대 중반에는 지방의 중소 규모 도시들의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어갔으며, 대상도시도 더욱 확대되어 대구, 조치원, 청주, 인천, 울산, 전주, 나주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태열의 『도시성장과 도시공간구조의 관계 연구-대구시의 토지이용변화를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박사논문, 1993), 채병선·서종주의 『중소도시의 도시공간특성에 따른 경관형성방안에 관한 연구』(국토계획, 1996), 서종국의 『광역도시권 도시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인천시의 동태적 변화를 중심으로』(국토계획, 1997), 김선범의 『도심부 가로경관의 공간적 특성-울산시 신구 도심부 사례』(대한건축학회, 1997) 등의 연구가 있다.

채병선·서종주는 『중소도시의 도시공간특성에 따른 경관형성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주, 군산, 남원의 공간 특성에 따른 고도규제를 검토하여 지구지정을 통한 경관형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종국은 『광역도시권 도시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인천시의 동태적 변화를 중심으로』를 통해 인천시의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간구조의 변화과정과 기능의 공간적 배치 및 성장과정에 도시구조적 요인이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선범은 『도심부 가로경관의 공간적 특성-울산시 신구 도심부 사례』를 통해 울산시의 도심부 공간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국의 지방중소도시에서 도심부 가로환경에 존재하는 특성을 도출하였다.

## ② 도시공간정책과 관련된 연구진행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진행한 도시공간정책과 관련된 연구 이외에도 서울시의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방향, 도시 내 전통주거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방향 등을 연구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재길 박사의 『도시계획 체계정립 및 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 1993), 최병선교수의 『도시계획법제 개편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 1994), 안건혁 교수의 『2000년대를 대비한 도시정책의 방향』(국토연구원, 1994), 박상우 박사의 『대도시 업무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 1996), 김충환의 『도시재개발 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서울시립대 박사논문, 1994) 등의 연구가 있다.

안건혁교수는 『2000년대를 대비한 도시정책의 방향』을 통해 한국 도시공간의 환경 수준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도시공간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충환은 『도시재개발 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해 한국의 도시재개발 정책의 형성과정, 집행유형 및 문제점을 연구·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현실에 맞는 도시재개발 방안을 모색하였다.

## ③ 신도시 계획기법 등에 관한 연구진행

1980년대 후반 수도권 주변에 1기신도시를 건설함에 따라 신도시의 공간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신도시 및 신시가지의 공간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도년 교수의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의 도시설계지침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4), 박기조의 『신도시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 박사논문, 1995), 『신도시계획에 있어서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국토계획, 1997), 안건혁 교수의 『자족적 신도시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국토계획, 1997) 등이 있다.

김도년 교수는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의 도시설계지침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도시설계의 계획목적과 계획과정에 근거한 도시설계지침과 개별 건축행위의 차이를 분석하여 도시설계지침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



였다. 박기조 박사는 「신도시계획에 있어서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신도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획인구, 토지규모, 모도시와의 거리, 토지이용, 인구밀도 등에 관하여 유형별 특성을 고찰하였다. 안건혁 교수는 「자족적 신도시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신도시 인구 규모를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산출하고 이들을 비교·검토하였다.

#### ④ 외국도시에 대한 연구 및 한국 도시와의 비교연구

1994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동양 도시사 속의 서울』을 발간하면서 동아시아 도시와 서울의 비교연구를 한 데 이어서 한국의 도시와 외국의 도시를 비교연구하는 연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외국의 도시구조 자체에 대한 연구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최상철 교수 외 여러 연구진이 참여한 『동양 도시사 속의 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이우성의 「중국과 우리나라 도성의 계획원리 및 공간구조의 비교에 관한 연구」(서울학연구소, 1995), 이진영·배순석의 「한국 수도권과 일본 동경권의 토지이용 패턴의 비교분석」(국토계획, 1996), 이경찬의 「고대 중국 격자형 토지구획법의 변용 계열에 관한 연구」(국토계획, 1997) 등이 있다.

이진영·배순석은 「한국 수도권과 일본 동경권의 토지이용 패턴의 비교분석」을 통해 수도권의 토지이용 패턴과 동경권의 토지이용패턴을 비교분석하고, 한국에서 수도권의 토지이용 패턴의 형성에 끼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 ⑤ 지속 가능성 등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지속 가능성, 환경친화형 계획기법 등 한국의 도시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 김수봉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효과적 도시환경계획의 방법에 관한 연구」(국토계획, 1996), 이재준·이규인의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의식조사를 통한 계획방향설정 연구」(국토계획, 1996) 등이 있다.

#### ⑥ 도시공간구조, 도시구성원리, 경관연구의 지속적인 진행

서울 등 기존 주요 연구대상에 대한 연구와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연구, 도시구성원리에 대한 연구, 경관에 관련된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주요 연구자들을 배출하면서 진행되었다. 특히 1994년 서울정도 600년을 기념하여 서울에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1994년부터는 서울에 관련된 연구들만을 중점적으로 모으는 『서울학연구』를 서울학연구소가 지속적으로 발간하기 시작하여 도시, 건축, 지리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서

울에 관련된 연구들을 수록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이상구 교수의 『조선후기 도시입지형태의 연구』(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3), 이원교 박사의 『전통건축의 배치에 관한 지리체계적 해석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3), 양승우 박사의 『조선후기 서울의 도시조직 유형연구』(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4), 김동욱 교수의 『조선후기 서울의 도시/건축』(서울학연구, 1994), 김한배 교수의 『한국 도시경관의 변천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199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인 이태진 교수의 『18-19세기 서울의 근대적 도시발달양상』(서울학연구, 1995) 등이 있다.

#### (4) 200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동향

##### ① 기성도시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연구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신도시 건설과 함께 기성 시가지의 물리적 환경 쇠퇴가 새로운 도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도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여러 가지 재개발 수법에 관한 연구나 도시 정비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로는 서충원의 『서울시 도심재개발 수단으로서의 공공주도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1998), 최막중·나강열의 『기능수복형 도시재개발 : 신림동 순대음 식업 사례연구』(국토계획, 1999), 양윤재·양승호·배웅규의 『소단위 적응형 재개발수법연구』(한국도시설계학회, 2000), 박홍식의 『대도시 내부시가지의 변천과 전략계획적 도시재정비 방향에 관한 연구-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대구대학교 박사논문, 2001), 배웅규의 『지구단위의 도시정비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1) 등이 있다.

양윤재·양승호·배웅규는 『소단위 적응형 재개발수법연구』에서 과거의 정비수법의 한계를 인식하여 소단위 적응형 재개발수법의 개념을 제시하고 서울 종로 관수동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박홍식은 『대도시 내부시가지의 변천과 전략계획적 도시재정비 방향에 관한 연구-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도시정비 또는 재개발 측면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들의 내용과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도시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배웅규는 『지구단위의 도시정비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에서 제도와 사례를 통한 실태 파악 후 주민참여가 도시정비를 위한 유용한 계획논리로 정립하기 위한 요건을 파악하였다.

## ② 지방 대도시에 대한 연구활성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과정이나 토지이용체계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황영우의 『부산시 토지이용 패턴의 종합적 분석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박사논문, 1998), 도영준의 『광주시 도시공간구조의 형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박사논문, 2000), 이성호의 『도시계획사를 통하여 본 부산시 공간구조의 변천과정』(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0), 유상혁의 『도시공간구조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대전광역시를 사례로』(대전대학교 박사논문, 2000), 장찬호의 『대도시 중심시가지의 토지이용전환 모델 연구-대구시 사례』(영남대학교 박사논문, 2002) 등이 있다.

이성호는 『도시계획사를 통하여 본 부산시 공간구조의 변천과정』에서 부산시의 입지적·기능적, 도시체계상의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국가의 정책과 도시계획이 공간구조의 발달 및 변천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그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장찬호는 『대도시 중심시가지의 토지이용전환 모델 연구-대구시 사례』에서 대구시 중심시가지의 토지이용전환 패턴을 분석하고 토지이용전환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대도시 중심시가지의 토지이용전환을 설명하는 현상 모델을 구축하였다.

## ③ 도시 간의 비교연구 활성화

주제도 다양한 한국 도시와의 비교연구, 외국 도시와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남한의 도시와 북한의 도시에 대한 비교 연구와 외국 도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로는 강태호의 『한, 중 역사도시의 도시공간구조 변천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경주, 서안시를 중심으로』(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8), 김종범의 『중국의 도시발달에 관한 역사적 고찰-건국 전을 중심으로』(한국도시지리학회, 1999), 정성태·조세환·오휘영의 『한국과 일본의 역사도시 경관관리법규의 비교-경주시와 나라시의 사례로』(한국조경학회, 2000), 장지연의 『개경과 한양의 도성구성 비교』(서울학연구소, 2000), 한필원의 『한국 씨족마을과 중국 수향마을의 공간구조 비교연구-사회시설의 건축적 성격을 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 2000), 김영재·최정환·한동수·동정근의 『해방이후 서울과 평양의 도심공간구조와 그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공간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 2001) 등이 있다.

강태호는 『한·중 역사도시의 도시공간구조 변천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경주, 서안시를 중심으로』에서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경주와 서안에 대해 각

각 형성원리와 도시공간구조, 변화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김종범은 『중국의 도시발달에 관한 역사적 고찰-건국 전을 중심으로』에서 중국 건국 전의 도시발달상황을 입지적 특성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동시에 시장과 이방제의 변화도 추정하였다. 한필원은 『한국 씨족마을과 중국 수향마을의 공간구조 비교연구-사회시설의 건축적 성격을 중심으로』를 통해 두 마을유형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사회시설의 공간구조적 성격을 비교·고찰함으로써 동아시아 전통마을의 공간구조가 갖는 독자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 ④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제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연구방법이 아니라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공간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이나 GIS를 활용한 연구방법론이 제안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장동국·박강철의 『공간구문모델에 의한 한국전통마을 공간구조분석-낙안, 하회, 양동마을을 중심으로』(2000, 대한건축학회), 이우형·김영옥의 『서울의 도시공간구조와 기능의 변천에 관한 연구-Space Syntax를 이용한 공간구조 분석을 중심으로』(2001, 한국도시설계학회) 등이 있다.

장동국·박강철은 『공간구문모델에 의한 한국전통마을 공간구조분석-낙안, 하회, 양동마을을 중심으로』의 연구에서 계획된 마을(낙안)과 자연발생적인 마을(양동)의 차이점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우형·김영옥은 『서울의 도시공간구조와 기능의 변천에 관한 연구-Space Syntax를 이용한 공간구조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서울의 전체 지역에 대한 공간구조분석을 정량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김영옥 교수는 Space Syntax 한국연구본부를 운영하는 등 국내 많은 도시에 대해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 ⑤ 한국적 도시공간구조 및 구성원리 등에 대한 모색

한국의 전통적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공간구조를 해석하고 구성원리를 도출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기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로는 김영모의 『전통공간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1998), 조정송·황기원·박재길의 『한국 도시경관의 새로운 계획』(한국조경학회, 1999), 임창복·신중진·김형수·노정현의 『한국적 도시주거지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2002), 권영휴의 『한국 전통주거환경의 풍수적 해석 및 입지 평가모델 개발』(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2) 등이 있다.

조정송·황기원·박재길은 『한국 도시경관의 새로운 계획』에서 도시경관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의 한 국면으로 미학적 사고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임창복·신중진·김형수·노정현은 『한국적 도시주거지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건물, 획지, 가구, 블록의 일체적인 고찰을 통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주거지 모형을 제안하였다.

## (5) 2000년대 후반까지의 연구동향

### ① 연구의 공간적 범위의 다양화

대도시, 지방 중소도시에서 전통마을, 중국의 조선족 마을에 이르기까지 연구 대상지역이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최장순의 『왕곡마을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2005), 이명옥의 『중국 연길시의 도시화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도시지리학회, 2006), 신행우·김영옥의 『수원시 도시성장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연구』(한국도시설계학회, 2007) 등이 있다.

최장순은 『왕곡마을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자연지리 및 사회문화적 요소와의 관계에 의해 마을의 공간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신행우·김영옥은 『수원시 도시성장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연구』에서 space syntax를 사용하여 수원시 공간구조의 변화 과정과 그에 따른 도심 이동 및 구도심 쇠퇴 현상을 해석하였다.

### ② 도시재생, 도심활성화 연구

기존의 도시재개발에 의한 도시 정비 전략이 도시재생, 구도심활성화나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전환되면서 이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주요 연구로는 김도년·배웅규의 『기성시가지 상업지의 도시·건축여건을 고려한 환경개선형 도시설계기법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2003), 윤정란의 『한·일 지역도시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 연구-전주시와 가나자와(金澤)시를 중심으로』(한국도시설계학회, 2005), 박영달의 『도시재생 차원의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인하대학교 박사논문, 2006), 김영근의 『지방도시의 도심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전주대학교 박사논문, 2006) 등이 있다.

김도년·배웅규는 『기성시가지 상업지의 도시·건축여건을 고려한 환경개선형 도시설계기법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기성시가지의 도시 및 건축적 여건을 감안한 환경개선형 도시설계기법을 제안하였다. 윤정란은 『한일 지역

도시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 연구-전주시와 가나자와(金澤)시를 중심으로』에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적 측면에서는 법, 제도, 예산지원 기반 마련을, 사업 및 계획적 측면에서는 중심시가지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 ③ 가로 공간의 경관, 도시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증가

도시 가로공간에서 발생하는 도시활동이나 경관·이미지 창출 등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가로공간의 경관 개선이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건축과의 관계를 고려한 도시공간 연구나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윤종국의 『환경인지적 관점에 따른 가로경관계획방향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박사논문, 2003), 조홍정·박춘근의 『중소도시 가로경관의 선호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2004), 강경호의 『블록형 집합주택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에서의 정착화 방안 연구』(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05), 최두호의 『주거단지 계획 이론의 변천과 계획요소의 특성 연구-국내 주거단지를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07) 등이 있다.

조홍정·박춘근은 『중소도시 가로경관의 선호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가로정비사업을 실시한 사례 대상의 도시가로공간과 가로변건축물의 특성을 고찰하여 가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와 보행자 심리구조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최두호는 『주거단지 계획 이론의 변천과 계획요소의 특성 연구-국내 주거단지를 중심으로』에서 외국의 단지계획 이론과 계획요소가 우리나라 단지계획에 끼친 영향과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계획 과정과 변천 특성을 분석하였다.

### ④ 생태, 친환경, 지속 가능성 등 도시공간 구성원리에 대한 관심 지속

풍수이론, 문헌조사, 전통마을의 사례 등을 통해 생태, 친환경, 지속 가능성을 한국의 도시공간에 구현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권선정의 『풍수의 사회적 구성에 기초한 경관 및 장소 해석』(한국교원대 박사논문, 2003), 서기영·임상인의 『전통주거지에 내재된 지속가능한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2004), 전영욱·이상문의 『한국 전통도시의 생태적 계획원리에 관한 연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한국형 생태도시계획을 위한 전통도시 생태원리의 현대적 해석』(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이 있다.

서기영·임상인은 『전통주거지에 내재된 지속가능한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전통주거지를 대상으로 물리적 요소, 사회경제적 요소, 역사문화적 요소

로 구분하여 지속 가능한 계획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전영옥·이상문은 『한국 전통도시의 생태적 계획원리에 관한 연구』에서 조선시대 사료고증을 통해 전통도시의 생태계획 요소와 구성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생태도시계획을 위한 전통도시 생태원리의 현대적 해석』에서 현대에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추출하여 현대적 생태요소를 구성하였다.

## 2) 과제와 전망

### (1) 사회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

기존에 진행된 한국의 도시공간과 관련된 연구성과들을 살펴보면 기관별,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인구저성장, 도심부 재개발, 상향식 계획패러다임 등 사회의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연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도시재생, U-Eco도시와 같은 미래형 첨단 도시공간의 개발, 도시정비나 도시쇠퇴와 같이 인구저 성장에 따른 공간구조변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친환경·CO<sub>2</sub>절감·기후환경협약 등 미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지방연구원들의 경우 각 지역의 구체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대상으로 보다 실증적이고 현실적응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도시변화나 도시성장·쇠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으며, 지방대학의 연구진들에 의해서도 이러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 친환경성, 정보화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계획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최근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회의 경우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성과를 아우르는 방대한 양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건축학회와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진행되는 연구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건축학회의 경우 도시공간구조, 도시구성요소, 경관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고, 국토도시계획학회의 경우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연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도시설계학회의 경우 2000년에 설립되어 많은 양의 연구는 아니지만 최근 도시정비·쇠퇴·재생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변화에 따른 도시설계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변화의 경향이 한국의 도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일부 보이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도시설계 패러다

임에 대한 변화를 연구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연구가 한국의 도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 (2) 일본 및 중국 도시연구 분야와 교류 필요

일본, 중국의 경우 기존의 도시가 지니는 전통이 있는 상황에서 서양의 근대 도시이론을 접목했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도시적 상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본학자들에 의한 한국도시연구가 많고, 한국에서 일제시대 때 진행된 일련의 도시개조사업들이 일본인들이 진행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이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운동과 같은 새로운 조류의 도시이론들이 일본에서 우리보다 먼저 진행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상황을 반증한다.<sup>122)</sup>

일본과 중국의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sup>123)</sup> 일본의 경우 ‘공간구조’자체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도시재생, 마찌쓰꾸리와 같은 도시의 ‘변화 및 제도’와 관련된 연구가 최근 들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 도시에 대한 광역적 연구보다는 이미지나 경관, 미시적인 도시구성요소의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한국에서도 최근 연구경향을 조사한 결과 점차 비슷한 경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경우 1970~1980년대에 많이 진행되었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중국의 경우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개발이 진행되고, 중국의 도시에서 구성원리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기존도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충분하지 않고 신도시에 대한 수요가 많은 한국의 경우 이러한 도시구조나 구성원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일본에서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이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같은 유형의 연구들은 아직까지 많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적 전통 및 변화과정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고 인적·물적 교류가 점차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과 중국, 더 나아가서는 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까지 아울러서 도시연구성과에 대한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122) 이와 관련해서는 와타나베 순이치(渡邊俊一)교수(동경과학대)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유사한 비교도시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와타나베 교수의 경우 최근 일본, 한국, 대만의 도시계획에 대한 비교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123) 일본과 중국의 연구동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특성과 방향 모색이 가치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외국이론의 해석과 자생적 이론의 도출

한국의 도시를 조성하는 데 외국이론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한국형 압축도시 모형정립’ 등 이른바 외국도시이론의 한국적 모델 개발이 다수 진행되었으며 주로 외국에서 학위를 한 연구자의 경우 이러한 연구의 성격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자생적 이론은 아직 체계적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외국의 도시계획 헌장이라 할 수 있는 아테네헌장(1933), 맞추픽추헌장(1977), 메가리드헌장(1994)의 경우 모두 단순모방을 경고하고 역사·문화·개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24)</sup>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외국 도시이론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한국적 도시상황에 맞고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생적 이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4) 학제 간 통합연구의 필요성 제기

최근 들어 많은 학문과 지식을 연구하는 분야들이 서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물리적인 공간환경을 다루는 도시, 조경, 건축 분야에서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 조경,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학, 경제학, 철학, 미학, 예술 분야에서도 공통적인 화두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한국성 담론에 대한 논의와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성과들에 대한 조사결과 각 분야에서 한국적 공간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들이 서로 심층적인 교류 없이 진행된 측면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학제 간의 통합연구는 학문 간의 교류경향, 통합논의 등 최근의 학문적 이슈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낸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적 도시공간의 틀을 짚고 풍성하게 만들어내기 위해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연구방향이 기대된다.

124) 최병선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다음으로 우리의 도시계획이 추구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와 현실에 뿌리를 둔 이론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 점에서 3개 도시계획헌장은 모두 단순 모방을 경고하고 역사·문화·개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자체이론 개발이 매우 빈약한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외국의 선진이론을 무작정 배척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자적 이론이 단시일에 정립될 수도 없다.” 최병선, 도시계획헌장을 통해 본 계획사조의 변화, 국토계획, 2001. 10



# V.

## 결론 및 향후과제

1. 결론

2. 향후 연구과제

( a u r i

# 결론 및 향후 과제

## 1

### 결론

#### 1) 주요 결론

현재의 한국 도시공간에 정체성이 부족한 측면은 예전부터 지적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일회적이고 즉흥적인 정책방향, 외국의 이론은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 학회, 연구소 등의 운영기간이 상당히 되었음에도 건축·도시공간 분야에서의 연구성과에 대한 고찰 및 평가 등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한국적 도시공간의 모색에 대한 연구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향후 방향 설정을 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이유가 되었다. 문제점은 지리학, 인문학, 순수과학, 타 공학 분야에서 이러한 연구사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공간에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전시대에 있어왔던 도시적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서 이 시대와 이 공간에 적합한 한국적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과제들에 대한 기초적 조사연구 성격으로 기존에 진행된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논의와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들을 조사하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결과 전문 저널 등을 통해 진행된 담론적 성격의 논의들의 경우 특히 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가 진행되었으며, 크게 1960년대말~1970년대초, 1980년대 말, 1990년대 말로 구분되어 주요 논의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의 시기에 주로 논의된 내용은 ‘한국적’이라는 논의를 ‘전통성’에 대한 논의와 동일시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형태적·공간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특성’을 찾아서 현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점차적으로 ‘한국적’이라는 의미의 논의들이 ‘전통성’을 포괄하여 ‘동시대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논의로 확장되기 시작하였으며, 미학, 철학 등의 인문학과 디자인, 미술 등 기타 조형 예술 분야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의 도시공간 관련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해방 이후 초창기에는 한국의 도시(마을을 포함)공간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한국 도시의 구성원리에 대한 다양한 고찰, 연구대상의 다양화 등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부터 진행된 한국 도시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 도시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연구는 도시공간구조, 형태, 구성요소, 경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점차 세부적인 구성요소와 경관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한국 도시의 구성원리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도시의 상징체계나 원형적 형태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인구·사회구조의 변화가 도시공간구조에 반영되는 양상을 검토하는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연구가 발전되는 양상이 조사되었다. 셋째, 한국 도시의 변화, 성장, 쇠퇴, 정비, 재생, 살고 싶은 도시 등 기존의 도시구조에서 점진적인 변화양상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인접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도시의 구성원리, 기존도시와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으며, 일본은 경관, 도시의 세부적인 조직, 기존 도시의 재생, 마찌쯔꾸리 등의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 한국은 점차 인구저성장 시대에 돌입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점차 일본과 유사한 주제의 연구들이 늘어났으며, 신도시정책 등의 영향으로 도시개발 및 도시구조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 2) 기대효과 및 연구의 한계

2000년대 들어 국가 간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선진국들은 자국만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상향식 도시계획, 옹호주의 계획(advocacy theory), 협력적

계획이론(collaborative planning), 뉴어바니즘(New Urbanism) 등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계획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각각의 도시는 보다 더 정체성을 가지고 문화적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절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단편적으로만 논의가 진행되었을 뿐 지금까지 근대 이전에 만들어진 도시들에서부터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시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으나 한국도시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한국의 도시공간서의 방향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혼란스럽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앞으로 지속되는 연구들을 위한 기초적 조사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진행되었다. 따라서 독립된 연구라기보다는 향후 진행될 연구를 위한 사전조사 성격의 연구로서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가지는 성과라면 첫째, 지금까지 도시 관련 주요학회 및 전문 분야에서 논의되고 연구된 연구들의 연구사를 구축하는 것이며, 둘째, 관련연구 및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해서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일관된 진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한국적 도시구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향후에 진행되는 본격적인 후속연구과제들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국토·도시·조경·건축 등 공간환경 분야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인문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정책학, 문화인류학 등의 분야도 같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본 연구와 학제 간의 통합 연구 이전의 연구라는 측면에서 도시·건축 분야의 연구에 대해 제한적으로 조사했으며 앞으로 한국적 도시공간의 구현을 위한 패러다임 모색을 위해 기초적 조사를 제시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들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 도시정비나 신도시 설계과정에 한국적 도시공간을 구현함으로써, 대내적으로 한국 도시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도시 브랜드 제고 및 국가경쟁력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 향후 연구과제

# 2

우선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부 연구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일반 연구자들의 연구경향이 많은 영향을 받은 바(도시재생,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국적 도시공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했다. 일례로 국토·도시·건축과 관련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제공모를 하더라도 공모지침에 수록해야 하는 내용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가 필요한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는 미리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전문연구자들의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적 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의 공간 관련 정책과 지침 등에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성에 대한 논의는 국토·도시·건축과 같은 공간환경과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형성되어 통합적인 국가 이미지를 조성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이미지는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다양한 분야의 학제 간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도 관련 분야 부처 간의 통합된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국토해양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나 지식경제부 등 국가의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부처들에서도 본격적으로 통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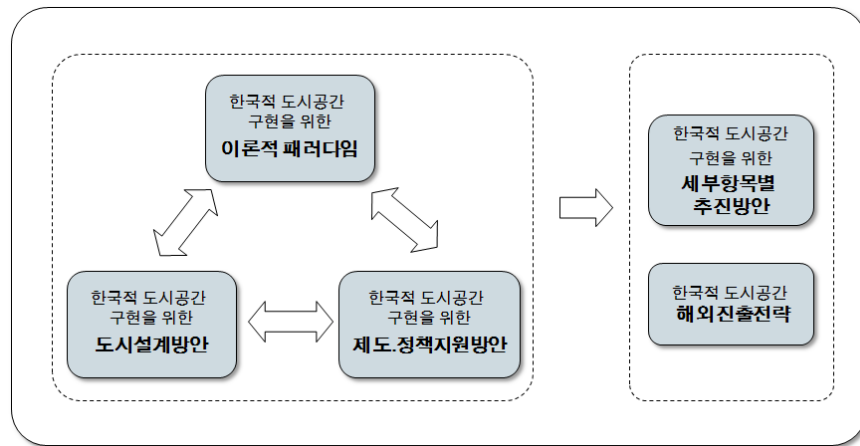
셋째, 각 지자체에서는 명품건축, 명품도시와 같은 허상을 쫓으며 외국의 도시와 건축을 복제할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논의와 연구에 대해 여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담론을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유럽이나 일본의 도시공간과 정책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의 도시공간과 환경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므로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것을 찾고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적 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논의와 연구를 조사·정리 하였다. 첫째,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는 한국적 도시공간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도시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하며 아울러 인문, 사회, 경제, 예술 등 학제 간의 담론을 공유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도시적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담론에

대한 해석과 함께 기존의 도시공간에 대한 해석과 검토 또한 병행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도시공간을 구현하는 프로세스와 계획이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진행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도시적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공간에 구현되어 있는 한국성을 도출하여 한국적 도시공간 디자인 어휘를 도출하고 도시설계의 실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실용적 가이드라인에는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방안, 공공공간과 국토환경디자인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포함하고 이를 위한 계획수립 프로세스와 공공부분이 고려할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도시 관련 제도와 정책방향을 검토해 한국적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도시공간조성의 패러다임을 고려할 때, 시민에 대한 교육, 의견공유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해외에 제안할 수 있는 방안과 세부항목별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시별 추진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24〉 향후 연구과제



· 참고문헌

· Summary

· 부록1

일본 · 중국 도시공간관련 연구현황

( a u r i

## 참고문헌

- 공간, 1987, 한국성 모색의 현재의사, 한국현대건축 : 한국성의 재발견 2
-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2005, 용산기지 공원화 구상 연구
- 권경득, 1996, 한국정책학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30(4)
- 권영상, 2007.7, 한국 건축도시공간의 현재와 미래\_전통건축도시공간의 보전과 현대화, 월간국토
- , 2007.4,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에 나타난 탈중심적 도시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권영걸, 2005, 한·중·일의 공간조영 - 우리의 공간유전자를 찾아서, 도서출판 국제
- 권태준, 2006, 한국의 세기 뛰어넘기, 나남
- 길성호, 1999, 현대건축 사고론, 시공문화사
- 김성우, 1989, 90년대의 전통논의를 생각하며, 공간
- 김윤수·이우종, 1999, 한국 국토·도시계획분야의 연구경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한국, 미국, 일본 도시계획학회지 기고논문(1989~1998)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4(6)
- 김인, 2002, 한국의 학술연구-인문지리학, 대한민국학술원
- 김진애, 1999, 서울성, 서울포럼
- 김재익 외, 2002,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네트워크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2002

- 김찬호, 2000,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과 의사소통이론, 사회발전연구
- 김찬호·이창수·우윤석, 2007, 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발을 위한 한국형 압축도시 모형 정립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2(2)
- 김한배·이규목, 1993, 도시경관연구의 실증적·인간주의적 측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28(4)
- 김홍순, 2006,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과 대안적 계획이론의 모색, 국토연구 제50권
- 남영우·이인용, 2002, 한국도시지리학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5(1)
-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2006,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실천전략 수립 연구
- 문정호 외, 2006,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박재길 외, 2005,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사사키마사유키, 정원창 역, 2001, 창조하는 도시, 소화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동양 도시사 속의 서울
- 서순탁, 1999, 영국 도시계획의 동향, 국토
- 신상섭, 2007, 한국의 전통마을과 문화경관 찾기, 대가
- 안건혁, 1995, 도시설계과정에서 참여자의 역할이 미치는 영향 : 분당 신도시 설계사례를 통한 경험적 연구, 경원대 박론

- 이규목, 2004, 한국의 도시경관, 열화당
- 이춘희, 2007, 21세기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따른 도시형태 연구, 한양대 박론, 2007
- 임서환 외, 2006, 한국적 도시계획 패러다임 모색, 주택도시연구원, 2006
- 전경갑, 1992,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한길사
- 전봉희, 1992, 조선시대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론
- 전상인, 2007. 11, 계획이론의 탈근대적 전환에 대한 비판, 국토계획 제42권 제6호
- 정림문화재단, 2006, 전통과 현대 : 세계화하는 한국성 건축을 위하여
- 정인하, 2006. 12., 한국도시공간의 생성방식, 공간 통권 469호
- 조명래, 2002, 현대사회의 도시론, 한울아카데미
- , 1999. 10, 중소도시의 한국성, 건축문화
- , 200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래상-이념과 비전의 모색, 행정중심복합도시 세미나 자료
- , 2006. 6., 문화정치와 도시계획 발표문
- 최병선, 2001, 도시계획현장을 통해 본 계획사조의 변화, 국토계획학회지, 제36권 5호
- 최정민, 최기수, 2007. 10. 한국 현대 조경의 한국성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5권 4호
- , 2008, 현대 조경에서의 한국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론

탁석산, 2000,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국토해양부,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Christopher Alexander, 1977, Pattern Language

Edmund Bacon, 1969, Design of Cities

François Loyer, 1981, Paris XIXe siècle, l'immeuble et la rue, APUR

Gary T. Johnson, Christopher Silver & Robert Hodder, 1999, A Review of  
Twenty Years of JAPA, APA Journal, AUTUMN

Geoffrey Broadbent, 1990, Emerging Concepts in Urban Space Design

Habermas Jurgen, 1994, Justification and Application; Remarks on Discourse  
Ethics, Cambridge : Polity Press

John Friedman, 원제무·서충원 역, 1991, 공공분야에서의 계획론, 대광문화사, 1991

石田頼房, 2004, 日本近現代都市計画の展開ー1868ー2003, 自治体研究社

高橋康夫, 1993, 図集日本都市史, 東京大学出版会

日本建築学会, 1989, 集合住宅計画研究史

※ 관련 연구 조사연구 성격상 기타 참고문헌은 본문내용 참고

## Preliminary Study on Directions to Realization of Korean Urban Space.

Kwon, Young Sang  
Youn, Chirl Ho  
Ko, Eun Jeong

### **1.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previous discussions on Korean urban space and identify the trends in relevant studies, in preparation for a series of studies planned for the future that are aimed at the realization of Korean urban space and establishment of Korean urban design theories. The study has a nature of preliminary examination for the future studies. Accordingly, this study is composed of three parts: review on previous discussions on Korean urban space, review on previous studies, and sectoral trends in relevant studies and future prospect.

### **2. Review of Previous Theories**

In Chapter Two, the study examines previous theories and discussion on Korean urban space, identifying the trends. The first active debates on Korean urban space occurred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In the 1960's and 1970's, the discussions began through state-led design contest projects which attracted much social interest.

Since the late 1980's, discussions on 'Koreanness' had gradually shifted from cross-historical topics such as interpretation on tradition to topics that are of the same age such as contemporaneousness and modernness in the 1990's and afterwards. According to this study, this led the disputed point to shift from tradition to Koreanness.

### 3. Review of Previous Studies on Urban Space of Korea

In Chapter Three, the study examines previous studies on Korean urban space, identifying the trends by period. In regard of this, the study reviews studies related to urban space of Japan and China, Korea's neighboring countries.

The study has examined, by theme, approximately 600 studies on Korean urban space, which had been conducted over the past 20 years. The results show that most of the studies on 'urban structure' carried out in early stages were on Korean urban structure; however, the number tended to gradually decrease since.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the study on the 'composition principle' was small compared to the entire studies, and furthermore, has tended to gradually reduce since the 2000's. In contrast, studies on 'change and systems' covering such themes as change and growth of a city, urban regeneration, and urban policies and systems, have tended to increase since the 2000's.

In the meantime, the results of the review on sectoral trends in relevant studies show that, research institutes under the umbrella of the central government were actively engaged in studies on laws and policies, and studies aimed to apply foreign theories to urban space and urban policy of Korea. On the other hand, regional research institutes briskly carried out studies on urban structure, urban renewal, and urban regeneration of the region concerned. As for academic societies,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studies are distinctiv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ademic group concerned. In universities, studies that reflect recent issues such as urban regeneration, landscape and urban renewal have begun to gradually emerge.

#### **4. Sectoral Trends of Study and Prospect**

Chapter Four deals with the trends in the sectoral studies and future prospect, given that studies on urban space of Korea are varied depending on different disciplines. First of all, the study points out that, for the study on small villages currently underway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it is necessary to collect and arrange data on villages based on actual survey that are accumulated so far, and explore new data.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find new research methodologies matching the objective of the village research. Coupled with this, an interdisciplinary study between historical science, anthropology, folklore and geography is considered to be required.

In the field of urbanology, it is predicted that studies that present a Korean model will be consistently conducted, following the recent paradigm shift in planning represented in low population growth, redevelopment of urban center and urban regeneration, futuristic urban model development, environment-friendliness, etc. The study raises the need for a home-grown theory on Korean urban space and urban design.

#### **5. Conclusions**

Discussions on Korean urban space are not consolidated but should proceed in the way in



which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community living in this age and in this space can be realized according to the contemporary values. Furthermore, they should continue in the future. In this vein, the study has been carried out as a preliminary study for future studies. For the reason, the study aims to review a variety of research accomplishments on present urban situations of Korea, while unbound to the discussion on Koreanness.

In further studies, it is expected that, an urban paradigm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achieve the grand goal of the realization of Korean urban space. Based on that, studies should be conducted on urban design techniques and planning methods, and eventually urban-related laws and policy directions.

**keyword : Koreanness, Urban Koreanness, Urban Space, Urban Design, History of Studies on Korean Urban Space**

부록 1.

## 일본·중국 도시공간 관련 연구현황

## 1. 조사방법

### 1) 일본의 도시 관련 연구

#### (1) 조사방법

일본의 경우 일본건축학회와 일본도시계획학회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구 주제 및 연구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1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부족한 부분은 일본 건축학회가 2001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는 학술강연대회 논문집CD와 일본도시계획학회가 발행한 논문집 DVD(1966년부터 2005년의 학술논문집 수록)를 입수하여 연구목록 및 논문원본을 조사하였다.

#### (2) 조사 대상

##### ① 1988~2007년의 일본건축학회 계획분야 논문집

일본건축학회는 메이지(明治) 19년(1886년)에 창설된 학회로서 일본 내 건축관련 분야에 서 공인되어 있고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학회이다. 학회 홈페이지, 동아시아건축정보네트워킹,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사이트<sup>125)</sup> 등에서 논문을 검색하고 원본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검토했다.

##### ② 1988~2007년의 일본건축학회 학술강연논문집 도시계획 부문

일본건축학회에서 1년에 1회 개최하는 학술강연대회에서 여러 분야 중 F분야가 도시계획 분야이며 매년 5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건축학회 계획계 논문집과 마찬가지로 학회 홈페이지, 동아시아건축정보네트워킹,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의 사이트 등에서 논문을 검색하고 원본파일을 다운로드하였으며,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2001년부터 2005년, 2007년의 자료는 학술강연논문집 CD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 ③ 1988~2007년의 일본도시계획학회 학술논문집

일본도시계획학회는 쇼와(昭和) 26년(1950년)에 창설된 학회로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가장 공인된 학회이다. 학술논문집(논문심사 후 게재)은 1년에 2회 출간하는데 학회 홈페이지에서는 논문 제목은 검색이 가능하나 해당 논문의 원문은 인터넷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회에서 발행한 학술논문집 DVD(1966-2005년 논문수록)를 입수하

125) • 日本建築学会 <http://www.aij.or.jp/aijhomej.htm>

• 동아시아건축정보네트워킹 <http://www.eaina.org/>

•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http://ci.nii.ac.jp/>

여 분석하였다.

#### ④ 2003~2007년의 일본도시계획학회 보고집

2003년부터 발간된 일본도시계획학회 보고집은 1년에 4회(2월, 5월, 8월, 11월) 출간하는데 최근의 연구동향, 도시 관련 프로젝트의 과정 및 성과를 잘 알 수 있는 논문집이다. 일본 과학기술정보발신의 사이트를 통해서 논문의 제목, 초록은 물론, 원문의 pdf도 제공하고 있어 이것을 참고로 조사하였다.

〈표 13〉 각 조사대상별, 연도별 연구수 (일본)

구분	일본건축학회		일본도시계획학회		합계
	논문집 (심사논문)	학술대회	학술연구논문 (심사논문)	보고집	
1988	4	24	5	-	33
1989	2	26	6	-	34
1990	7	19	1	-	27
1991	2	32	7	-	41
1992	3	23	4	-	30
1993	3	36	3	-	42
1994	9	36	5	-	50
1995	4	36	7	-	47
1996	5	23	11	-	39
1997	16	16	12	-	44
1998	13	11	13	-	37
1999	4	34	4	-	42
2000	5	28	9	-	42
2001	7	24	6	-	37
2002	6	29	9	-	44
2003	8	35	1	3	47
2004	8	26	3	3	40
2005	9	34	6	1	50
2006	4	28	1	1	34
2007	7	16	13	1	37
합계	126	536	126	9	797

## 2) 중국의 도시 관련 연구

### (1) 조사방법

중국의 경우 연구문헌의 검색은 중국학술정보원(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의 인터넷 사이트([www.cnki.net](http://www.cnki.net))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학술정보를 활용하였다. CNKI는 중국의 Digital Resources System을 구축하기 위해 1998년 중국정부와 청화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한 프로젝트이며 종합적이고 권위 있는 중국학술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DB로서 중국 240여개 대학에서 제공한 10만 건의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기관이나 정부기관의 회의록 10만여 건 등이 있다.

중국의 도시공간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건축, 도시, 지리학 분야의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주요 대학의 관련 전공 석·박사 학위논문, 단행본 등을 조사하였다<sup>126)</sup>.

### (2) 조사대상

#### ① 학회지 게재 논문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 1995년에서 2007년까지는 그 양이 방대하여 일차적으로 ‘도시 & 공간’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후, 검색된 결과 중에서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적절하고 한국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을 위주로 이차 선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1994년 이전으로 내려가면 키워드 검색 결과 수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건축·지리 분야의 핵심 학회지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 건축학보, 지리학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논문을 선정하였다.

#### ② 학위논문

학위논문은 관련 전공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청화대학, 동제대학, 절강대학, 천진대학, 동남대학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조사했다.

#### ③ 단행본

단행본의 경우 중국의 도시공간에 관련된 연구나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한 서적이 많으나 세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여 조사했다.

126) 한국의 연구동향 조사 대상에 포함된 조경 분야와 유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원림학은 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원림학이 전통 원림조경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다루는 공간 범위가 도시로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주로 식재 연구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14〉 각 조사대상별, 연도별 연구수 (중국)

구분	중국건축학회	중국도시 계획학회	중국지리학회	대학	기타	합계
1988	2	6	1	-	-	9
1989	1	8	1	-	-	10
1990	3	10	1	-	-	14
1991	5	9	-	-	-	14
1992	5	8	1	-	-	14
1993	3	5	1	-	-	9
1994	5	5	3	-	-	13
1995	5	14	2	-	-	21
1996	4	15	2	-	1	22
1997	8	8	4	-	-	20
1998	4	12	3	-	-	19
1999	7	10	4	-	-	21
2000	2	13	6	-	2	23
2001	6	15	3	-	-	24
2002	8	12	3	-	2	25
2003	6	18	2	2	2	30
2004	10	10	1	9	2	32
2005	11	28	4	9	3	55
2006	6	9	4	4	9	32
2007	11	6	3	5	11	36
합계	112	221	49	29	32	443

〈표 15〉 중·일 연구대상 범위

구분		연구대상학회지		성격				조사 대상 연도	조사 편수
				발행 주기	발행 지역	설립 연도	등급/성격		
중국	도시 계획 학회	城市規劃 도시계획	중국도시계획학회	매월	북경	1977	中国期刊方阵来源刊, ASPT来源刊, 中国期刊网来源刊, 2004年度核心期刊	'88~07	221
		城市規劃 도시계획간	同濟大學 (建築城規學院)	격월	상해	1957	ASPT来源刊, 中国期刊网来源刊, 2004年度核心期刊	'88~07	
	건축 학회	建筑学报 건축학보	중국건축학회	매월	북경	1954	ASPT来源刊, 中国期刊网来源刊, 2004年度核心期刊	'88~07	112
		时代建筑 시대건축	同濟大學 (建築城規學院)	격월	상해	1984	ASPT来源刊, 中国期刊网来源刊	'88~07	
	지리 학회	地理学报 지리학보	중국지리학회, 중국과학원국가기 획위원회지리 연구소	월간	북경	1934	中国期刊方阵来源刊, ASPT来源刊, 中国期刊网来源刊, 2004年度核心期刊	'88~07	49
		人文地理 인문지리	중국지리학회인문 지리연구소, 서안외국어학원인 문지리전업위원회	격월	섬서성 서안시	1986	ASPT来源刊, 中国期刊网来源刊, 2004年度核心期刊	'88~07	
		经济地理 경제지리	중국지리학회, 호남성경제지리 연구소	격월	호남성 장사시	1981	ASPT来源刊, 中国期刊网来源刊, 2004年度核心期刊	'88~07	
	기타		-	-	-	-		61	
일본	학회 지	일본건축학회		매월	-	1886	-	'88~07	662
		일본도시계획학회		분기	-	1950	-	'88~07	135

## 2. 일본의 도시공간 관련 연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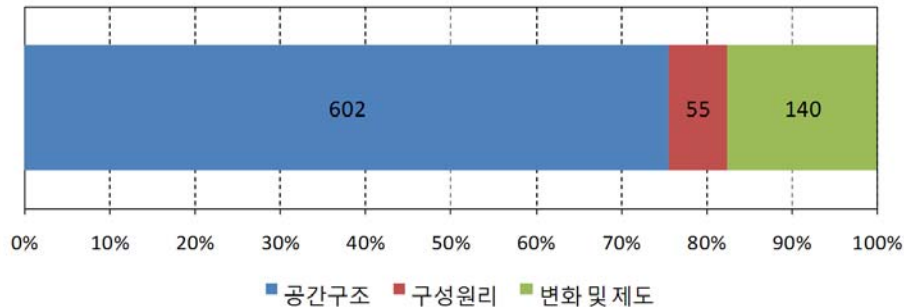
### 1) 주제별 연구현황

#### (1) 주제별 연구현황의 개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 중 일본의 도시공간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된 연구를 ‘공간구조’, ‘구성원리’, ‘변화 및 제도’로 나누어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공간구조’ 연구가 약 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변화 및 제도’ 연구가 약 18%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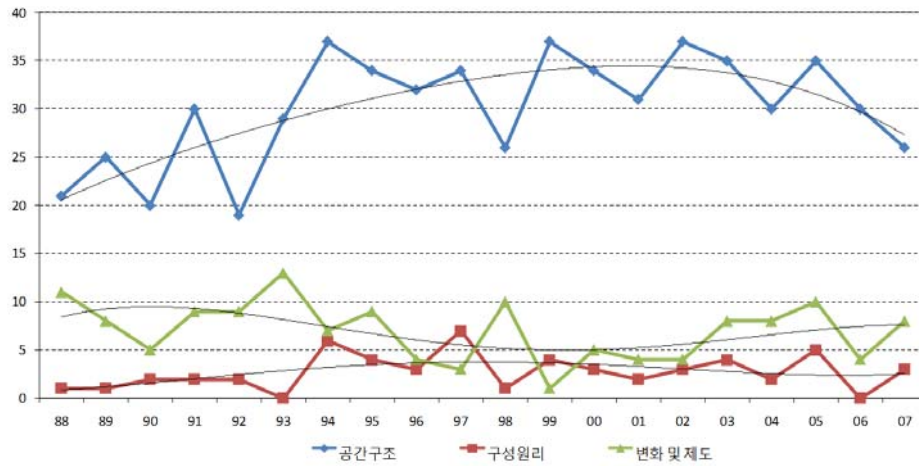
대분류별 연구수의 추이를 보면 ‘공간구조’ 연구의 비중은 2000년대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며 ‘변화 및 제도’ 연구의 비중이 2000년대 이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공간구조’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는 점도 들 수 있겠으나, 도시의 쇠퇴로 인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도심주거와 콤팩트 시티 등의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의 등장 등으로 ‘변화 및 제도’의 연구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분권의 강화와 함께 지방 중소도시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전통적 가로경관의 정비 등이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도 ‘변화 및 제도’ 연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로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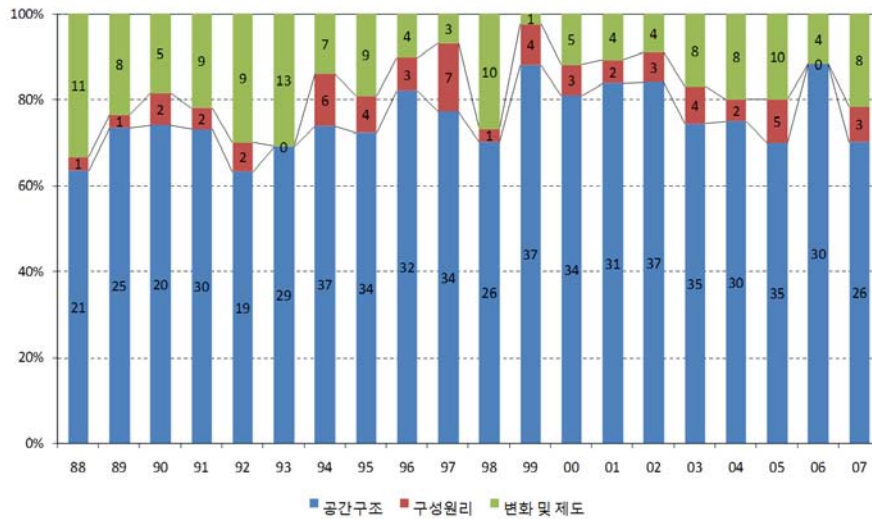


〈그림 25〉 대분류별 연구 비율 (일본)





〈그림 26〉 대분류별 연구수의 추이-1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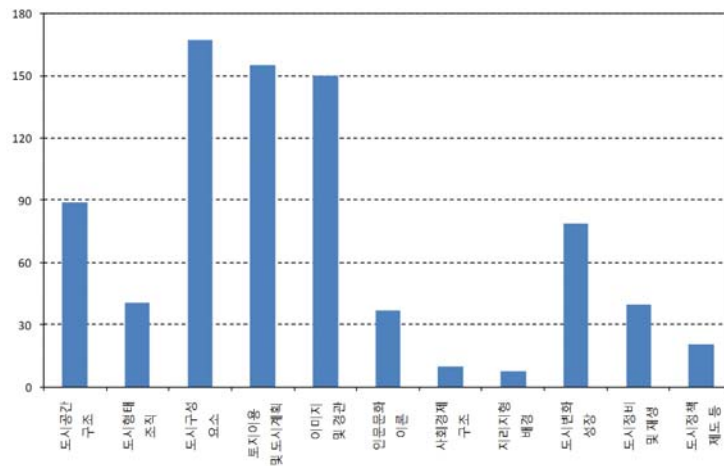


〈그림 27〉 대분류별 연구수의 추이-2 (일본)

주제별 항목에 따라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연구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도시구성요소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경제구조 연구, 지리지형배경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표 16〉 주제별 연구 분포 (일본)

구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합계
도시공간 구조	1	2	3	5	3	3	2	4	7	4	9	4	5	3	8	8	7	5	3	3	89
도시형태 조직	3	4	1	1	2	3	0	2	2	4	0	3	0	0	5	3	1	1	2	4	41
도시구성 요소	2	1	0	6	3	6	9	7	13	8	8	8	9	16	15	8	9	17	14	8	167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2	1	6	1	4	8	5	12	7	10	6	20	17	8	6	12	8	6	7	9	155
이미지 및 경관	13	17	10	17	7	9	21	9	3	8	3	2	3	4	3	4	5	6	4	2	150
인문문화 이론	1	1	2	1	1	0	6	1	1	3	0	2	3	2	2	4	1	5	0	1	37
사회경제 구조	0	0	0	1	0	0	0	1	2	3	0	0	0	0	1	0	0	0	0	2	10
지리지형 배경	0	0	0	0	1	0	0	2	0	1	1	2	0	0	0	0	1	0	0	0	8
도시변화 성장	5	4	4	2	6	11	2	5	1	2	3	0	1	2	3	5	6	6	3	8	79
도시정비 및 재생	4	3	1	4	1	0	4	2	1	1	6	1	3	1	1	2	2	2	1	0	40
도시정책 제도 등	2	1	0	3	2	2	1	2	2	0	1	0	1	1	0	1	0	2	0	0	21
합계	33	34	27	41	30	42	50	47	39	44	37	42	42	37	44	47	40	50	34	37	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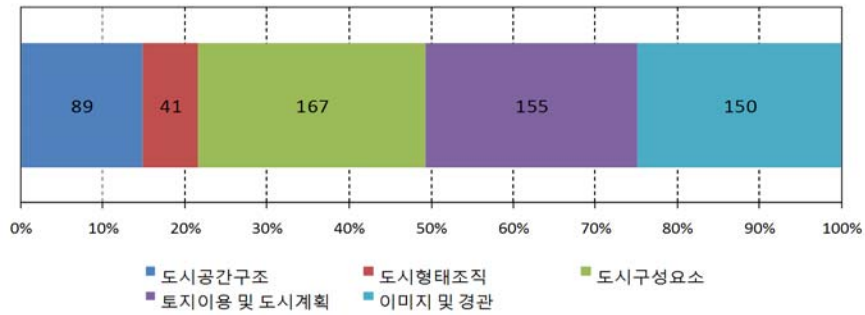


〈그림 28〉 주제별 연구수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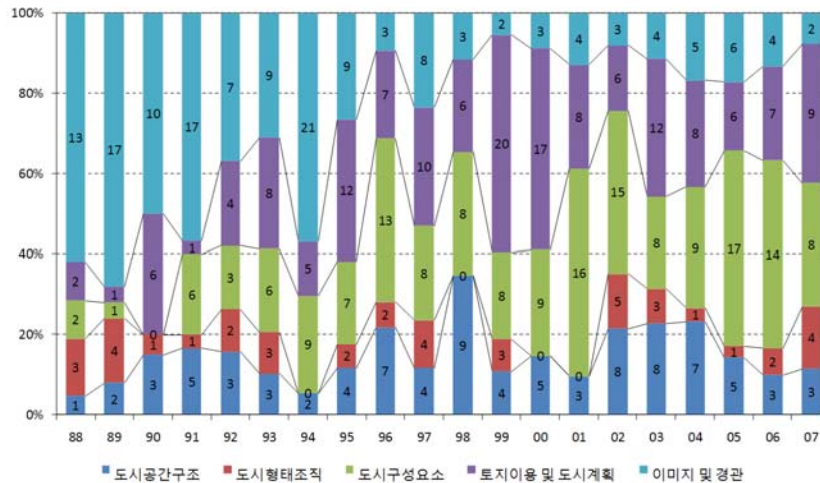
## (2) 주제별 연구현황

### ① ‘공간구조’ 관련 연구현황

일본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 중 ‘공간구조’ 관련 주제 연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도시구성요소 연구의 비율이 27.7%로 가장 많았으며,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연구가 25.7%, 이미지 및 경관 연구가 24.9%의 순으로 되어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이미지 및 경관 연구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이며 도시구성요소 연구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되었다.



〈그림 29〉 [공간구조] 관련 연구현황 (일본)



〈그림 30〉 [공간구조] 관련 연구의 추이 (일본)

## □ 도시공간구조

도시공간구조를 다룬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비도시 지역의 과거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건축물과의 관계로 본 도시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비도시 지역의 과거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sup>127)</sup>에는 지금까지 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천마을, 항구마을, 문젠마치(門前町, 유력한 사찰의 진입부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마을) 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들어 지도 및 역사서 등의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천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건축물과의 관계로 본 도시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sup>128)</sup>에는 도시공간구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만이 아니라 공간구조에 영향을 끼친 요소로서 건축물 및 건축물 용도와 지층 이용패턴 등이 특색 있는 중심시까지 공간구조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한 연구 등이 있으며, 특히 도심 상업지역에서 ‘도시공간의 회유성’의 개념으로 방문자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서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 □ 도시형태조직

도시형태조직을 다룬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공간의 공지와 공극(空隙)을 형태학적으로 분석한 연구’<sup>129)</sup>가 많으며, 지금까지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의 분석에서 벗어나 공극을 중심으로 고밀도화한 기성시가지의 도시공간을 분석하고 있다.

## □ 도시구성요소

도시구성요소를 다룬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제례(際禮)공간 또는 제례(祭禮)공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로 등 보행자공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제례(際禮)공간 또는 제례(祭禮)공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sup>130)</sup>에는 근대와 현대의 도시공간

127) 『近世における温泉町の空間構造—加洲江沼郡山中温泉を事例として—』(근세 온천마을의 공간구조,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2003), 『近世における港町の空間構造に関する研究』(근세 항구마을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都市計画学術論文集, 1996) 등이 있다.

128) 『店舗配置にみる都市の空間構造：秋葉原電気街の業種構成にかんする情報量を用いた分析』(점포배치로 본 도시의 공간구조,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1999), 『建物の床利用に着目した熊本中心市街地の空間構造の研究』(건물의 지층용도로 본 쿠마모토 중심시가지의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2003-2007) 등이 있다.

129) 『店既成市街地における空隙の定量分析—東京のGISデータを用いたケーススタディ—』(기성시가지의 공극의 정량분석점, 日本都市計画学会論文集, 1996), 『都市空間における空地の分布と形態に関する定量的考察—京都市を事例として—』(도시공간의 공지의 분포와 형성에 관한 정량적 고찰, 日本建築学会学術論文梗概集, 2005) 등이 있다.

130) 『都市における祭礼空間の研究』(도시 제례공간의 연구,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1995-2002), 『近代における東京の祭礼空間の変容に関する研究』(근대 동경의 제례공간의 변용에 관한 연구, 都市計画学術論文論文集, 2002) 등이 있다.

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서 전통적인 제례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계승되어 현대에 이르렀는가를 제례공간이 가지는 역사성과 지역성의 측면에서 공간과 지역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가로 등 보행자공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sup>131)</sup>에는 자동차 중심의 사회로 인한 보행공간의 단조로움이 현저해지는 한편, 그와 대조적으로 최근 보행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서 깊은 보행공간을 대상으로 공간적 특징과 변화 과정 등을 다룬 연구, 관광도시의 로지(露地, 골목길) 공간의 특징과 유효이용을 다룬 연구 등이 보인다.

#### □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2001년의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계기로 지방의 실정을 바탕으로 한 토지이용규제가 가능해진 점을 배경으로 한 ‘토지이용 현황의 변화 및 현황에 관한 연구’<sup>132)</sup>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시가화 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을 나누던 제도에서 도시계획구역의 재편 및 새로운 토지이용규제가 도입된 지역을 대상으로 제도 변경 전후의 중심시가지와 교외의 토지이용 변화를 공간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토지이용규제의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일련의 연구로서 ‘근세 조우카마치(城下町, 성을 중심으로 성립된 도시)의 도시설계수법에 대한 연구’<sup>133)</sup>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 이미지 및 경관

이미지 및 경관을 다룬 연구는 역사적 지구의 가로경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역사적 가로경관의 현황에 관한 연구’, ‘역사적 시가지의 경관평가와 계획수법에 관한 연구’, ‘역사적 가로경관의 변용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역사적 가로경관의 현황에 관한 연구’<sup>134)</sup>는 전통적 건축물군 보존지구를 중심으로 역사적 건축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건축물의 보존 및 경관의 정비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있다.

131) 「歴史的歩行空間における空間の魅力性に関する研究」(역사적 가로공간의 공간적 매력성에 관한 연구, 日本建築学会学術論文梗概集, 2003), 「街路空間の有効利用に関する研究 : 横浜市「鶴見西口オープンカフェ」の事例を通じて」(가로공간의 유효이용에 관한 연구, 日本建築学会学術論文梗概集, 2000) 등이 있다.

132) 「地方都市の市街化調整区域における開発行為と土地利用変化の相関に関する研究—愛知県一宮市を対象に—」(지방도시 시가화조정구역의 개발행위와 토지이용변화의 상관에 관한 연구,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2004), 「香川県線引き廃止に伴う土地利用動向に関する研究」(카가와 현 구역지정제도 폐지에 따른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연구,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2006) 등이 있다.

133) 「近世城下町の都市設計手法に関する研究」(근세 조우카마치의 도시설계수법에 관한 연구,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1995-1998), 「近世大坂城下町の構成と形成過程に関する研究」(근세 오사카 조우카마치의 구성과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2000, 2002)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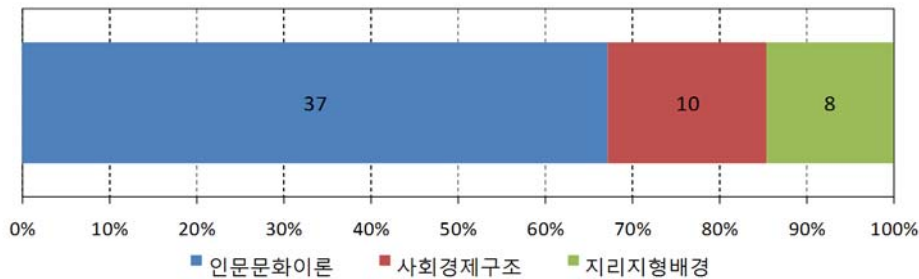
134) 「東海地方(愛知県・三重県)における歴史的町並みの現状と課題に関する研究: 伝統的建造物群保存対策調査実施地区を対象として」(동해지방의 역사적 가로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日本建築学会学術論文梗概集, 1995) 등이 있다.

‘역사적 시가지의 경관평가와 계획수법에 관한 연구’<sup>135)</sup>는 역사적 환경이 융화된 도시경관의 형성요인을 찾아 시각적인 경관 보전수법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축고도규제에 대한 계획수법을 제안하고 있다.

‘역사적 가로경관의 변용에 관한 연구’<sup>136)</sup>는 경관의 변용 과정을 추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며 최근의 중심시가지 상업지의 경제적 쇠퇴, 지구주민의 고령화, 인구감소에 의한 전통행사 존속의 곤란과 커뮤니티의 붕괴 등을 배경으로 한 건축물의 쇠퇴와 근대건축물의 혼재로 인해 역사적 가로경관이 상실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② ‘구성원리’ 관련 연구현황

‘구성원리’ 관련 주제 연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인문문화이론 연구의 비율이 67.3%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경제구조 연구가 18.2%, 지리지형배경 연구가 14.5%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림 31〉 ‘구성원리’ 관련 연구현황 (일본)

### □ 인문문화이론

인문문화이론 연구에서는 고대 및 근대도시를 주된 대상으로 도시구조를 분석한 ‘풍수사상에 관한 연구’와 ‘조우카마치의 설계이론에 관한 연구’, 현대도시를 주된 대상으로 도시공간을 분석한 ‘도시해석이론에 대한 연구’가 많다.

‘풍수사상에 관한 연구’<sup>137)</sup>는 고대 및 근대도시의 당시의 도시계획이론이었던 풍수사상을

135) 「歴史的都市における都市景観評価と計画手法に関する研究-山並み眺望景観の保全と建築高度規制に関する研究-京都市・奈良市・鎌倉市-」(역사적 도시의 도시경관평가와 계획수법에 관한 연구, 都市計画学術論文集論文集, 1997) 등이 있다.

136) 「歴史的都市における景観要素の変容に関する研究 山口県萩市を対象として」(역사적 도시의 경관요소의 변용에 관한 연구, 日本建築学会学術論文梗概集, 2005) 등이 있다.

137) 「風水思想からみた古代都計画の研究 (3)」(풍수사상으로 본 고대수도계획의 연구, 日本建築学会学術論文梗概集, 1994), 「風水理論の都市計画的な位置づけに関する研究」(풍수이론의 도시계획적 가치에 관한 연구, 日本建築学会学術論文梗概集, 1997) 등이 있다.

이용하여 도시구조 및 구성요소의 불명확한 부분을 밝히려고 한 연구가 많다.

‘조우카마치의 설계이론에 관한 연구’<sup>138)</sup>는 조우카마치의 도시 축과 주요시설, 도로구획, 모듈 등의 설계이론의 고찰을 통하여 현대 도시 형성의 골격이 된 토지의 역사와 지역의 개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해석이론에 대한 연구’<sup>139)</sup>는 현대도시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도시계획사업 방향성 제시를 위해 회유성, 도시의 컨텍스트, 공간위상 등으로 도시공간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 □ 사회경제구조

사회경제구조 연구는 ‘산업화 및 공업화에 관한 연구’<sup>140)</sup>가 수편 있으며, 근대 일본의 도시화의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산업화 및 공업화에 주목하여 산업화 및 공업화에 따른 물적 측면에서의 도시변용과 산업기반정비가 어떻게 도시공간을 변용시켜 왔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 □ 지리지형배경

지리지형배경 연구는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지형적 특성의 영향에 관한 연구’<sup>141)</sup>가 대부분이며, 도시의 공간구조 및 공간특성의 조건으로 자연적 조건과 인공적 조건으로 나누고 자연적 조건의 원인의 하나인 지형조건을 바탕으로 도시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많다.

또한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매력적이고 개성적인 생활공간이 도시의 근대화에 의한 자동차도로 등으로 저해되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는 연구도 보인다.

138) 『近世城下町の設計原理に関する研究』(근세 조우카마치의 설계이론에 관한 연구, 日本建築学会学術論文梗概集, 2000-2002)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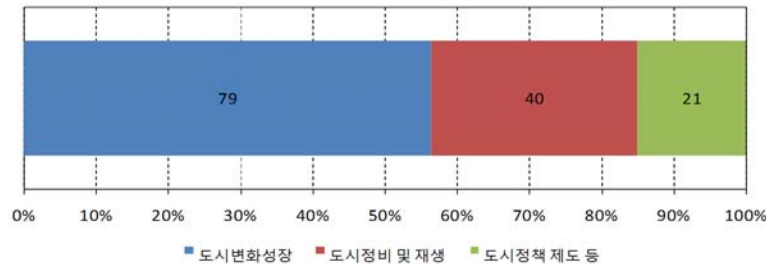
139) 『回遊性による都市空間の解析・まちの発展性に関する考察-和歌山市ぶらくり丁における商業核を中心とする回遊性に関する研究-』(회유성에 의한 도시공간의 해석과 지역의 발전성에 관한 고찰-와카야마 시 부라쿠리지역의 상업핵을 중심으로 하는 회유성에 관한 연구-, 日本建築学会学術論文梗概集, 2000), 『スペース・シンタックス理論による空間位相構成の抽出とその比較に関する研究-京都における町家と露地の解析とその比較を事例として-』(스페이스 신택스 이론에 의한 공간위상구성의 추출과 비교에 관한 연구-교토의 마치야와 로지의 해석과 비교를 사례로-,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2005) 등이 있다.

140) 『在来産業の近代工業化が都市空間の変容に及ぼした影響-野田の醤油醸造業を事例に-』(재래산업의 근대공업화가 도시공간의 변용에 끼친 영향-노다 지역의 간장제조업을 사례로-,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2002) 등이 있다.

141) 『東京の微地形に関する研究』(동경의 미지형에 관한 연구, 日本建築学会学術論文梗概集, 1999), 『沿岸都市における原地形を用いた景観要素の把握に関する研究-福岡城跡および史跡周辺地域を対象として-』(연안도시에서 원지형을 이용한 경관요소의 파악에 관한 연구-후쿠오카 성터 및 사적주변지역을 대상으로-, 日本建築学会学術論文梗概集, 1997) 등이 있다.

### ③ ‘변화 및 제도’ 관련 연구현황

‘변화 및 제도’ 관련 주제 연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도시변화성장 연구의 비율이 56.4%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정비 및 재생 연구가 28.6%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림 32〉 ‘구성원리’ 관련 연구현황 (일본)

#### □ 도시변화성장

도시변화성장을 다룬 연구는 역사적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역사적 도시의 형성과 변용에 대한 연구’<sup>142)</sup>와 지방도시 중심시가지지를 대상으로 한 ‘지방도시 중심시가지지의 변용에 대한 연구’<sup>143)</sup> 등으로 나누어진다.

‘역사적 도시의 형성과 변용에 관한 연구’는 도시공간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발전하여 도시공간의 변용에 영향을 끼친 요소에 관한 연구, 도시축의 형성에 관한 연구 등으로 다양화되고 세분화 되어 가고있는 경향이 보인다.

‘지방도시 중심시가지지의 변용에 관한 연구’는 건축물, 공용공간, 오픈 스페이스 등의 공간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시가지지의 변용을 분석한 연구, 중심상업지의 상업기능 및 직주공존기능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가지지의 변용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 □ 도시정비 및 재생

도시정비 및 재생을 다룬 연구는 낙후되어 가거나 쇠퇴한 도시 시가지지의 정비 및 재생에 있어서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수준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고유의 생활가치를 발견하고,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142) 『京都・新京極の成立母胎としての寺町-伝統都市の近代における歓楽街形成に関する史的研究 その1-』(전통도시의 근대 환락가형성에 관한 사적연구, 日本建築学会学術論文梗概集, 1998) 등이 있다.

143) 『地方中心市街地における職住空間の変容に関する研究 福島県二本松市竹田根崎地区を事例として』(지방 중심시가지 직주공간의 변용에 관한 연구, 日本建築学会学術論文梗概集, 2002) 등이 있다.



주민참여의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와 연계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장래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연구<sup>144)</sup>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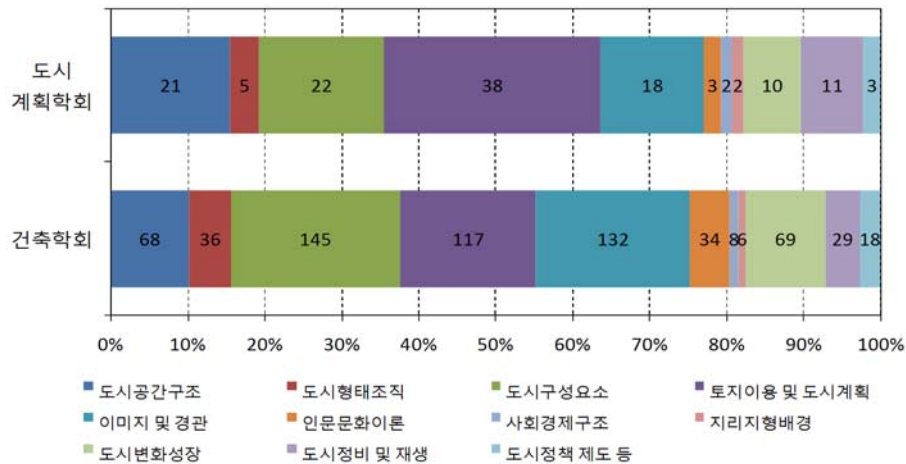
## 2) 분야별 연구현황

### (1) 일본 학회별 연구현황

일본의 학회별 연구현황을 보면 도시계획학회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구성요소, 도시공간구조의 순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건축학회는 도시구성요소, 이미지 및 경관, 토지이용계획의 순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계획학회의 연구에 비해서 건축학회의 연구가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도시공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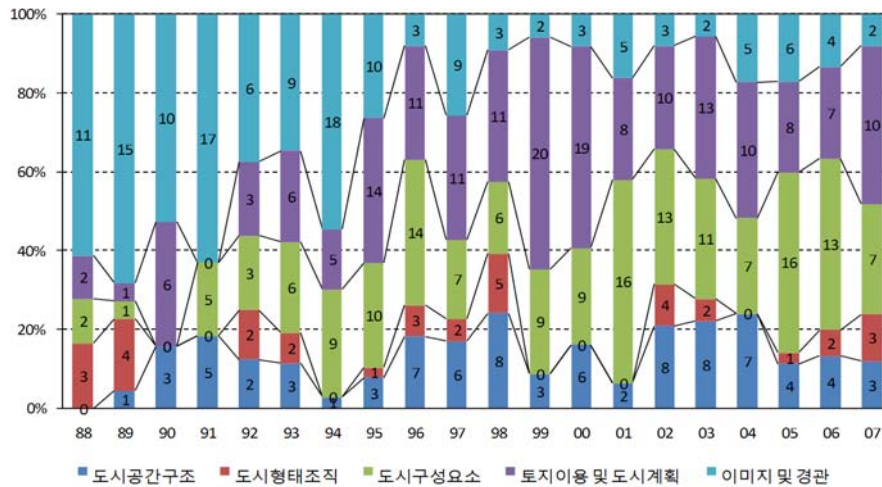
### (2) 일본 건축학회의 연구현황

일본 건축학회의 주제별 논문추이를 보면 이미지 및 경관은 감소 추세이고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과 도시구성요소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3〉 도시계획학회와 건축학회의 연구현황 비교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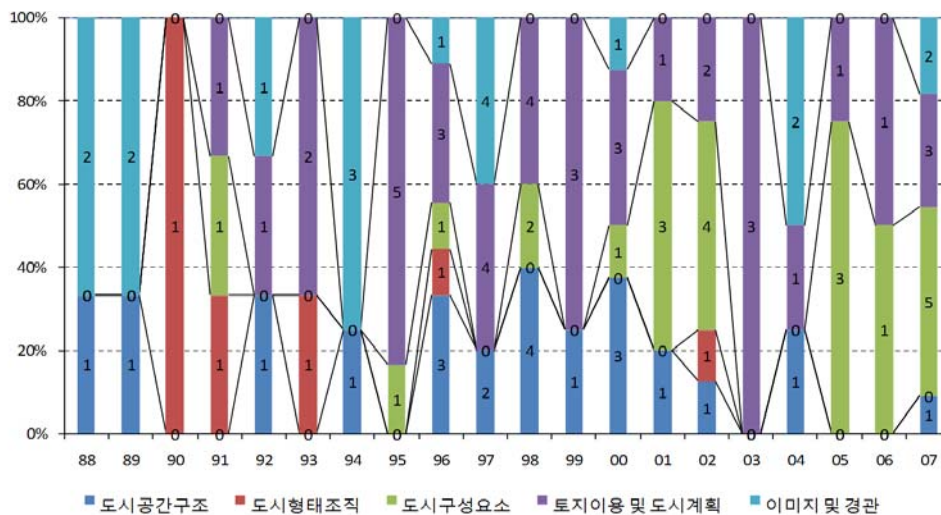
144) 「歴史的資源を活かした地域活性化における目標都市像の合意形成過程 -新潟県村上市旧町人町を事例として-」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에 있어서의 목표도시상의 합의형성과정, 日本建都市計画学会論文集, 2003) 등이 있다.



〈그림 34〉 건축학회의 연구현황 (일본)

### (3) 일본 도시계획학회의 연구현황

일본 도시계획학회의 주제별 논문추이를 보면 논문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다 할 경향은 보기 힘들으나 도시구성요소와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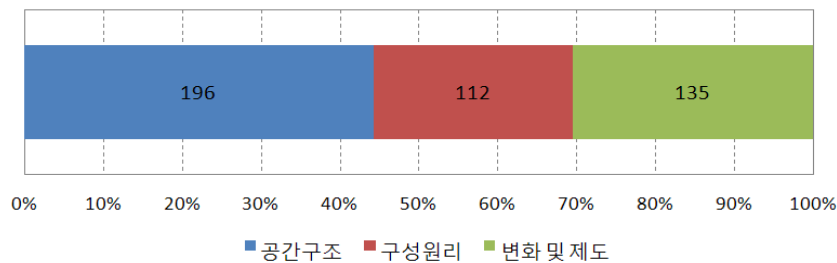
〈그림 35〉 도시계획학회의 연구현황 (일본)

### 3. 중국의 도시공간 관련 연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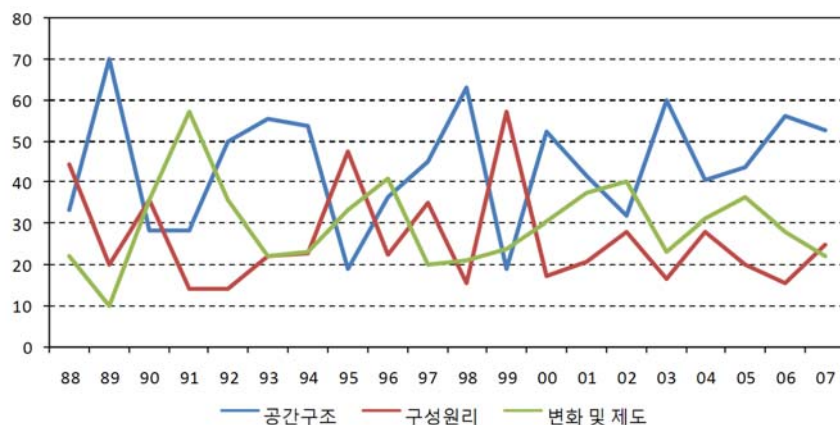
#### 1) 주제별 연구현황

##### (1) 주제별 연구현황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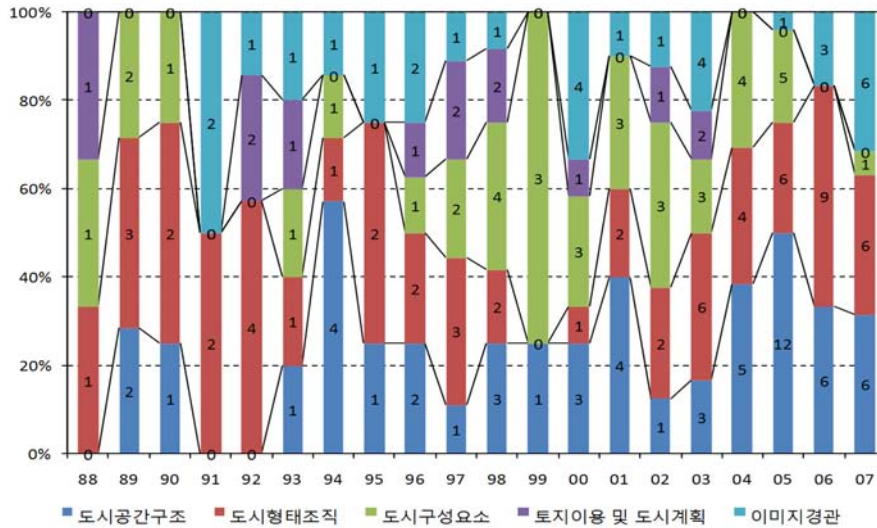
중국에서 진행된 중국의 도시 관련 연구로 조사된 전체 443편의 연구를 대분류 항목인 ‘공간구조’, ‘구성원리’, ‘변화 및 제도’로 나누어 보면 ‘공간구조’의 연구가 196편(44.2%), ‘변화 및 제도’의 연구가 135편(30.5%), ‘구성원리’의 연구 112편(25.3%)으로 비교적 연구가 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경우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각 분야의 연구가 동시에 발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6〉 대분류별 연구비율 (중국)



〈그림 37〉 대분류별 연구수의 추이-1 (중국)



〈그림 38〉 대분류별 연구수의 추이-2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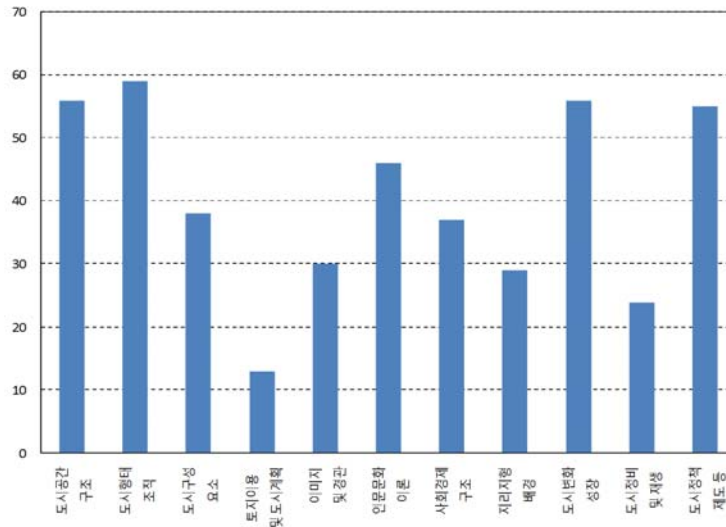
### ① 주제별 연구현황

중국의 도시공간 연구들을 주제별 항목에 따라 살펴보면 도시형태조직, 도시공간구조, 도시변화·성장에 대한 연구가 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의 성장이 도시의 공간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변화성장과 도시공간구조를 다루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이나 일본의 연구 경향과 달리 중국은 도시정비 및 재생 연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도시의 발전과 쇠퇴를 순차적으로 겪으면서 자연스레 도시의 재생이나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과 한국보다 앞서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온 일본에 비해 중국은 신시가지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17〉 주제별 연구 분포 (중국)

구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합계
도시공간구조	0	2	1	0	0	1	4	1	2	1	3	1	3	4	1	3	5	12	6	6	56
도시형태조직	1	3	2	2	4	1	1	2	2	3	2	0	1	2	2	6	4	6	9	6	59
도시구성요소	1	2	1	0	0	1	1	0	1	2	4	3	3	3	3	3	4	5	0	1	38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1	0	0	0	2	1	0	0	1	2	2	0	1	0	1	2	0	0	0	0	13
이미지 및 경관	0	0	0	2	1	1	1	1	2	1	1	0	4	1	1	4	0	1	3	6	30
인문문화이론	2	1	3	2	0	1	1	4	0	5	2	3	2	2	2	1	1	3	4	7	46
사회경제구조	1	1	1	0	2	0	2	5	2	2	1	4	2	0	3	1	4	4	0	2	37
지리지형배경	1	0	1	0	0	1	0	1	3	0	0	5	0	3	2	3	4	4	1	0	29
도시변화성장	1	1	1	0	2	0	0	1	2	1	1	3	3	4	7	1	8	10	5	5	56
도시정비 및 재생	0	0	1	1	0	2	2	2	0	0	1	0	2	2	1	2	2	5	1	0	24
도시정책제도 등	1	0	3	7	3	0	1	4	7	3	2	2	2	3	2	4	0	5	3	3	55
합계	9	10	14	14	14	9	13	21	22	20	19	21	23	24	25	30	32	55	32	36	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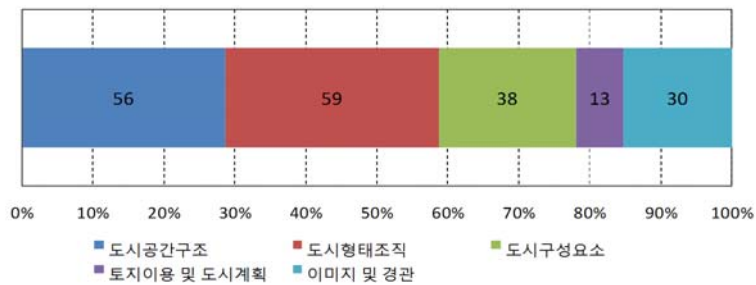
〈그림 39〉 주제별 연구수 (중국)

## (2) 주제별 연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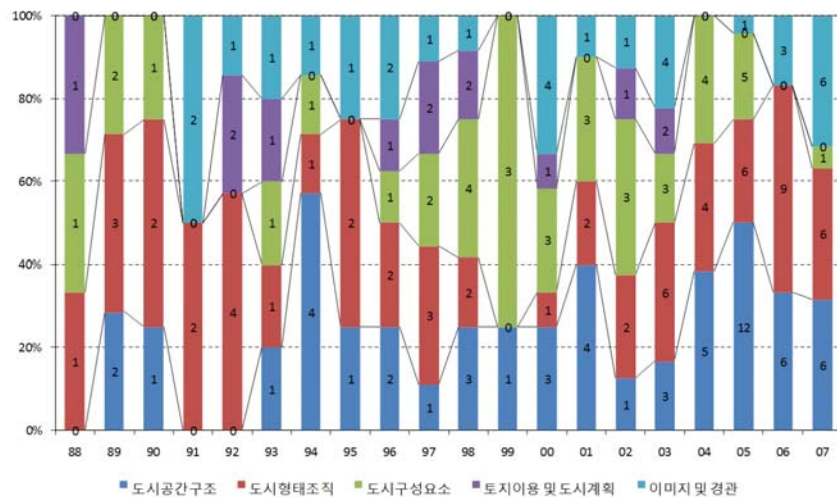
### ① ‘공간구조’ 관련 연구현황

중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 중 ‘공간구조’ 관련주제 연구들의 비중을 살펴보면 도시형태조직 연구가 30.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시공간구조 연구가 28.6%, 도시구성요소 연구가 19.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도시공간구조 연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시형태조직 연구와 이미지 및 경관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구성요소 연구와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연구는 감소 추세이다.



〈그림 40〉 공간구조 관련 연구현황 (중국)



〈그림 41〉 공간구조 관련 연구현황 (중국)

### □ 도시공간구조

도시공간구조를 다룬 연구로는 특정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공간의 형성과정이나 변화의

특성을 시기별로 분석<sup>145)</sup>하거나, 도시공간구조 변천의 메커니즘이나 동력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sup>146)</sup>들이 조사되었다. 이들 중 많은 연구가 도시공간구조 변천의 동력을 개혁개방 이후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재편임을 밝히고 있었다.

차량의 증가, 교통 수단의 발달이나 교통시설의 건설이 도시공간구조에 끼치는 영향 혹은 도시공간구조와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한 연구들도 다수 이루어졌으며 이는 중국의 도시공간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교통체계의 발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 도시형태조직

도시형태조직을 다룬 연구는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형태의 분석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sup>147)</sup>가 늘고 있으며, 또한 도시 자체의 형태에 대한 연구에서 도시의 형태에 영향을 끼친 요소에 대한 연구<sup>148)</sup>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도시구성요소

도시구성요소를 다룬 38편의 연구 중 30%에 달하는 12편의 연구가 광장에 대한 것<sup>149)</sup>으로 광장의 현황조사, 기능, 변천과정을 서술하거나 광장의 설계수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50)</sup>

이들 연구들에 있어서 ‘쾌적한 도시공간의 창조’, ‘도시공간의 재창조’, ‘도시공간 새로운 이미지 창조’, ‘도시패턴의 풍부화를 통한 활성화’ 등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다는 점은 중국의 도시공간에서 과거의 광장이 정치광장, 집회광장이나 교통광장, 오락광장과 같이 기능적 측면에서 접근되었던 것에 비해 근래의 광장은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시 공간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도심 재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도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145) 「基于RS和GIS的城市空间结构动态变化研究-以浙江省义乌市为例-」(RS와 GIS에 기초한 도시공간구조의 동태적 변화연구-질강성이우시를 사례로-, 도시계획, 2005) 등이 있다.

146) 「长江三角洲地区城市空间演化趋势」(장강삼각주지구 도시공간변천추세, 지리학보, 1998) 등이 있다.

147) 「城市空间形态图析及其在城市规划中的应用-以济南市为例-」(도시공간형태 graphics analysis 및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적용-제남시를 사례로-, 동제대학학보, 2007) 등이 있다.

148) 「道路交通对城市空间形态的影响」(도로교통이 도시공간형태에 미치는 영향, 도시문제, 2003) 등이 있다.

149) 「浅述当代我国城市广场空间」(당대중국도시광장공간의 소견, 산서건축, 2004) 등이 있다.

150) 도시구성요소 카테고리 분류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나 건축물군, 도시 시설물에 관한 연구 비중이 낮은 것은 중국의 연구 문헌 수가 방대하여 연구 선정 과정에서 ‘도시 & 공간’을 키워드로 일차 검색한 후 이차적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도시 단위를 아우르는 것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며,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은 단지나 시설 배치에 관한 연구는 본 조사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음을 알려둠

## □ 이미지 및 경관

중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들에 있어서 한국의 이미지 및 경관을 다룬 연구는 중국에서는 풍모(風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중국의 경우 전통도시공간의 경관(풍모)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이미지가 파괴되는 데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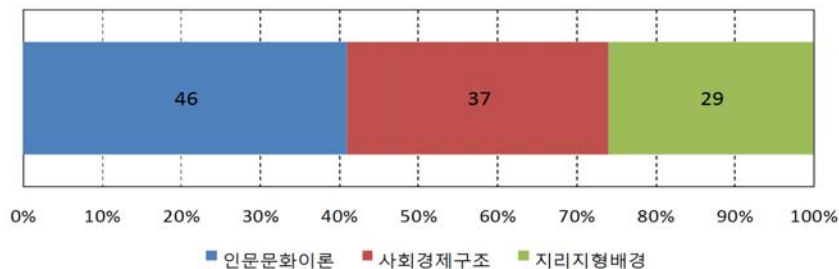
예를 들어 유승방(俞繩方)은 소주 고성을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연구<sup>151)</sup>를 진행하였는데, 1991년에는 소주시의 물(水)환경과 인공환경을 결합하여 물경관 계획수법을 도출하고, 1992년에는 소주고성 풍모와 건축 지방풍모의 7개 특징을 제시하였으며, 1994년에는 소주 고성 풍모를 보호하고 계승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후 2007년에는 다년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소주 도시공간 예술의 요소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 □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을 다룬 연구는 과거의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최근에는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의 결과를 고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연구<sup>152)</sup>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② ‘구성원리’관련 연구현황

‘구성원리’ 관련 주제의 연구 비중을 살펴보면 인문문화이론 연구가 4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경제구조 연구가 33.0%, 마지막으로 지리지형배경 연구가 25.9%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림 42〉 구성원리 관련 연구비율 (중국)

151) 『苏州水都古城风貌的保护 继承与发展』(물의도시 소주의 고성 풍모의 보호, 계승과 발전, 화중건축, 1994) 등이 있다.

152) 『对现行城市土地利用规划的生态反思』(현행의 도시토지이용계획의 생태적 회고, 도시계획회간, 2003) 등이 있다.



## □ 인문문화이론

인문문화이론 연구들은 초기에는 특정한 연구 대상이 없는 보편적 이론을 다루는 연구<sup>153)</sup>가 많았으며, 1990년대 말부터는 중국 내에서도 서로 다른 자연환경, 경제, 사회, 문화 조건 아래서 고유의 ‘도시특색’ 혹은 ‘지역문맥’을 밝혀내고 보호·계승하기 위한 연구<sup>154)</sup>가 증가하고 있다.

## □ 사회경제구조

사회경제구조 연구들은 1980년대 이전 계획경제 시기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도시공간을 다루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우선 개혁개방 하에서 도시발전 및 도시계획의 특징, 시장경제가 도시계획 및 제도에 미치는 영향<sup>155)</sup>에 관한 것이 있으며, 개혁개방정책의 실행으로 인한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토지, 주택, 인구 제도의 개혁을 가져와 기존의 도농통합이나 대도시 억제와 같은 사회주의도시계획의 특성이 사라지고 중국의 도시공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개발과 도시공간구조의 관계, 사회공간구조에 대한 분석, 도시공간소비의 사회학적 분석 등을 다룬 연구가 있으며,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정보화시대의 도시구조, 발전, 문화 등을 다룬 연구가 있다.

## □ 지리지형배경

지리지형배경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산수도시’, ‘산지도시’, ‘수변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지도시 형태구조, 생태학적 방법, 설계원칙과 수법 등을 다루고 있다.<sup>156)</sup> 특히 산지가 많은 서북지방에서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물을 다루는 전통적 기법을 산지에 적용하여 생태적인 산수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급속한 도시개발의 결과 기존의 지리지형이 파괴되고 독특한 지역 풍모를 잃어가고 있는 데 대한 해결책으로써 현대 도시공간에 산수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153) 『城市空间和环境意识』(도시공간과 환경의식, 시대건축, 1995)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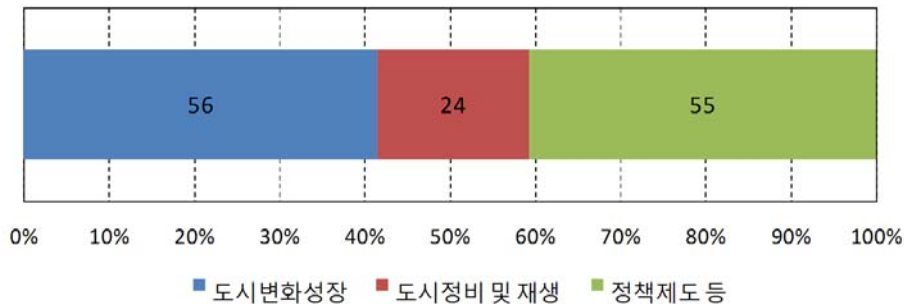
154) 『对现行城市土地利用规划的生态反思』(현행의 도시토지이용계획의 생태적 회고, 도시계획회간, 2003) 등이 있다.

155) 『广州城郊大型住区的形成及其影响』(광주교외대규모주거지의 형성과 그 영향, 도시계획회간, 2003) 등이 있다.

156) 『试论北京‘山水城市’特色的继承与发展』(북경 ‘산수도시’ 특색의 계승과 발전, 북경계획건설, 1996) 등이 있다.

### ③ ‘변화 및 제도’ 관련 연구현황

‘변화 및 제도’ 연구 비중을 살펴보면 도시변화성장 연구가 4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시정책제도 등의 연구가 40.7%, 도시정비 및 재생 연구가 17.8%의 순이다. 도시변화성장 연구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정비 및 재생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3〉 변화 및 정책관련 연구현황 (중국)

#### □ 도시변화성장

도시변화성장을 다룬 연구들은 크게 전통 도시의 발생 및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sup>157)</sup>와 최근의 도시화와 관련하여 도시공간의 확장이나 새로운 도시권의 형성에 대한 연구<sup>158)</sup>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도시화 관련 연구는 구체적으로 도시 발전의 동력과 메커니즘, 도시공간 확장의 일반적 규칙과 패턴의 변화 등을 다루고 있으며,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인구도시화와 함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주변에 기업도시를 입지시켜 도시가 확장되고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도시정비 및 재생

도시정비 및 재생 연구는 급속한 도시 발전을 배경으로 한 도시변화성장 연구에 비해 적은 수이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구시가지 재개발, 도시재생과 관련한 연구<sup>159)</sup>와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방안 마련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있다.

157) 『上海城市形态的演化与文化魅力的探究』(상해도시형태의 변천과 문화매력의 탐구, 도시계획, 2001) 등이 있다.

158) 『1990年代以来广州城市空间拓展动力』(1990년대부터 광주 도시공간확장동력, 중국도시계획년회, 2006) 등이 있다.

159) 『城市更新类型分析-以盱眙旧城区改造为例』(도시재생유형분석 - 우이시 구도시 개조를 사례로, 계획사, 2000) 등이 있다.

## 2) 분야별 연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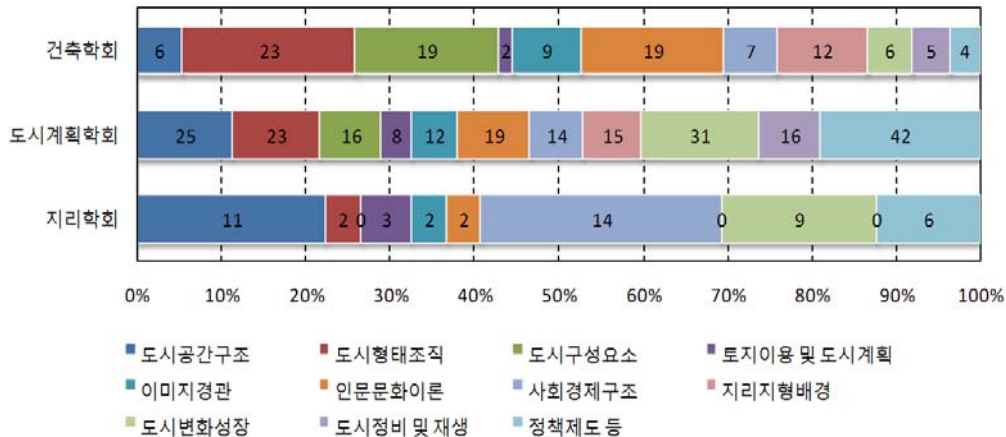
### (1) 중국 학회별 연구현황

중국 건축학회의 경우 도시형태조직 연구가 20.5%로 가장 많았고 도시구성요소와 인문문화이론 연구가 각각 17.0%를 차지하였으며 지리지형배경 연구가 10.7%로 뒤를 이었다.

중국 도시계획학회의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도시변화성장 연구가 14.0%, 도시공간구조 연구가 11.3%, 도시형태조직 연구가 10.4%, 인문문화연구가 8.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주제가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지리학회는 사회경제구조 연구가 28.6%로 가장 많았고 도시공간구조 연구가 22.4%, 도시변화성장 연구가 18.4%로 연구가 몇 개 주제에 편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비해 도시구성요소와 지리지형배경, 도시정비 및 재생 관련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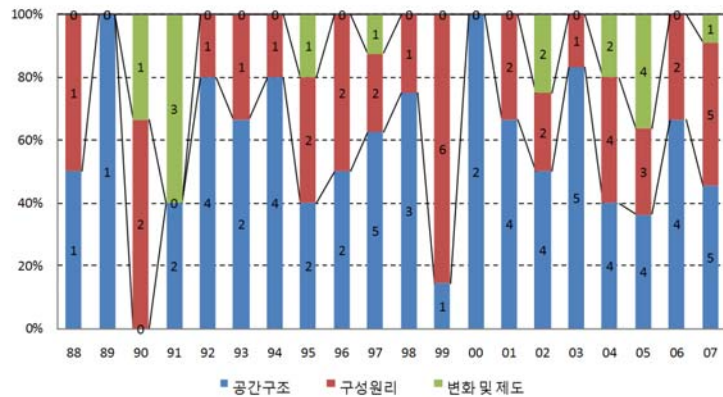
학회별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건축학회의 경우 형태적인 측면과 도시내부 조직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도시계획학회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도시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예전에 만들어진 도시가 많은 관계로 도시변화성장 연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리학회의 경우 인문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도시공간 연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4〉 학회별 연구현황 (중국)

## (2) 중국건축학회 연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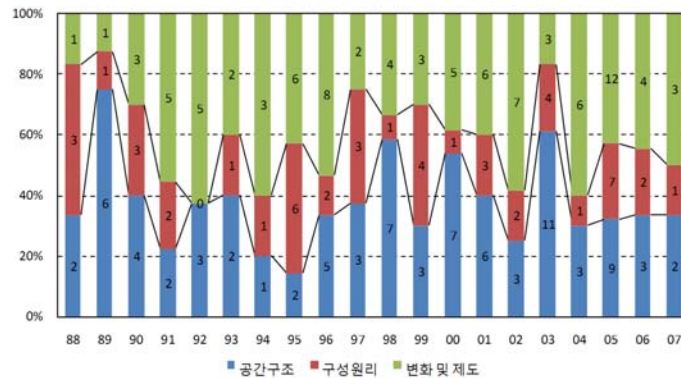
중국건축학회의 주제별 논문추이를 보면 큰 경향성없이 모든 분야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중에서도 특히 공간구조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성원리와 관련된 연구가 변화 및 제도와 관련된 연구보다 많은 비율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다.



〈그림 45〉 건축학회의 연구현황 (중국)

## (3) 중국도시계획학회 연구현황

중국도시계획학회의 주제별 논문추이를 보면 건축학회와는 달리 변화 및 제도에 대한 연구비중이 높고 비중도 지속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6〉 도시계획학회의 연구현황 (중국)

#### (4) 중국지리학회 연구현황

중국지리학회의 주제별 논문추이를 보면 논문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다 할 연구경향성은 크게 보이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의 주제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uri



**( a u r i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tel 031-478-9600  
fax 031-478-9609  
[www.auri.re.kr](http://www.auri.re.kr)